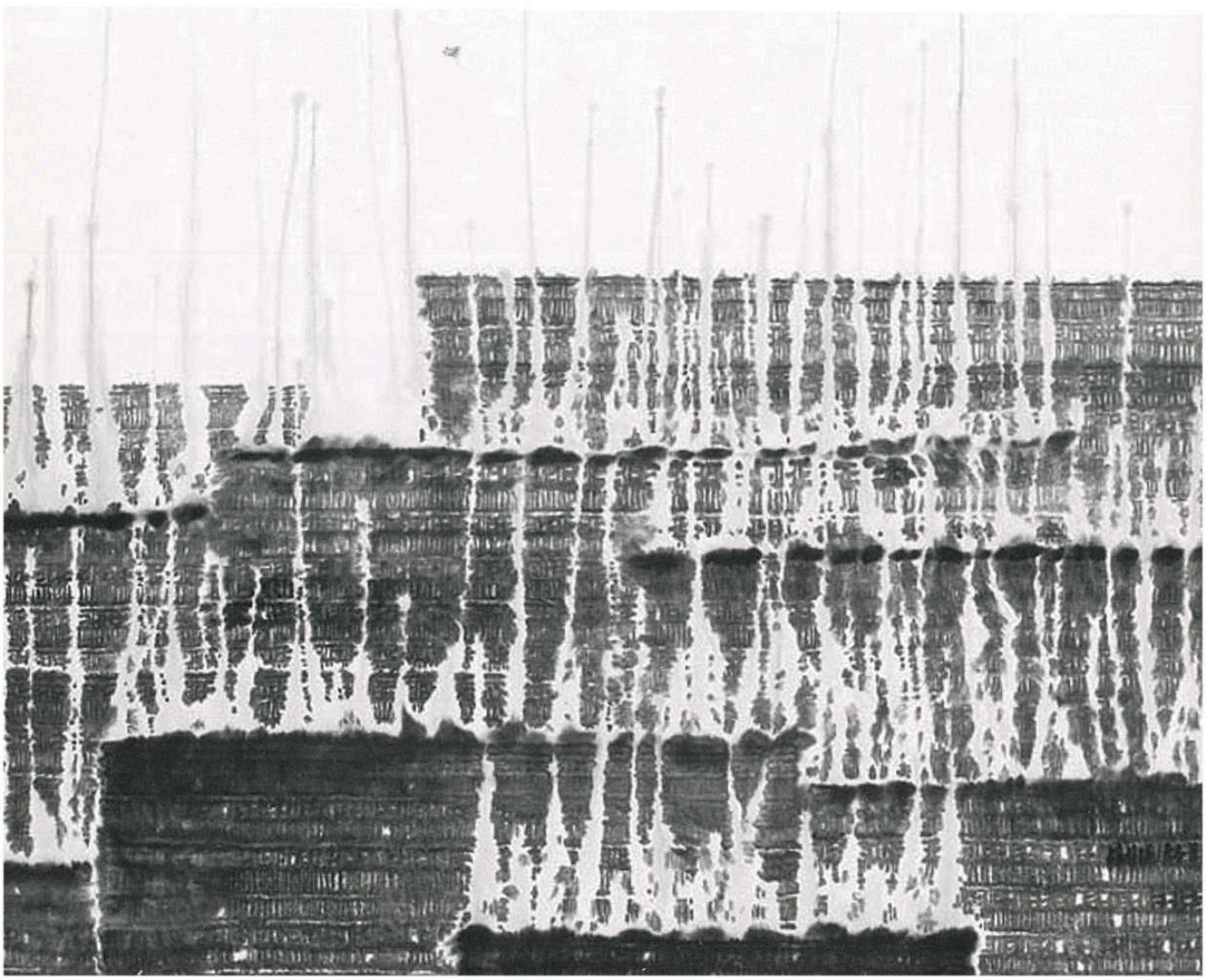
2010년 통권 제17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8. 2010.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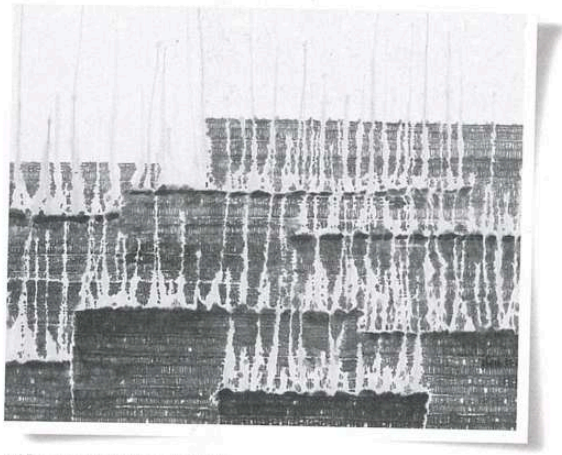
이팝나무 꽃

이승훈

지하 단칸 방
반 남은 창문에 걸쳐
퀴퀴한 냄새는 나가지도 못하고
뒤틀린 꿈만 꾸지요.
한 번쯤 햇빛도 보아야하고
바람도 들어야하고
비로소 빨래는 빨래가 되는 것인데
지상에 피우는 꽃
그 숨 막히는 지하를 알기에
하얗게 빛을 닮아서 피는
이팝나무 좀 봐요
하얀 이부자리 빨래로
하늘에 걸려 있네요.

이승훈
· 전북 군산 출생 · 2006년 대한문학 신인문학상 · 2005 제9회 군산벚꽃축제 전북백일장 일반부 운문 장원
· 제1회 아이올리브 인터넷 전국공모 최종심 가작당선 · 그림과 시집『빈들의 소곡』출판 · 전북문인협회, 익산문인협회 회원
· 주소 : 570-091 익산시 모현동 현대 3차아파트 303동 607호 · 전화 : 010-4115-0577, 집(063)851-0577
· 전자메일 : misege@hanmail.net · 군산대성중학교 근무

표지 작가안내



검은 도시 / 110×93cm / 장지.먹

고 형 숙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과 졸업
- 개인전 5회 및 단체전 60여회
- 現) 전북대학교 강사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삼태마을 206-2번지(우 565-842)
- 전화 : 016-653-1833
- E-mail : mimi1001@hanmail.net

전북회화

2010. 11. 16(화) ~ 11. 21(일)

Opening _ 2010. 11. 16(화) pm 6:00

교동아트스튜디오

전북회화회 발자취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전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1~1.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3.25 정기총회
2010.7.5 정기모임-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8.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10.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11.8 통권 제17호 발행
2010.11.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 나의작업노트

06 고형숙
07 박지예
08 박성수
09 방정엽
10 서진숙
11 안순금
12 이광원
13 이승훈
14 이우정
15 이진숙
16 이철량
17 이환배
18 정미현

... 수필

19 고흐에게 말 걸기 최화경

... 전시리뷰

21 고형숙 전 (Black city)
22 이승훈 개인전

... 작업실탐방

24 작업실탐방 | 한숙

... 회화이론

26 문인화의 즉흥성연구 | 박성수
30 Virtual 환경에서의 뉴미디어아트 표현방법 | 김선태
41 추사 예서의 기괴와 고졸의 조형성 | 김정희

... 미술관을 찾아서

52 박수근의 그림에서 박수근을 읽는다 | 김영숙
54 전북 미술 문화의 이해와 새로운 창조 | 이홍재
58 전라남도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 이광원
62 조각의 신 "오귀스트 로댕을 만나고" | 이승훈

... 나의여행기

66 신이 내려주신 축복의 땅!
거대한 섬 호주를 기억하며 | 정미현
72 하남성 낙양, 정주를 다녀와서 | 이진숙

... 미술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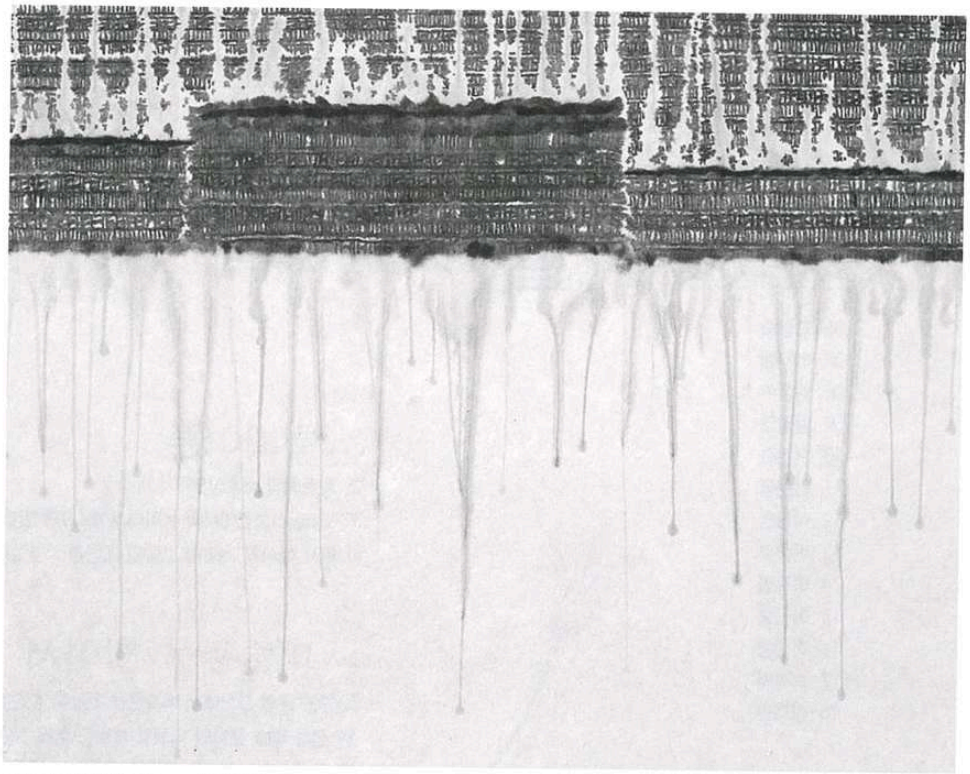
76 환상의 세계를 다녀와서 | 김도언
78 먹의 미학 - 서화의 세계 | 노희선

... 여적

82 미술관 소개 | 편집부
85 읽을만한 책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8. 2010.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검은 도시 / 91×72cm / 장지.먹

❀ 현재 나의 작업은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도시를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대의 사회에서 도시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현대화 이후 도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도시 문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다양하다.

현대인이 누려야 할 새로운 낙원, 자연을 파괴하는 요인 중의 하나, 현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욕망의 산물, 끝없이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꿈의 공간... 이러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나에게 도시는 현대의 새로운 자연,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하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도시를 해석하고자 한다.

고 형 숙 (Ko, Hyoung-sook)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과 졸업 *개인전 5회 및 단체전 60여회 *現) 전북대학교 강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삼태마을 206-2번지(우 565-842) *전화 : 016-653-1833 *E-mail : mimi100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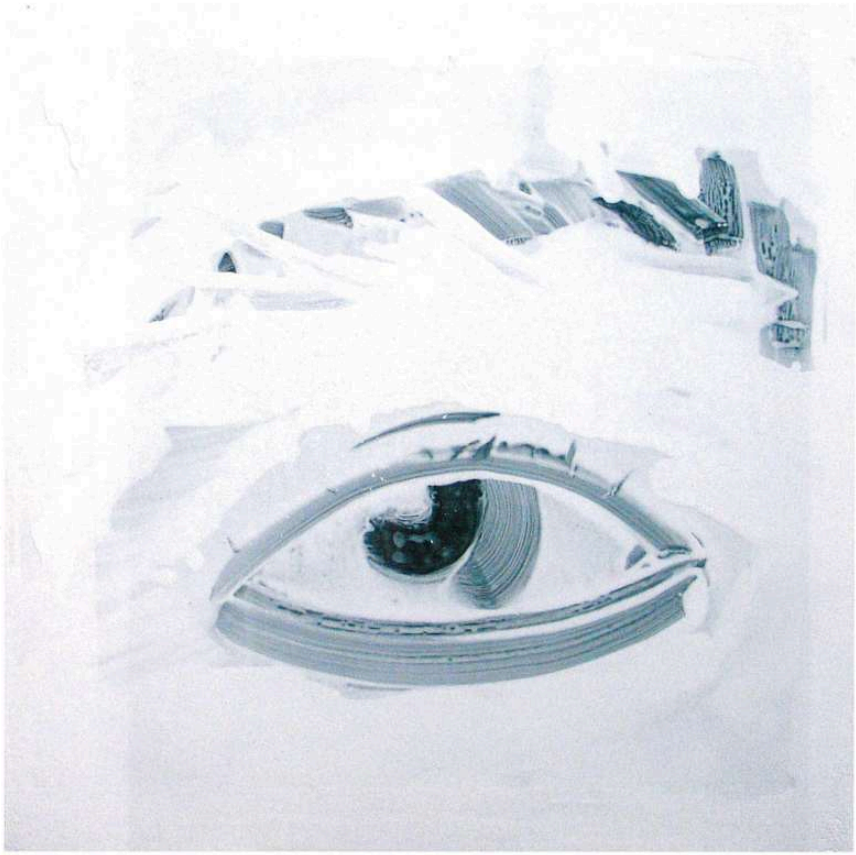


업적 / 79×110cm / 수묵담채

"10월의 어느 멋진 날" 노랫말처럼 그림 그리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으로 작업에 임하고 싶다.

박 지 예 (Park, Ji-ye)

*원광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 (단원미술관)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 (소리문화의 전당) * 現) 하니미술학원장, 원광대학교 강사, 전통문화고 강사 *(우 561-835)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0-68 *전화 : 011-624-9715



눈(eye) / 73×73cm / 캔버스에 아크릴

❀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이상을 꿈꾸며 어떤 이는 현실을 부정 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에 세계를 긍정하거나 부정도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 이상과 현실을 보이는데 있습니다. 그저 그러함을 말이 아닌 그림으로서 피력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Eye 시리즈에 내용이기도 합니다.

박 성 수 (Park, Sung-so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수료 •개인전 : 2009 삼형제의 막내, 노암 갤러리, 서울 / 2009 : 삼형제의 막내, 노암 갤러리, 전주 / 2008 : 정원 _ 고유영역, 우진문화공간, 전주 / 2008 : 정원 _ 고유영역, Espace J Gallery, 상하이, 중국 / 2007 : 정원 _ 고유영역, Art Scola Gallery, 상하이, 중국 •단체전 다수 •수상경력 :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라북도 주관 2009년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수도권전시지원사업 공모 당선 / 2008 전주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당선 / 2007 우진문화재단 2007-2008 미술작가지원사업 공모 당선 •작품소장 : 국립 현대미술관(미술은행)/우진 문화재단/서신갤러리/상하이 민생은행/서울 한솔 병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5-9 •전화 : 010-9992-3661 •E-mail : sspark0308@yahoo.co.kr



만추(晩秋) / 45x95cm / 천+수묵채색

노쇠(老衰)한 계절에 또 길을 나선다.

대청호반을 다녀왔다.
푸른 물을 끼고 이제는 섬이 되어 버린 산.

천 여 년 전,
이 곳에 장차 왕이 나올 거라고
원효가 예언 했다던가……
골은 물이 되고,
봉우리는 섬이 돼버린 사이로
백구(白鷗)는 훨훨 날라 간다.

마음이 젊었던 어떤 이가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준 청남대(淸南臺).
시절의 무상함을 느끼며 우거진 숲길을 걷는다.
이렇게 소박한 걸음으로 긴 여정(旅程)을
걸어갈 순 없는가?

감상에 젖어 호숫가 벤치에서
삶의 의미를 따지기 시작한다.
치열했던 삶을 허공(虛空)에 훌훌 날려 보낸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정도(正道)는 존재하는가?
있다면 신(神)이 원하는 길일까?

갑자기 벨이 울린다.
일탈(逸脫)에서 일상(日常)으로 되돌려야 하는 시간.
쇠락(衰落)해 가는 계절을 뒤로 하고
또 다시 길을 떠난다.

방 정 엽 (Bang, Jeong-yeob)

*전북대 미교과 졸 *現 전라고등학교재직, 전북회화회 · 한국미술협회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전화 : 063-246-3073, 011-681-7127



얼 / 50×90cm / 한지,채색

추녀끝에 걸어놓은 풍경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그윽한 소리를 낸다
인생은 무사평온 하다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즐거움도 알게 된다

날씨 탓일까?
아님 뭔가를 이룬 뒤의 허전함일까?
아니, 몇 년 동안 삶의 방향이 급회전한 탓일까?
빈 가을 들녘에 홀로 서있는 허수아비에 다를 것이 없고, 삶의 목표를 세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쫓아가는 행위에 불과한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된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몇 년 동안 소홀했던 나의 꿈을 찾아 이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또 하나의 조그만 행복의 문을 열어 내 자신의 생활을 즐겨 보련다.

-스산한 바람이 스치는 10월의 가을밤에-

서 진 숙 (Seo, Jin-sook)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95) *단체전, 교류전, 초대전 80여회 참여 *현) 한국미협, 전북회화회, 전통미술연구회 회원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53-7 로가 401호 *E-mail : mthill@hitel.net *전화 : 063)547-5012(직), 010-3683-2506



꽃-그리움 / 50cm×100cm / 혼합재료

이 계절이 나를 침잠하게 한다. 파랗고 높은 하늘을 볼 때도 그렇고,
햇빛에 반짝이는 키 큰 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나 보다.
옆에 있는 사람도 편하고, 책상도 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나는 의자 끌리는 소리에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 안에 내가 없는 듯하다.

여름 태양을 닮은 꽃을 그렸다. 먹빛에 담긴 빨강 꽃이 좋다.
밝고 화사한 빛으로 마음을 메우고 싶다.

안 순 금 (An, Soon-geum)

•개인전 3회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현) 전북회화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60-28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433-1번지
•전화 : 010-2635-6314 •E-mail : f12-4@hanmail.net



환희 / 130.3×89.4cm / 장지, 먹, 채색

부드러움과 온순함과 평화로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내적자유
작품활동을 통하여 소통하고 있다.
나만의 표현으로
욕망을 충족시켜 진실이 통하는
세월속에서 나를 확인한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과 전공)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焕奐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 전북회화회 회원 •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1-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연꽃이야기 / 69×34cm / 紙本彩墨

초여름
온통 뒤범벅이 된 물위를
벗어난 연꽃과 연자는 초연하게 서있고
여우비 내린 연못으로 나온 한 쌍의 물총새
자맥질도 힘겨운 듯 서로에게 위안을 보낸다.
이 연못 주인은 잠이 들었는지
배도 띄우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만 붙잡아
물 위로 부들만 띄웠구나.

이 승 훈 (Lee, Seng-hoon)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卒 同 大學院 美術科 卒業 •個人展 1回(全北藝術會館) •東으로 韓國現代美術展(中國西安美術學院美術館) •全北人物列展(全北藝術會館) •傳統의 힘, 韓紙와 毛筆의 造形展 外 多數 •大陸의 메아리展(安山 丹園展示館) •全北美術의 照明(全北道立美術館) •現 : 山墨會, 志朋展, 全北繪畵, 韓國美協, 傳統美術敎育研究會, ART, 盒山古蹟研究會, 천칭天秤文學會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在職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전화 : 010-2073-0655 •E-mail : misege@hanmail.net



가을 / 30×60cm / 혼합재료

구름으로 만든 이름이 좋다
바람으로 엮은 옷매무새가 좋다
햇살이 비치는 곳이면
비바람이 새어도 좋다
나를 문풍지 울고가는 뜰앞에 놓아다오
콘크리트 담벼락은 싫다
한 낮이면 갈증의 물을 주는 정원도 싫다
잠자리도 한줌 날개를 좋았다 가는
빈집이 좋다
이슬에 흠뻑 젖어서
네가 그리워 그리워 찾아가는
흙냄새 진동하는 그늘진 뒤뜰이 좋다
감나무 한그루 제멋대로 가지를 내린
햇빛 그림자 감춘 아래라도 좋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좋다
지푸라기 한 올
허벅지에 제멋대로 올려놓고
낮잠에 빠지는 정오라면 더 좋다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재학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우묵회, 한국화 구상회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101-202 •전화 : 016-299-2221



국화 옆에서 / 45×60cm / 한지, 아크릴, 수묵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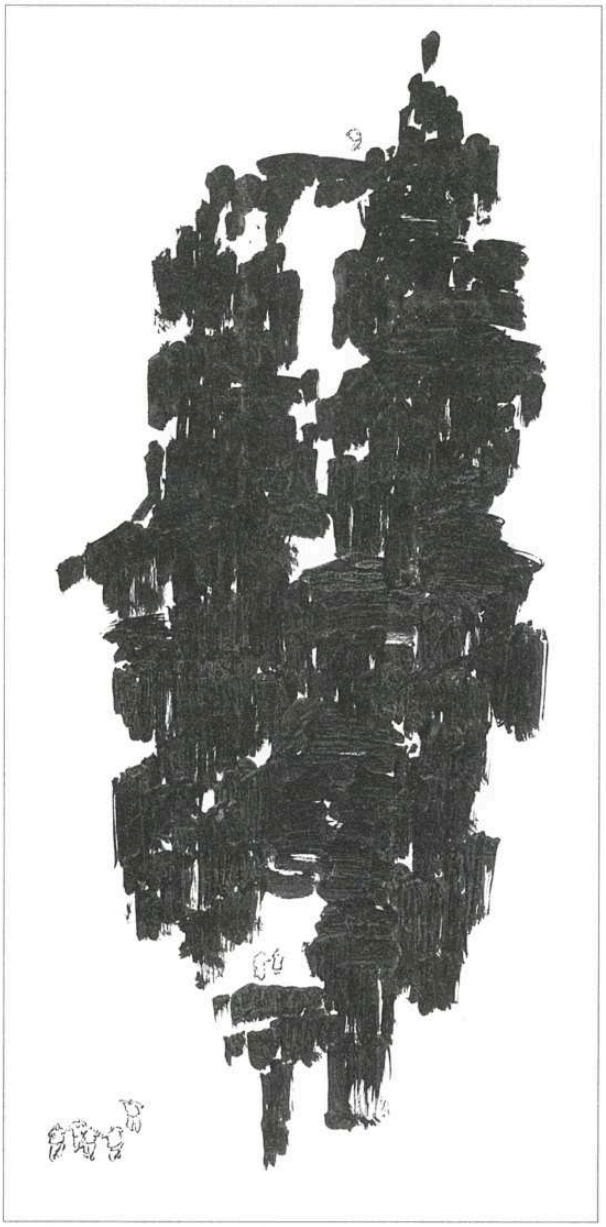
아침에 눈을 뜨니 별채 지붕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얼른 문을 열고 밭에 나가보니 가지와 호박이 풀이 죽어 땅에 업드려 있다.
지난 봄부터 여름 가을에 우리에게 맛있는 반찬을 마련해 주었는데.....
서리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층작업실에 올라와 마당을 내려다보니 어느새 잔디도 누런색 옷으로 갈아 있었다.
나도 이젠 새로운 빛깔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겠다.
붓도 씻고 벼루도 깨끗이 닦고, 화판에 종이도 새것으로 붙였다.

종이에 새 옷을 입히자
멋있는 색으로.....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원묵회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전화 : 010-4605-9876 •E-mail : waltzz@dreamw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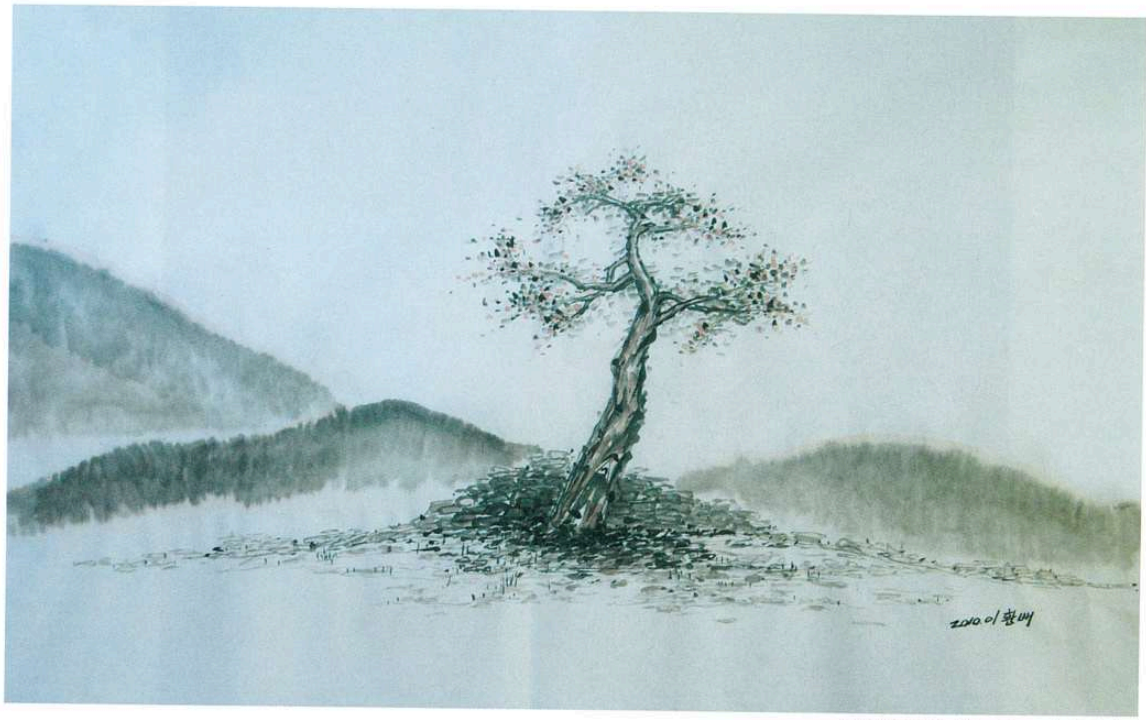


city / 70x150cm / **캔버스에 먹**

❀ 이 작품은 도시를 그린 것이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역사이고 현장이다. 그래서 도시를 그리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매우 구성적이고 또 아름답다.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들이 밀집된 공간은 참 아름답다. 이 작품은 건물을 그린 것은 아니다. 건물들의 집합이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을 보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는 주인공인 인간이 있다. 그 인간들로 인해서 도시는 사색으로 이루어진 색다른 공간이 된다.

이 철 량 (Lee, Choul-Ryang)

*전북대학교예술대학 교수 *주소 : 560-070 전주시 완산구 교동 98-1 번지 *전화 : 011-650-9849



가을이오면 / 110×65cm / 수묵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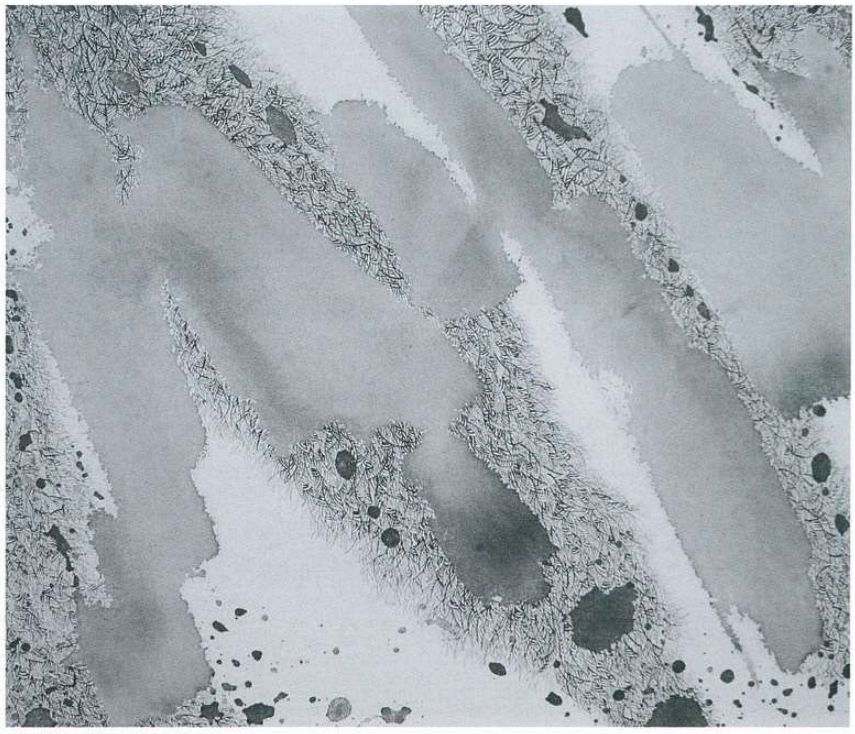
가을이오면 서서히 모든 것을 훌훌 벗어 던지면

그것들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우둑 허니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이 환 배 (Lee, Whan-ba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서울)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동악 71~94(운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현) 예원예술대 출강, 그린섬대표이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진흥 w-pak 107-1101
•전화 : 010-3673-1562, 063)283-6512



묵상-자연 / 천에 수묵

자연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본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란다.
언제부터인지 정원에 터 잡고 폼 나게 피우는 꽃들보다 풀숲사이로 슬그머니 피어있는
이름모를 꽃들이 눈과 마음에 가득 찬다.
"항상 위를 바라보며 살아서 안 보인게지" 라며 옆에서 핀잔을 준다.
그랬었다.
사람들이 예쁜 화분에 담아주지 않아도.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나도록 돌보아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쁘다며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저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천년을 살았으리라.
우리네 인생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러하겠지.
웃음이 배어나온다.
우리 사람끼리도 고개를 낮추고 바라보면 멋진 사람 많겠구나싶다.
'자연과 친해지기'
가까이 가보니 보인다.
이렇게 저렇게 삶을 꽃피우는 모습들이...

정 미 현 (Jeong, Mee-hyun)

•개인전 6회 •단체전 및 초대전 110여회 참여 •뉴욕에서 바라본 우리그림전(파인아트갤러리/뉴욕)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회원
•현) 군산산북중학교 재직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778번지 •전화 : 011-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고흐에게 말 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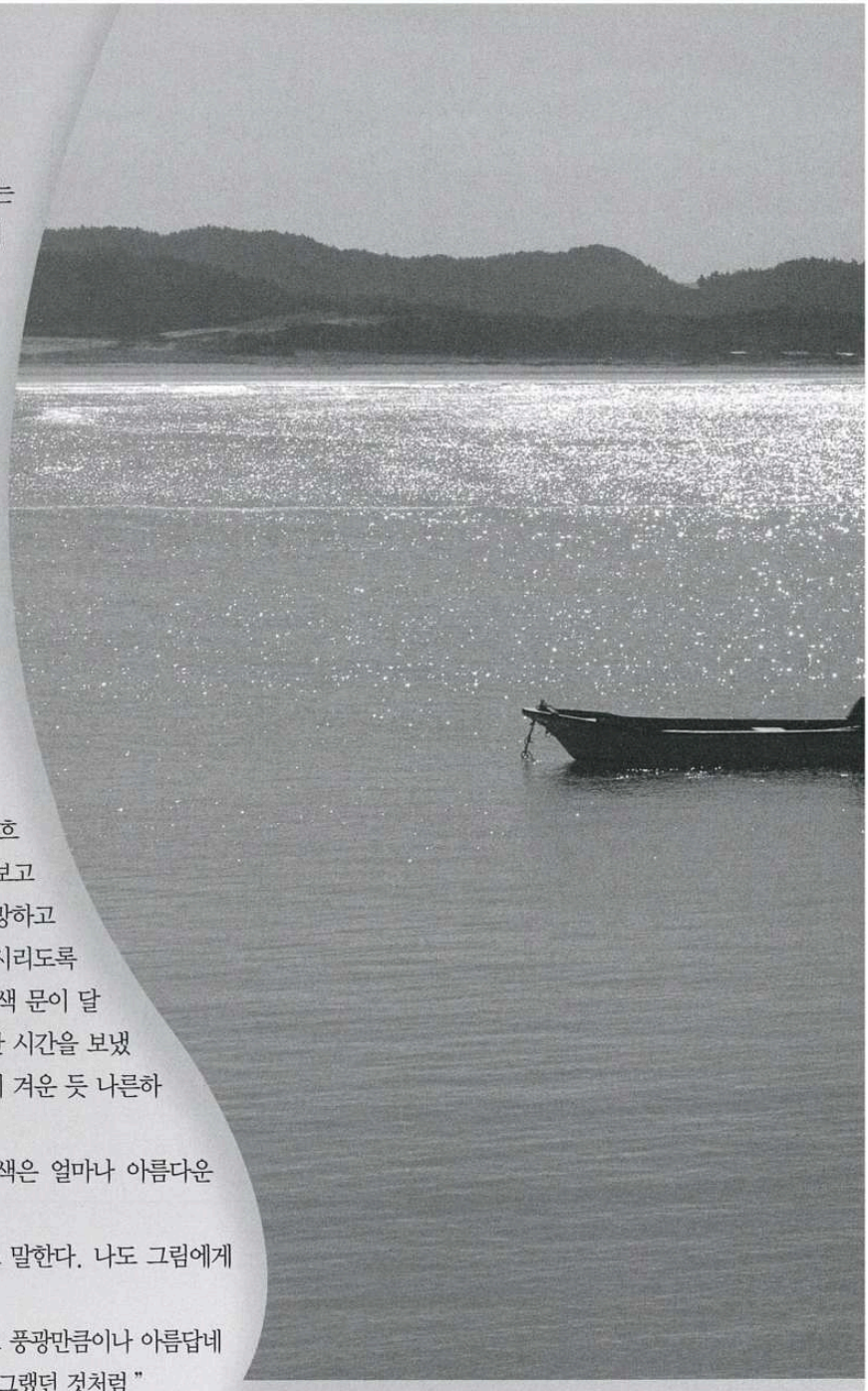


최화경 (여류 수필가)

태안으로 가는 길은 온통 바람이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었지만 태안으로 가는 발목을 잡지는 못했다. 검은 바다, 기름 바다의 오명을 씻은 태안의 순결한 바다가 아른 거린 건 봄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였을 것이다. 꽃이 떨어지자마자 날씨가 성급히 여름을 부르고 있었다. 사람으로 가득한 뜨거운 바다에서 찬바람의 바다까지의 시간이 너무 아득했다. 칠월에 비 소식이 잦았다.

종일 바람을 맞으며 비에 젖는 바다를 보는 것도 겨울바다 못지않은 정취가 있을 것 같았고, 미친 듯 기어오르는 허연 파도를 밀어냈다 끌어안고, 끌어안았다 밀어내는 등대가 보고 싶어 떠난 길이었다.

랑글루아 다리를 발견한 건 뜻밖의 장소였다. 바다로 가는 길목에서 〈청산 수목원 연꽃 축제〉란 현수막이 바람에 몸을 못 가누고 있었다. 그 곳은 작은 수목원이었다. 오랜 시간 공들여 가꾸어 만든 개인 소유의 수목원 같았다. 구석구석 독특함으로 시선을 끌었다. 정작 연꽃은 아직 이른 듯 연잎만 무성했고 꽃대는 그다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축제 초입이라 그럴지도 몰랐다. 주변은 고요하고 한산했다. 여기 저기 기웃대며 천천히 걷다가 문득 그 다리를 봤다. 멀리서 봤을 땐 일본의 신사(神社)처럼 보였었다. 시골의 작은 수목원에서 이웃나라 신사라니. 호기심이 발동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고흐의 그림 속에서 봤던 랑글루아 다리였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다리를 그대로 재현에 놓은 나무다리였다. 신기했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튀어 나온 듯 비슷했다.



남프랑스 아를르에 있는 랑글루아 다리는 배가 지나 갈 때마다 다리의 양쪽 끝이 들리면서 열리는 도개교였다고 한다. 고흐는 둥글게 휜 다리 모양이 마음에 끌려 랑글루아 다리를 여러 번 그렸다고 했다. 다리를 설명해 놓은 표지판에 랑글루아 다리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림 앞에 오래오래 서 있자니 그림 속 강물의 동심원처럼 다리 아래 하천의 물이 흔들리는 듯 착각이 인다. 난 다리 앞에서 가만히 그림에게 말을 걸었다.

"고흐, 당신 지금 행복하세요?"

고흐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소. 예전 노란 집에서 살 때처럼 행복하다오."

순간, 재작년 겨울 서울 전시회 때 봤던 고흐의 〈노란 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거의 전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위안을 주던 그림이었다. 시리도록 푸른 청색의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던 초록색 문이 달린 〈노란 집〉, 고흐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 〈노란 집〉이다. 〈노란 집〉이 행복에 겨운 듯 나른하게 내게 말을 건다.

"고흐는 지금도 감탄한답니다. '아, 노란 색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말입니다."

고흐가 말 한 대로 화가는 죽어서 그림으로 말한다. 나도 그림에게 말을 건다.

"새로운 랑글루아 다리가 있는 이곳도 아를르 풍광만큼이나 아름답네요. 무엇보다 우울 하지 않아 좋군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_"

갑자기 붓꽃이 피어 있던 아를르의 풍경이 이곳 수목원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환희 같은 게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뜻밖에 만난 고흐를 작별하고 바다로 가는 길에 누군가 말을 건다.

"태안반도엔 지중해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가 도처에 펼쳐져 있답니다."

내 눈 속엔 벌써부터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출렁이는 듯 차창 밖이 온통 푸른빛이었다.

o 수필가 ---------- **최화경** (여류) ----------

· 좋은 문학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 전북문인협회 회원
· 전북수필 / 미래문학 / 좋은문학작가회 회원
· 원종린 수필문학상 / 한국의 수필가상 수상
· 저서 / 음악없이 춤추기(수필집)
· 그리운것은 그리운대로 / 녹차밭에 머무는 향기 / 공저



고형숙 展
Black city

2010.10.20(수) – 10.26(화)
open : 2010.10.20. pm 6 : 00　서신갤러리

현대인이 누려야 할 새로운 낙원, 자연을 파괴하는 요인 중의 하나, 현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욕망의 산물, 끝없이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꿈의 공간... 이러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나에게 도시는 현대의 새로운 자연,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하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도시를 해석하고자 한다.





겨울길 34×34cm

이승훈 개인전

2010 The 7th 공간 & 소통 Fineart-Art Fair JBAF 2010 JeonBuk Art F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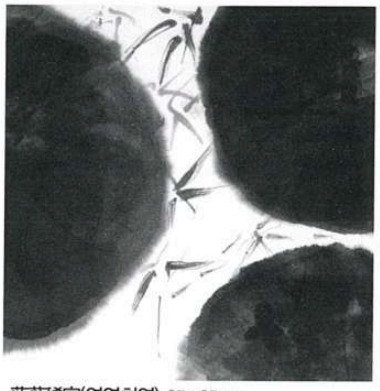
전시기간 : 2010년 8월 27일(금) ~ 9월 2일(목)
초대일시 : 2010년 8월 27일(금) PM 5:00
전시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층 A-8



미륵사지 29×20cm



산수유마을 46×46cm



蓮葉稀宴(연엽희연) 35×35cm



樂樂 35×35cm

수묵의 아름다움은 노(老)의 경지에 이르면서 더욱 진가가 있다.
수력과 여유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소통된다.
그래서 더욱 먹의 아름다움이 간절하다.
여타의 색채보다 질리지 않고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간결하면서 고졸한 멋이 있고,
단순하면서 변화무쌍한 먹색의 맛은 수묵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대서 자연의 경물과 마음 속 시심까지도 화폭 속에 머문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고 했다.

수묵의 작품을 보면서 망중한의 여유와 시상과 인생관의 맛을 가져본다면 소복으로 알겠다.



작가 한.숙.

고형숙 (전북회화회 회원)

작가 한숙의 작업실은 영화거리 골목 안에 위치해 있다. 작가 정하영과 작업실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그녀의 작업실 문 앞에는 언제나 자그마한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졸고 있다. 자그마한 것에 배려를 아끼지 않는 작가의 모습이 엿보인다. 작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그녀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난다. 그러한 그녀의 애정은 그녀의 작품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작가 한숙은 나에게 학교 선배이자 작업의 선배이다. 언제나 그녀의 작업실에 가면 원두커피를 갈아서 손수 내린 맛있는 커피를 맛 볼 수 있다. 커피를 담아내는 작고 어여쁜 컵은 그녀가 손으로 빚어 만든 작품이다.

그녀는 평면작업 뿐 아니라 설치작업 그리고 흙으로 예쁜 다기를 만들기도 한다. 평면작업을 하는 틈틈이 작업실 책상에서 자그마한 물레를 돌리며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녀는 오직 작품 안에서만 작업을 하는 작가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작업을 찾는 작가이다.

뜨거웠던 올 여름 작가 한숙은 5년 만에 '오늘 바다에 비가 내린다' 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작가가 개인전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종종 그녀의 작업실에 들렸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면서 작업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모습은 열정적이었다. 더운 날씨에 짧은 민소매를 입고 얼굴에 땀범벅이 되어 작업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작가의 모습은 참 예뻐 보였다.

작가 한숙은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작품 속에 꾸밈없이 표현했다.

사춘기 때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나는 FM라디오 듣기를 중단하고 온종일 뉴스와 날씨소식만 나오는 채널을 밤새 듣곤 했다. 흔들림 없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

맘에 폭풍이 몰아치던 날 다시 그 시절에 듣던 주파수를 찾기 시작했다. 밤새 머릿속이 윙윙거리도록 들어서 멍한 눈으로 작업실 구석에 앉는다. 감당할 수 없는 햇빛에 쫓겨 커피를 마신다. 정제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날씨를 얘기한다.

"오늘 먼 바다에는 비가 내립니다."

아! 바다에도 비가 내리는 구나.

난생 처음으로 바다에 비가 내리는 걸 사람처럼...

그 짧은 언어는 구원의 말은 깨달음의 언어가 되어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

"오늘 바다에 비가 내린다."







– 작가 노트. 한숙 –

작가의 팜플렛을 받아보고 작가의 그림과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던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팜플렛을 보고 나서 작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다. '언니 작품이랑 글이 마음을 아리게 하네요. 작품 너무 좋아요.'

작가 한숙은 이번 전시에서 캔버스를 이용한 평면작업과 원목 나무판에 작품을 만들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작품을 본 관람객들이 작가의 감성과 유사한 자신들의 감성을 발견해내어 호평을 받았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의 경로를 만들어낸 시간이 되어서 작가에게는 작품 활동에 힘을 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작업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들이 오면 언제나 맛있는 차를 나누고 작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꾸밈없는 작가 한숙의 감성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녀의 작품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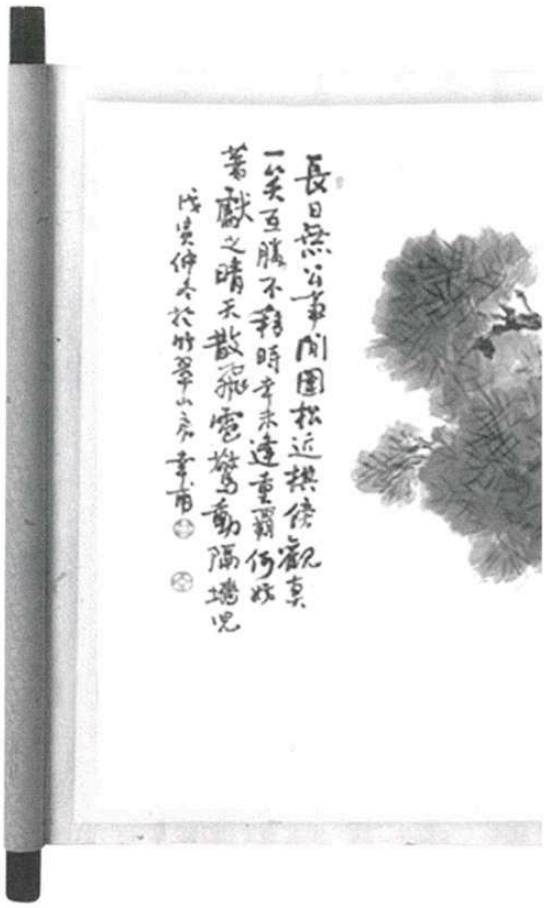
o 작가 ---------- **한 숙** ----------

· 1997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1998 1회 개인전 「유년의 기행」 – 전북예술회관, 전주
2004 2회 개인전 「그리움을 널어두다」 – 전북예술회관, 전주
2005 서툰연극배우로 살아가기」전북아트페어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0 4회 개인전 「오늘 바다에 비가 내린다」 – 교동아트센터, 전주
· 작업실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51-1번지 1층
· 전 화 : 010-2620-6784
· E-mail : namu-hansuk@hanmail.net

문인화의 즉흥성연구

박성수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일반 대학원)





즉흥과 물아일체

○ 즉흥성은 문인화에서 뿐 아니라 동양예술 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즉흥성은 바로 흥(興)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송 곽약허(郭若虛)의 『도화견문지(圖畵見聞誌)』에는

"인종황제는 하늘에서 받는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그의 성스러운 예술은 신묘하고 기이하였으니, 흥이 일어 붓을 잡으면, 일반 작품을 뛰어넘었다."[1]

라고 말하며 '흥(興)' 이 일어 대상을 화면에 구성하고 붓으로 그렸을 때 그 그림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동양의 예술가들은 즐겁고 좋아서 절로 일어나는 흥취는 예술창작의 주체나 놀이에 참여하는 성원을 현실이라는 공리적 가치를 떠나 미적상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즉 초월의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이로부터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 예술적 심미효과로 여겨졌다. 이 때 '흥' 은 즉흥(卽興) 적인 것으로 미리 준비함이 없이 우연히 다가오는 특성을

1) 곽약허(郭若虛), 『도화견문지(圖畵見聞誌)』, "仁宗皇帝, 天資穎悟, 聖?神奇, 遇興援毫,, 超逾庶品



지닌다. '흥'은 반성이나 잠재의식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체와 대상이 마주하는 순간 일어나는 찰나의 느낌만을 의미한다.

고문자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흥'의 최초의 의미는 고대 종교적 제사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모방행위를 의미한다. '흥'의 자형(字形)은 갑골문(甲骨文)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큰 쟁반, 혹은 시루를 여러 사람이 손으로 함께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 '흥'자의 출현은 실제로 들어 올리는 쟁반의 무게를 떠나 여러 사람이 꼭 함께 들어야하는 의식이 필요했고, 그 의식을 마치 실제 무거운 쟁반을 드는 것처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몰입의 과정을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종교 활동 중의 '흥'은 샤먼이 신과의 교감하는 순간의 정신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흥'에 대한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속성은 고대 서양의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사실 거의 모든 원시종교에서 나타난다. 이 과정 속에서 샤먼의 정신상태는 신비체험을 통하여 흥분과 심취 혹은 절대적인 힘과 합일하며, 현실을 초월하여 나타나므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로 말할 수 없고, 사물에 대한 구별능력을 상실하거나, 이러한 신비체험 속에서 주체는 극도의 흥분과 기쁨, 심지어 숭고함까지도

2) 김백균, '흥(興)', 그 우연성과 진정성에 대한 고찰- 예술창작의 조건과 심미적 효과로서의 '흥' - , 2007

느끼게 되는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3]

또 이러한 '흥'은 중국의 문예이론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최초의 문헌은 『논어(論語)』이며, 『논어』에서의 '흥'에 대한 논술은 대부분 『시(詩)』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시(詩)』는 '육예(六藝)'[4]를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로 중요한 교육수단이었다. 『시(詩)』는 노래로 부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춤도 출수 있었다.



'시'의 이러한 형태는 고대 종교제례의 기우제 같은 모방의식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대 제례의식이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종교적의식에서 분화되어 나와 종교적 색채가 탈색되어 감에 따라, 예술적 형식을 갖춘 '시'의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의 이러한 암송과 연주, 노래하고 춤추는 기능은 '흥'의 기원인 고대 종교적 제사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모방행위의 형상화에서 유추되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흥'의 원시적 함의는 '악'의 활동과정 속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특수한 체험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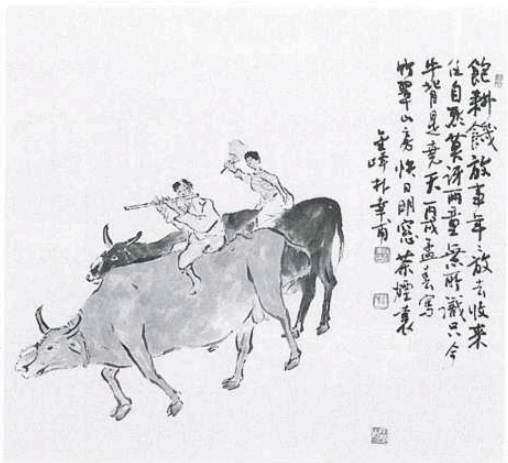
또 전한 무제시대의 학자이자 공자의 11대손인 공안국은 『논어』의 "시가이흥"의 '흥'을 "인비연류(引譬連類)", 즉 "비유를 끌어와서 비슷한 것과 연결한다."로 해석하였다. 공안국의 이해에 따르면 시의 효용에서 '흥'은 비유와 연상에 의한 완곡한 의사 전달이라는 말이 된다. 송대의 주자는 '흥'을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함으로써, 노래하고자 하는 감흥을 이끄는 말"로 해석한다. 그는 또 '흥'에 대하여 "흥이란 일으키는 것이다. 시는 성정에 근본을 두고 있어 사악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을 알 수 있다. 읊조리는 사이에 음조에 따라 반복하면, 쉽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배움을 시작하는 자는 그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흥기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 심미적인 체험과 정감의 발흥이라는 시학적 의미에서의 '흥'에 대한 이해는 위진(魏晉)시대에 이르러서야 출현하게 된다. 위진은 은둔의 시대이다.[6] 위진시대의 지식인들은 혼란한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 의식을 내면의 세계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며, 이는 곧 예술가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흥'은 전통적 시학의 미의 의미에서 벗어나, 시가창작과 감상의 특수한 심리상태나 미감의 특질, 시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위진 지식인들이 발견한 새로운 '흥'의 세계는 '정(情)'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정감이 일어나는 것을 '흥'이라고 하며, 이때 대상은 정감을 움직인다.(物觸以起情謂之興, 物動情者也)"[7] 는 언급처럼 '흥'을 '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위진시대의 문헌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위진인에 있어서 '정'은 논리적 사고와는 반대로 숨길 수 없으며, 가장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직관적인 느낌, 즉 '정'이 통하면 사물의 진실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진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진의 사대부들은 '정'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예술'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진시기에 이르러 시 역시 "시는 뜻을 말한다.(詩言志)"의 의미미에서 "시는 정(情言情)"라는 순수한 심비적인 의미로 전화되는 것이다.[8] 정감 혹은 느낌을 통하여 숨길 수 없는 진실 혹은 진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논리는 언제든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치장을 할 수 있고, 치장을 통해 본 모습을 감출 수 있다. 위진의 지식인들은 따라서 논리는 언제든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 생각하였다.

당대(唐代)의 가도(賈島)는 "'흥'이란 곧 '정(情)'이다. 밖으로 대상에 감응하며, 안으로는 '정'을 움직이는

3) 김백균, '흥(興)', 그 우연성과 진정성에 대한 고찰- 예술창작의 조건과 심미적 효과로서의 '흥' - , 2007
4) 육예(六藝)란 중국 주대(周代)에 국자감에서 행해지던 교육과목으로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한다.
5) 김백균, '흥(興)', 그 우연성과 진정성에 대한 고찰- 예술창작의 조건과 심미적 효과로서의 '흥' - , 2007 p. 77
6) 나종강(羅 宗 强),『玄學與魏晉士人心態』, 南開大學出版社, 2003, pp. 265~270
7) 호인(胡 寅), 『 斐 然 集 』, " 物觸以起情謂之興, 物動情者也 ."
8) 김백균, 「매체의 관점으로 본 "시서화일률론"-동양'예술'과 '예술작품' 관계에 대한 시론」, 미학48집, 한국미학회, 2006


것을 말한다. '정'은 조금도 막힘(지체됨)이 없으니, '흥'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사물을 접하여 생겨나는 막을 수 없는 정이 곧 '흥'인 것이다. 물론 이 때 '정'은 단지 느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흥'을 단지 정감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한정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흥'이란 어떠한 감정의 격발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끝없이 새롭게 이어지는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흥'은 언제나 생동함과 선명함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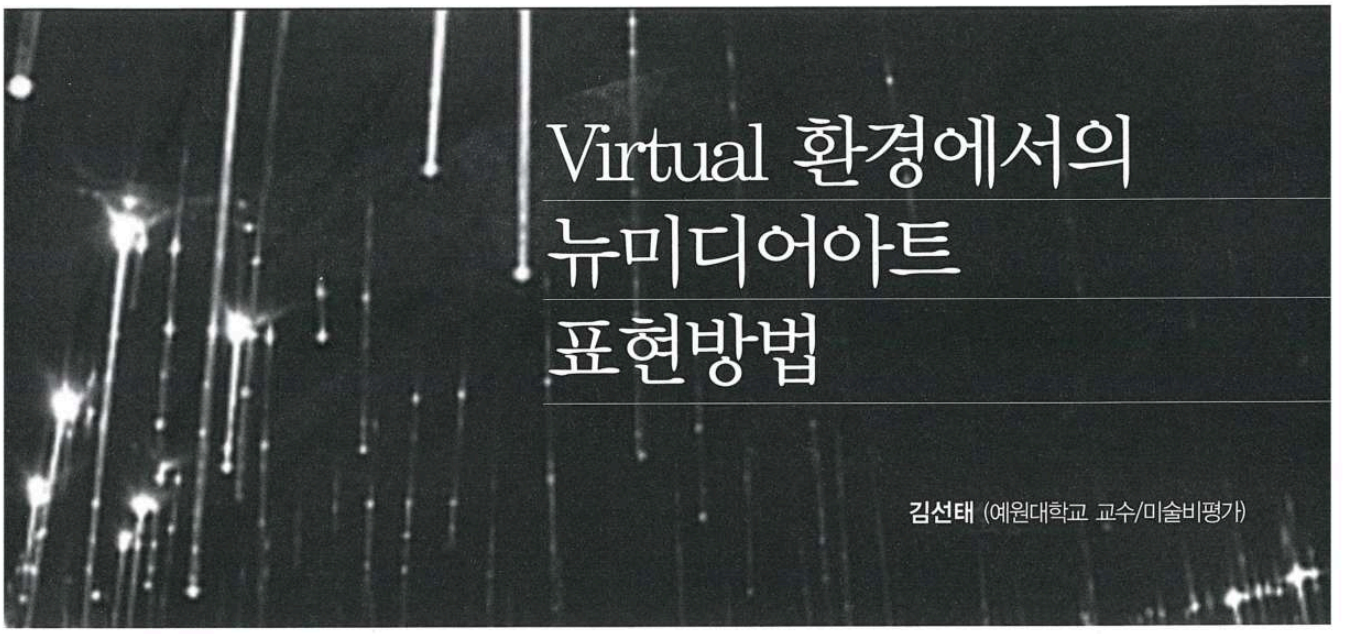
또 '흥'은 잠재의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깊은 내면의 반성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주체가 대상과 마주하는 순간의 접촉에 의해 나타난는 현상이다. 오직 주체와 대상이 마주하는 순간 일어나는 찰나의 느낌만이 '자연'의 '진정'을 보장한다. 논리적 여유가 끼어드는 순가, 의식은 가상(假像)을 만들어낸다고 여긴다.

시창작과 마찬가지로 고대 동양의 그림 창작 역시 '흥'의 일어남을 기초로 창작의 자유와 예술적 진실이 보장될 수 있다고 여겼다. 만약 '흥'이 없다면, 그림은 단지 변화가 없는 물체의 외형만 보여줄 수 있을 뿐, 그림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궁극의 세계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송대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소식(蘇軾)은 외사촌이었던 문동(文同)이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문여가(文與可)가 대나무를 그릴 때는 대나무만 보일뿐,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 몸은 이미 대나무와 함께 물화(物化)를 이루어 맑고 신선한 느낌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장자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 누가 이러한 신(神)이 빚은 듯한 솜씨를 알겠는가?"

이러한 묘사는 바로 '흥'이 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흥'이 인다는 것은 이미 고도의 정신집중에 의하여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의식이 사라진 상태, 즉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에서 말하는 '물화'의 상태와 비슷하다. 곧 '물화'의 상태에서 화가는 예술적 상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흥'이 잠재의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깊은 내면의 반성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 주체가 대상과 마주하는 순간의 접촉 곧 즉흥적인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때, '흥'이 만들어내는 진정성은 우연성에 기댄다. 즉 우연을 의도하는 과정은 객체에 의한 내적인 감흥이 일어난 상태에서 즉흥적 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Virtual 환경에서의 뉴미디어아트 표현방법

김선태 (예원대학교 교수/미술비평가)

인.터.페.이.스.영.상

1. 서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대중화되어있고 또한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다루기 쉽고 효율적인 것이 바로 키보드였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는 운영체계가 기존의 텍스트 환경에서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옮겨오면서 혁신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마우스다. 이 기계장치를 두드리고 휙휙 이동시키면서 클릭하는 행동과 그 기계는 의식하지 못하고 숨 쉬고 있는 공기의 존재만큼이나 당연해졌다.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 환경, 즉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형태다.

그 이후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감각적으로 이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고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모습들이 속속 사람들에게 보여 지게 된다. 지금 더 이상 단순한 실험이 아닌 생활 기기로서 많은 것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적인 화면을 건드리는 터치스크린이다. 은행 입출금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입력장치는 apple사의 ipod touch라는 기기에서 Multi-touch라는 모습으로 더욱 감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다. 모니터를 앞뒤로 꺾으며 직접 화면으로 입력하는 타블렛 노트북 역시 이제 넘볼 수 있는 가격대로 상품화되어 있다.

Nintendo의 Wii라는 게임 콘솔은 또 하나의 혁신이었다. 네러티브를 가지고 조이패드 혹은 조이스틱을 가지고 즐기는 기존 게임의 형태를 완전히 바꿨다. 기울임이나 움직임의 변화에 반응하는 자이로 모션 센서를 탑재한 Wii의 독특한 컨트롤러는 '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내 놓으며 PlayStation 시리즈로 견고하게 그 위치를 쌓은 소니왕국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이것 이외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전신장애자)들을 위한 입력기기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공의 움직임을 읽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기기라든지, Ars Electronica에서 그 모습을 보였던 뇌파를 읽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던지 하는 것들이다. 새로운 입력장치가 나올 때 그것을 현실화, 대중화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그 장치의 크기와 구성일 것이다. 너무 크거나 너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면 가격도 물론이거니와 설치에서의 번거로움 등등이 따라와 생활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2.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2개의 구성 요소 또는 2개의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경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경계에서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로는 신호의 전압, 주파수, 타이밍 등의 전기적 특성, 공통의 물리적 상호 접속 특성, 명령과 응답 등의 논리적 특성 등이 있으며 정상적인 상호 접속을 위해서는 이들 조건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처리와 컴퓨터 통신에서는 인간과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 장치 간에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① 문자 방식 인터페이스, ② 메뉴 방식 인터페이스, ③ 도형 인터페이스의 3종류로 분류 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외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는 컴퓨터 내부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운영 체제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로는 컴퓨터 내부에서 장치나 구성 요소 간을 상호 접속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주변 장치간의 접속과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플러그, 커넥터, 카드 등이 있다. 업체별 국가별로 개발한 다른 시스템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한 것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표준화 기관이나 업계 단체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적으로는 ITU나 ISO 등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RS 232는 미국의 전자 공업 단체인 EIA와 표준화 기관인 ANSI에서 작성한 컴퓨터와 주변 장치간 또는 DTE와 DCE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고, V.24는 RS 232와 호환성이 있는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ITU T에서 권고하는 국제 표준이다. ISO에서 표준화한 OSI 참조 모델에서는 다른 시스템간의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서 요소간의 인터페이스 지침이 정의되어 있다.

1) 그래픽 라이브러리 Open 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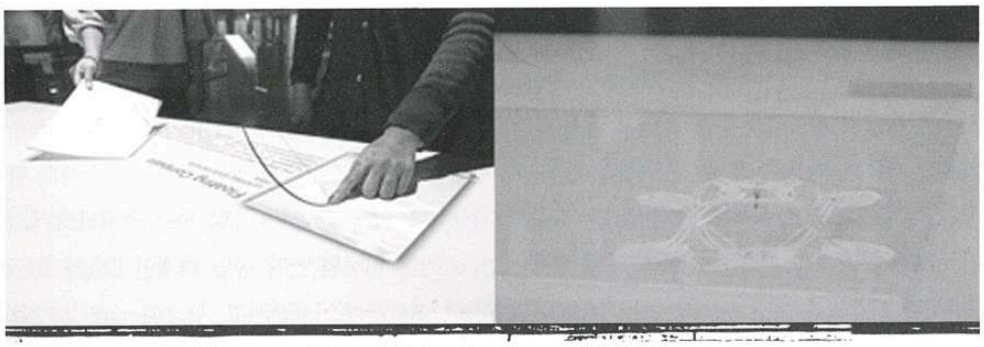
Open GL이란 그래픽스 하드웨어에 대한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서 3D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으로 유명한 SGI사가 만든 공개 3D 라이브러리로 DirectX내의 3D API set이다. 대화형 3차원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오브젝트 연산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250여 개의 커맨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하드웨어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 되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윈도우 관련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추천서는 애초부터 Open GL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신 윈도우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3D영상을 사용자가 인터렉티브하게 하기 위해 Visual C++등에 gult를 셋팅 하여 사용한다. Open GL을 이용하여 마야에서 모델링 된 값을 obj 파일로 저장한 후 모델링, 벌택스와 노말 정보를 받아들여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3. 인터페이스 영상

다음 작가와 작품 인터페이스 작품으로 현대 미디어 아트의 차세대 작가들이다.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혹은 작품을 구성하는 미디어와 관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일상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와는 다른 상호작용들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들을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 즉, 주변 요소들을 제거한 인터페이스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먼저 〈on the fly〉(도1)는 리딩엣지디자인(LEADING EDGE DESIGN-L.E.D)[1]의 전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손에 들고 있는 전시 안내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시스템이 안내문을 인식하여 그 자체가 전시장을 안내하는 인터페이스가 된다. 안내문에는 16개의 구멍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가리면 구멍으로부터 작품이 있는 방향으로 선이 뻗어 나오면서, 작품의 위치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같은 공간에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구멍으로부터 나온 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면, 선택한 작품 옆에 세워져 있는 설명 판이 환하게 빛난다. 전시안내문 한 장과 손가락만으로 관객은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안내문의 어느 면을 위로 놓느냐에 따라 같은 정보를 영어로 혹은 일어로 볼 수 있다. L.E.D는 소금쟁이 모양의 종이에 자성이 있는 바늘을 고정시켜 물에 띄워 놓은 떠다니는 나침반(Floating Compass)라는 작품은 떠다니는 나침반의 움직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자기장이 실체를 갖게 된다.



1. LEADING EDGE DESIGN, on the fly(좌, 2008), Floating Compass(우,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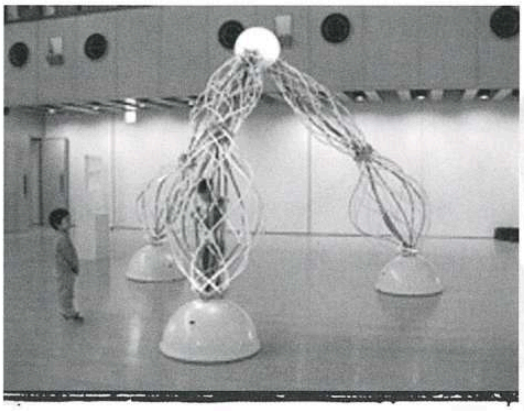
로즈가르데(Daan Roosegaarde)[2]의 〈리퀴드 스페이스 6.0Liquid Space 6.0〉(도2)은 인터랙티브한 설치 작품으로, 근섬유 같은 튜브들로 만들어진 오브제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색, 소리, 형태가 변화하는 작품이다. 건축가이기도 한 작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건축, 사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디지털 기술로 인해 건축과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유동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작품을 통해 상호작용성이 도입되었을 때 기존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가능한 새로운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

앨리스온의 칼럼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크리스 서그류(Chris Sugrue)[3]의 미묘한 〈경계Delicate Boundaries〉(도3)는 벌레들이 살고 있는 스크린에 관객이 손을 대면, 스크린 속의 벌레들이 손을 따라 꼬물꼬물 기어 나오는 작품이다. 대부분의 스크린 기반 인터랙티브 작품들에서 관객이 스크린 안에 실루엣으로 반영되거나, 스크린 앞에서의 특정한 행동들이 작품에 반영되었던 것에 비해, 스크린 상의 벌레가 손을 따라 물리적인 세계로 한발 한발 나오는 모습은 관객이 스크린에 참여

1) L.E.D는 1994년 세워진 일본의 디자인 회사로 이름처럼 첨단의 디자인을 선 보여왔다. 이세이 미야케의 유명한 OVO시계로부터 도쿄 지하철의 수이카(Suica) 시스템(우리나라의 교통카드 시스템과 같다)과 치바공업대학 미래로봇기술 연구센터(fuRo)가 개발한 Halluc II 로봇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L.E.D.의 디자인에는 경계가 없다. L.E.D.를 이끌고 있는 야마나카 순지는 미래의 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디자이너를 실천하고 있다.

2) 로즈가르데는 건축가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건축과 사람, 미디어의 관계성을 탐구하여 기술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객과 공공 공간의 교차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V2(네덜란드), 마이크로웨이브(홍콩) 등 국제적인 아트 페스티벌에 작품을 선보였고, 현재 아트랩 '스튜디오 로즈가르데Studio Roosegaarde'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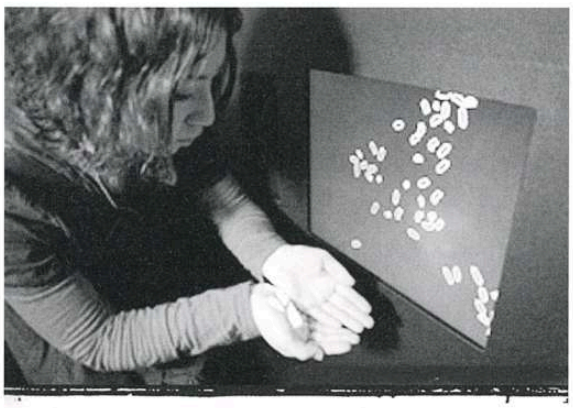
3) 크리스 서그류는 작가이자 프로그래머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와 함께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라이브 퍼포먼스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퓨처 랩future lab과 뉴욕 아이빔Eyebeam의 연구원을 지내고 현재는 'Casa de Velazquez' 아티스트인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에 소속되어 마드리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2. Daan Roosegaarde, Liquid Space 6.0, 2008

해야 했던 단계에서 나아가 스크린의 오브제들이 아날로그 세계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치카(SHINCHIKA)[4]의 작품, 〈H2Orz와 JSCO〉(도4)도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실사 영상과 2D, 3D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물들을 물리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작품 주변에 설치해놓음으로써 작품을 스크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오브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철과 같은 일상 속의 사물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과장되고 왜곡되어 새로운 모습의 사물로 태어나고, 여기에 물리적인 형태를 부여하여 전시장이라는 현실 속의 공간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가상과 현실이라는 두 세계의 경계에 놓여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한다.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험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해 작가들은 '디지털 오브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이후의 감성,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오브제들이 오버랩되는 순간의 감성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3. Chris Sugrue, Delicate Boundarie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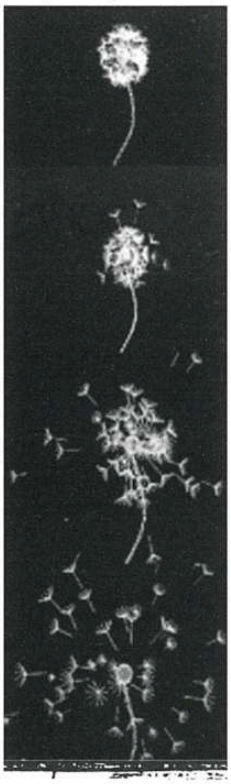
4. Shinchika, H2Orz, 2008

4) YCAM Post#13에서도 소개했던 신치카는 그래픽, 영상, 작사, 작곡 등을 모두 제작하는 작가 그룹이다. 히사카도 츠요시(久門剛史), 후지노 요스케(藤野洋右), 후지키 린시로(藤木倫史?), 요시카와 신페이(吉川辰平), 카츠무라 토키(勝村富貴)의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멤버의 기억이나 사는 곳 등 일상 속에서 찾게 되는 이미지들의 단편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관객이 예술작품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예술작품은 관람객이나 향유자가 예술작품을 탐닉하고 감상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해왔다. 반면에 오늘날 쌍방향이라 부르는 성질은 사람과 기계가 한 몸이 돼서 관객이 직접 작품을 작동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이제 작품이나 장치가 창조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품이 관객에게 제시될 때마다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사전에 작품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각본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작품의 향유자가 작품의 메커니즘을 발동시키고 제어하고 따라가고 반응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컴퓨터에 센서(음향이나 촉각, 전신감각적 자극 따위를 감지한다)를 부착함으로써 실시간[5]으로 관객의 요구와 반응에 부응할 수 있다. 몇몇 쌍방향 설치 작품은 순전히 관객의 참여로 기능하도록 되어있다.[6]


5. 나는 씨를 흩뿌린다

마리 엘렌 트라뷔(프: Marie-Helene Tramus)와 미셸 브레(Michel Bret)는 관람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작업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이론가 에드몽 큐쇼(Edmond Couchot)의 협력을 얻은 〈나는 씨를 흩뿌린다 Je seme a tout vent〉(도5)는, 스크린 위에 관람객이 실제로 입김을 불면 모여 있던 민들레 꽃씨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의 물리적인 체험이 가상의 현실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들은 자기네 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예술가뿐 아니라 관객이 정확히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중간단계에 함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테크놀로지가 때로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작품 보급의 수단을 넘어서 작품 창작의 일차적인 재료로 쓰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요크(Bjork)의 볼타(Volta) 투어에 함께하면서 널리 알려진 〈리액테이블 혹은 리액터블 reacTable〉(도6)은 세르지 호르다(Sergi Jorda), 마르틴 칼텐브룬너(Martin Kaltenbrunner), 귄터 가이거(Gunter Geiger), 마르코스 알론소(Marcos Alonso)[7]의 공동작업으로 제작되었다. 〈리액테이블〉은 신디사이저의 개념을 반투명한 원형 테이블탑 위에 적용한 것으로, 음원이나 이펙트의 역할을 하는 모듈들을 올려놓고 음악을 연주하는 작품이다. 음원 모듈들은 고유의 소리를 가지며, 원 중심으로부터의 위치, 주위의 다른 음원이나 이펙트에 따라 변화하고, 이펙트 모듈들은 음원으로부터의 소리를 변형시킨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함께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시장을 찾는 모든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관객들은 음악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누가 어떤 모듈로 음악을 만들더라도 제법 그럴

5) 컴퓨터나 장치가 지정된 지침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행하는 작업의 시간을 일컫는다. 따라서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실행되기까지의 시간은 최소로 축약돼 있다. 이 개념은 모든 행위예술과, 또한 예술가가 관객의 참여를 기대하는 작업을 벌일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컴퓨터나 장치가 반응하는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바로'실행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개념은 '녹화'와 반대를 이룬다)

6) 플로랑스 드 메르디외, 정재곤 역, 예술과 뉴테크놀로지, 열화당, 2005,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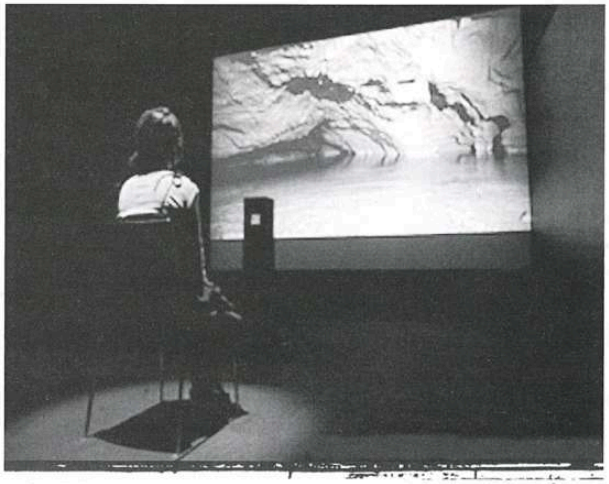
7) 바르셀로나에 있는 폼페우 파브라 대학의 오디오비주얼 연구소 내에 있는 뮤직 테크놀로지 그룹의 구성원 세르지 호르다, 마르틴 칼텐브룬너, 귄터 가이거, 마르코스 알론소는 텐저블 악기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음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음악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골든 니카를 수상하기도 했다.

싸한 음악이 나온다. 여기에서 리액테이블이 이러한 사운드 디바이스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다른 시도들과 구별되지 않나 싶다.

〈피사계심도Depth of the Field - Processing Photography Blink Series〉(도7)에서 타카오 순스케(高尾俊介)[8]는 눈깜박임으로 눈앞의 사진이 전환되는 시스템을 보여준다. 시야를 모두 채우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석회동굴의 사진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앉으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작가는 눈과 카메라 셔터의 유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고안했다고 한다. 보통 눈으로 어떤 상을 볼 때는 눈을 깜박이기 전과 후의 연속성을 전제로 지각하게 되는데, 눈을 깜박일 때마다 불연속적인 새로운 장면들이 나타나면서 지각에 있어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옆에는 같은 원리로 사진을 넘겨볼 수 있는 설치 작품이 있는 데, 영상의 크기가 컴퓨터 스크린 정도로 작다. 이미지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시야를 채우는 스크린에서의 압도적인 느낌은 줄어들지만, 눈을 깜박이면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장면들은 생소하다.



6. Sergi Jorda, Martin Kaltenbrunner, Gunter Geiger, Marcos Alonso, reacTable, 2005-



7. 高尾俊介, Depth of the Field - Processing Photography Blink Series, 2008

쿠보타 아키히로(久保田晃弘)[9]의 〈순수ϕ-추상회화적 인터페이스純粋ϕ- Abstract Painterly Interface〉(도8)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시각을 통해 수용한 정보를 기억과 조합하여 정리, 기억하는 '지각시스템(vision for perception)'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신체의 움직임과 행위를 제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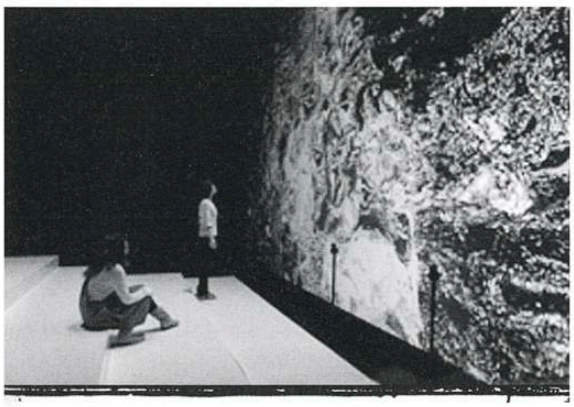
8) 타카오 순스케는 사진, 디지털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생성, 편집, 감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찰과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촬영하고 편집한 사진영상작품 크롤(Crawl)시리즈, 블로그를 위한 소프트웨어 caplickr이 그런 작품들 중 하나이다. 현재는 감상하는 방법을 포함한 디지털 사진 시리즈 Processing Photography의 새로운 시리즈와 노트북에서 멀티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상하고 있다.

9) 쿠보타 아키히로는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소프트웨어 아티스트로, 컴퓨터와 실제 악기 등으로 만들어지는 음향영상 작품이나 공연을 제작하고 있고, 디지털, 알고리즘, 네트워크, 즉흥,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고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라이브 코딩과 자연어 컴퓨팅을 접목시킨 계산에 의해 가능해지는 인터랙션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최근, 인간의 지각과 신체를 배제한 인포메이션 아트(이산예술론)와 세포를 소재로 한 바이오 조형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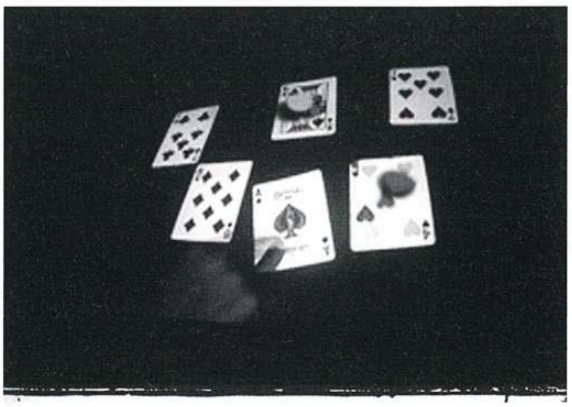
'시각운동시스템(vision for action)'이라고 한다. 이 작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후자로, 추상적인 시각 오브젝트가 유도하는 신체의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각 오브젝트 사이에 반복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이미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의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인해 변화하는 이미지인 것이다.

〈카드 플레이Card Play〉(도9)는 재커리 리버만(Zachary Lieberman) 특유의 즐거움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테오도어 왓슨(Theodore Watson)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52장의 트럼프 카드와 카드테이블 그리고 카드테이블의 모습과 가상의 오브제들이 만나게 되는 스크린으로 구성된다. 각 트럼프 카드에는 음이나 소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카드 테이블에 놓으면 스크린에서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카드들이 변하기도 하고, 빨간 고깔모자가 나타나 카드들을 징검다리 삼아 뛰어다니면서 음악을 만들어낸다. 예술 작품과 동시에 새로운 놀이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재커리 리버만의 성향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미디어 아티스트, 프로그래머이면서 전시나 교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재커리 리버만은 놀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테오도어 왓슨은 작가이자 디자이너이다. 호기심과 두근거리는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하여 관객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예술적인 표현을 위한 새로운 툴, 실험적인 암악 시스템, 신체를 활용한 몰입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환경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8. 保田晃弘, 純粋の- Abstract Painterly Interface, 2008



9. Zachary Lieberman, Theodore Watson, Card Play, 2008

4. 몸과 정체성(Identity)

1) 스콧 스니베(Scott Snibbe)

예로부터 아트의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간의 신체와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슈는 디지털 아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상공간 혹은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몸과 정체성은 디지털 세계에서 지배적인 주제로, 가상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된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개인적이고 물리적 대상이지만 또한 점점 투명하게 되고 있다. 정확한 감시와 신원 확인은 개인적인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 같다. 곳곳에 편재해 있는 감시 카메라는 우리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전자 지문,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홍채 스캔과 같은 바이오매트릭스 기술들이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시장에 편입된다. 우리의 가상적 존재는 일체화된 개인의 몸과 반대로 제시된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는 스콧 스니베의 쌍방향 프로젝트 〈경계의 함수: Boundary Functions〉[10](도10)의 핵심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개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시각화한다.

너무 단순한 인터페이스 (우리 눈에는 정사각형의 마룻바닥밖에 보이지 않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올라서면,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올라서자마자 두 명 사이에는 형광 파란색의 경계선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추가될수록 각 각의 공간을 줄어들며, 경계선은 아주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다.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각 개인이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자아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경계의 함수〉는 자연과 수학적 문제를 이해하기 우해 적용된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적 공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한계를 뚜렷이 한다. 견고한 도표 형식인 스니베의 작품은 우리의 이탈된 정보를 줌으로써 동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과정을 시각화하는 디지털 매체의 역량을 다루고 있다.


10. 경계의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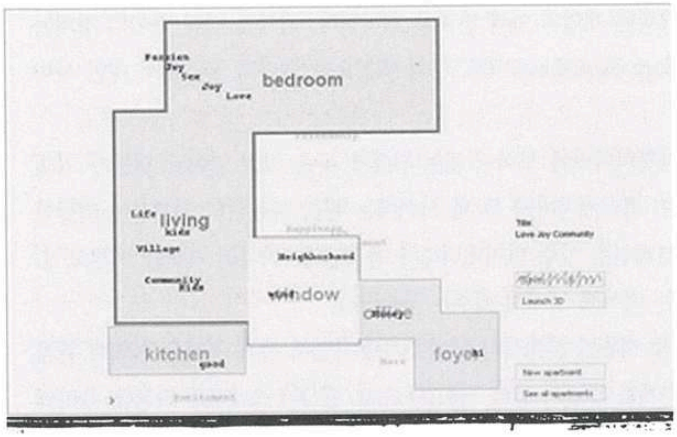
5. 데이터베이스

혹자는 우리가 정보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정보가 단지 수집되고 보관만 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가치 없는 데이터에 불과할 것이다.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필터링 되거나, 매핑이라는 방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옷을 입어야 한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세상에 산재한 데이터를 작품에 응용하기 시작했는데, 과학, 통계, 건축, 디자인, 디지털 아트 등 광범위하게 데이터베이스 비주얼 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불리어 지고 있다. 특히 정보구조는 메모리의 구조에 비유된다. '정보 공간'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폭넓게 디지털 세계나 인터넷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관, 빌딩 혹은 도시와 같은 모든 정보의 '용기'는 그것의 특성이 가상의 동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고유의 데이터 공간과 정보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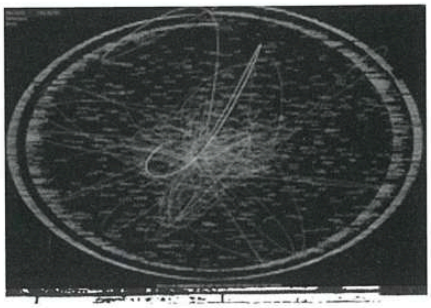
1) 마틴 워텐버그(Martin Wattenberg-1970)

마틴 워텐버그의 〈아파트〉(도11)는 '정보의 구조' 가 '아파트의 구조'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텅 빈 스크린에 관객들은 그들이 선택한 텍스트와 단어를 입력하면, 입력된 것은 모니터 위에 청사진과 비슷한 2차원 평면도의 방 그림이 나타난다. 각 아파트의 구조는 관객들의 단어들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재조직된다. 가령 화면 하단에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하면, 이는 단어 뜻에 가장 관련이 있는 아파트 공간으로 이동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Wind 라고 입력하면, 이 단어는 Window 공간으로 이동한다. 단어와 공간은 사용자가 사용한 단어에 따라 기호학적으로 분류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모두 저장되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룬다. 마틴 워텐버그는 이 외에도 주식 정보, Rhizome.org 데이터베이스, 사운드 등을 이용한 작업들을 많이 하였다.

10) 스콧 스니베, 〈경계의 함수〉, 1998. 이 지역 분할 형식은 보로노이 도표로 알려진 것으로 고고학과 인류학에서는 인류의 정착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케팅에서는 체인점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 컴퓨터 과학에서는 삼각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11. 아파트


12. 텍스트 아크

2) 브래드퍼드 팔레이(W. Bradford Paley)

데이터베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정수가 아닌가 싶은 브래드퍼드 팔레이의 〈텍스트 아크〉(도12)는 2002년, 전세계 컴퓨터 그래픽 축제인 시그라프에 초대되었다. 사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컨텐츠의 패턴을 드러낼 수 있다. 〈텍스트 아크〉는 또한 오프셋 프린트와 같은 물리적 구현을 가지고 있다. 자바로 제작되었으며, 이상한 나라 엘리스, 햄릿 등의 작품을 한 화면에서 환상적인 그래픽 효과와 더불어 읽을 수 있다. 위 그림에서 테두리의 두 줄로 된 흰색 원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전문이다. 사용자가 읽기 버튼을 누르면서부터 테두리에 있는 글을 읽기 시작하고, 중앙에 흩어져 있는 단어들은 빈도수에 따라 위치가 정해진다. 읽는 순서에 따라 베지어 곡선으로 따라 읽어가며, 단어 간의 연결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시각화 프로젝트에 내재해 있는 개념과 구조는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로서, 우리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 그리기(mapping)의 주된 요소이다.

6. 인터페이스 아트의 전망

뉴미디어 아트의 열린 가능성을 위하여 디지털 시대에 미술에 대한 개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정 행해질 것인가. 만일 그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무엇보다도 패러다임의 전환은 삶과 문화의 차원을 꿰뚫는 미술 개념에 힘입어 가능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단순히 이전의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이 대체하리라는 기술주의적 믿음이나,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리라는 식의 매체 결정주의적 사고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술의 출현과 발전이 우리들 삶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역사와 미술의 역사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을 '시각문화'와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을 수용하는 미술 개념의 설정에 두고자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술의 역사는 이미지의 역사였고, 그 양상은 매체의 기술적 발달로 인해 사진 이미지에서 모든 동영상 이미지, 그리고 시청각 문화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매체는 곧바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기능하여, 우리의 문화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새로운 감수성과 가치관의 형성, 미적 판단의 기준과 인식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시각문화와 시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이 결코 새로울 것은 없다. 단지 모더니즘 시기에 미술이 미술 내적인 문제로 집중되고 제한되면서 이 같은 측면이 약화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란 문자의 발명 이전에 그 자체로 언어적 성격을 지녔

으며, 실제로 언어적 기능을 지닌 것이었다. 문자사용 후 점차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분리되면서, 특히 미술 영역에서 이미지는 시각적인 문제로 완전히 분리되고 좁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상시대를 통해 이미지의 문제는 다시 텍스트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 것이다. 엄청난 양의 이야기와 메타언어를 만들어내는 의미생성체로서 생존 변모하는 시각문화 현실 앞에 미술의 문제가 놓여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미지 문화의 의미구조와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해체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에서 주어질 것이다.

미디어 매체가 변혁의 징후와 잠재력을 지니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매체가 편재된 오늘날의 시각문화 속에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사진과 영화와 비디오 등 전통매체의 기능을 확장하고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미지 프로세싱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상호작용적 작동에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는 기존하는 여러 미술 흐름들을 하나로 접속시키고 그 속도를 증폭시켜 다 방향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뒤샹의 레디메이드' 이후 대량 생산된 기성품을 차용하는 방식이 현대미술에서 개념적 혁명을 주도했다면, 이러한 양상은 미술에서 나타날 질적 혁명의 또 다른 징후인지도 모른다. 보기에 따라서는 '레디메이드'가 기계 테크놀로지의 산물이고 컴퓨터의 '알고리즘 절차'가 전자 테크놀로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보사회의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유력한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부호체계는 이진법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만을 강요할 뿐 개념이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또 수학적으로 정식화된 절차의 일방성은 사전에 예정된 결과만을 산출함으로써 의미의 희박화와 미적 체험의 단편화를 초래할 위험을 지닌다. 결국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의 생산과 재생산은 우연성과 임의성의 개입을 극대화하는 측면과 대수학적 언어의 연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획일성과 표준화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가령, 동영상의 속도감이나 컴퓨터 그래픽의 현란함은, 역설적으로 패턴화된 변화의 압도적 효과 때문에 작품의 개념성이나 의미내용이 개입될 여지를 더욱 줄인다. 그것은 '현란한 변화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정체'이며, 반복되는 정체란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퇴행 쪽에 가깝다.

실제로 컴퓨터를 직접 매체로 도입한 미술은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실험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평가가 유보되거나 절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급변하여 '비디오아트'처럼 제도권의 중심부에 극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것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통해 무차별로 양산되는 '프랙탈 이미지'들이 순수미술의 문맥에서 '테크노-키치'라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단지 효과만을 의도하여 하이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결과 작품 자체의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거대자본에 밀착하여 전시가 이벤트화하거나 공학적 프로젝트의 부대효과로 전시가 추진됨으로써 작업의 진정성이나 작품의 개념성을 확보할 겨를이 미처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어,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가상의 예술가이며, 경험하고 느껴 보지 못했던 가상의 세계라는 개념,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통한 느낌을 예술로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예술가들에게 준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의미의 인터랙티브 아트 혹은 넓은 의미의 컴퓨터 아트라는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미디어 아트에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창작은 사용하는 재료를 충분히 숙지했을 때만 나올 수 있고, 이것이 표현욕이 되었든 복잡한 하드웨어가 되었든 모두가 창작활동의 재료로서 익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이 둘은 기존 교육 시스템이나 인식에서는 서로 다른 훈련(discipline)으로 인식되어 모두를 공부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을 모두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둘을 모두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표현 폭의 확장, 새로운 체험의 제시 등의 시너지 효과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매력적인 동기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부단한 노력, 마음자세, 더 나아가 이 둘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표현의 확장이라는 꿈을 지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선수 과제로 남았다. 새로운 미학이 대두하고 있다. 예술작품은 점점 더 인터페이스 속에, 말하자면 예술작품과 관찰자가 만나는 공간을 분절화 하는 것 속에, 심지어 공예품으로서 예술작품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관찰자들 사이의 소통만이 남는 그런 공간을 조직하는 것 속에서 구현된다.

인터페이스의 성공이 그저 결합 기제의 효율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반면, 한 인터페이스의 예술적 질은 그 결합은 어느 정도로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하이퍼미디어, 원격현전 및 네트워킹의 다듬어지지 않은 창조적 양상들에 모아지는 관심은 그것들이 구현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내포적 변동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일은 물론 그저 이 기술들의 은유적, 일화적 가치들을 분절하는 데에 그치는 열광이다. 이 상황 속에서 전통적 예술 실천의 시적, 개념적 엄격함이 미디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모범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예술과 산업의 상이한 역사에서 비롯되는 기술적 차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예술적 수용 차원을 고려해 볼 때, 현대의 예술가, 특히 멀티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작가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로 대표되는 예술가의 이미지발명가 수준인 벤처리스트(venturist)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어 낼 때 그들의 의식과 예술적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기도 하다.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솔루션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의식의 방향으로 예술적 생산물과 작품의 의미를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미디어아트의 대중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창조성의 발견에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매체 발전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매체를 통한 예술적 상상력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미디어의 사용에서 매체보다는 매체가 표현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 미학적 인식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기술적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한 예술작품이 어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뉴미디어 아트의 미학적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 두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인간적 실존 방식은 상호 협조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둘 사이의 경쟁적 구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개인들만이 그들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개척해 나가고 또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문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예술작품의 창조에서 수용될 수 있을 때 뉴미디어 아트는 예술의 확장 범위로써, 진정한 21세기 예술형식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형식의 아우라가 존재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매체나 기술개발은 미술계 전반에 걸쳐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 아트' 또는 '넷아트'로 불리는 디지털 아트다. 시간이 흐르면 조만간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미술과 그렇지 않은 미술로 나뉠 것이고 결국에는 디지털 아트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마치 유화가 템페라 화를 몰아낸 것처럼. 그리고 디지털 매체는 미술 전반에 걸쳐 유화물감의 발명이 가져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커다랗고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인간이 목소리로 명령을 하거나, 만지거나, 눈의 움직임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기계들이 작품과 결합되는 피지컬 컴퓨팅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피지컬 컴퓨팅이란, 앞서 언급한 예처럼 컴퓨터의 일정 프로세서 혹은 일부 장치를 인간의 감각기관이 대신하는 것으로, 인간이 컴퓨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컴퓨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다.

아마도 아티스트와 과학자들의 마지막 도전은 인간의 두뇌와 기계, 뇌와 뇌 사이의 인터렉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연구와 작품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신경과학, 나노기술 또한 앞으로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90년대부터 미디어아트에는 이른바 '후기생물학적 세계'가 전개된다. 유전학, DNA, 자기증식 오토마톤, 신경망회로, 사이버네틱스, 형태발생의 수리, 발생분화의 알고리즘, 카오스이론, 유전적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와 같은 생물/생태학적 이론들과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융합되면서 인공생명(Artificial Life)과 같은 연구분야를 낳게 됐다. 여기에 생명공학, 나노테크놀러지(Nano-Technology)가 합세하면서 생명과 물질계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고 예술과 철학, 우주관, 심지어는 종교를 위한 새로운 사색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추사 예서(隸書)의 기괴(奇怪)와 고졸(古拙)의 조형성

김정희 (전북대 겸임교수 / 홍익대 미술학 박사)

김정희(金正喜)[1]가 활동하던 19세기 전반기의 조선 사상계는 여러 사조가 혼재하던 시기였다.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서학과 고증학을 수용한 실학의 이념이 여러 방면에서 확산되었다.

추사는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하며 다양한 방면의 이론을 섭취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성현의 도(道)란 공소한 이론을 숭상하는데 있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전통적인 유가의 "옛것을 잘 살펴서 새로운 것을 안다"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論語』「爲政第二」는 방법론을 계승하여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켰다.

서화예술에는 주체적인 생명의 정보가 필묵에 스며들어 있으며, 인격 · 성정 · 감각 · 정서가 배어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계절감과 습도 같은 객관적인 환경요소까지 모두 필묵에 스며들 수 있다. 이렇게 서화예술은 필묵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인 요소, 즉 필묵의 정신적 기세와 생명력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화속의 필묵에 '기(氣)'가 형성되면서 선의 굵기, 역량, 기세, 구도 등이 함께 자리 잡게 된다. 필묵의 윤기 나는 짙은 먹의 기운에서 우리는 작가의 왕성한 기력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추사의 인생 역정과 생명력을 담고 있는 필묵의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본다면 추사의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나아가 철학적 도까지도 겸비된 그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의 붓이 지난 자리는 공허하지도 가득 차지도 않다. 그 대신에 기운과 여운이 아련하게 남아 강직함과 유연함, 건조함과 습윤함, 농염함과 담담함, 신속함과 느긋함,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감성의 발산, 천변만화(千變萬化)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생성되는 창조적 활동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 오묘하고 신비한 필묵의 매력은 이미 '도'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말 할 수 있다.[1] 우리는 이러한 필묵이 추사의 서화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로써 그의 표현 속에서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필 필요가 있다.

---

1) 김정희(金正喜 : 1786(정조10)~1856(철종7))는 조선 말기의 문신 · 학자 · 서화가. 자(字)는 원춘(元春), 호(號)는 추사(秋史) · 완당(阮堂) · 예당(禮堂) · 노과(老果) · 시암(詩庵) 등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24세 때 부친 김노경(金魯敬)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청(淸) 나라의 거유(巨儒) 옹방강(翁方綱) · 완원(阮元) 등으로부터 지우(知遇)를 입었다. 1840(헌종6)년에 윤상도(尹尙度)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9년간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2) 딩시위안 지음, 이화진 옮김,『예술풍수』, 도서출판 일빛, 2010, 138-139쪽.

추사는 제주도에서 유배하던 때에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에까지 내려오는 한국의 서법을 연구하여 만든 서체가 추사체이다. 이 추사체는 한국의 필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비문과 중국의 비문의 필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추사는 '모든 서체의 종합' 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예서는 더 출중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에 그의 예서체에 나타난 怪(괴)와 고졸의 경지는 한국적 조형의식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미의식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의 예술창작의 극히 일부분의 조형관을 피력하였지만 그가 주장하는 가슴속의 청고하고 고아한 뜻인 문자향(文字香) · 서권기(書卷氣)를 갖춘 조형의식을 통해 품격 높은 조선인의 인격미이자 사대부의 시 · 서 · 화 일치의 생활의 멋이 담긴 한국적 조형관을 담고 있는 대표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추사체에 나타난 奇怪와 氣魄

추사는 기괴한 조형의 대명사인 추사체를 만든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있다. 이것은 다분히 추사를 단편적으로 이해한 결과지만 추사체가 추사의 전부는 아니다. 추사는 조선 말기의 고증학자이자 금석학자[3]이며, 또한 서도가로서 그의 위치를 굳힌 사람이다. 그의 '기(奇), 괴(怪)' 에 관한 이론과 그 실기에 대한 견해를 보자.

> 일반적으로 예서의 법은 졸(拙)할지언정 기(奇)함이 없어야 하고, 고(古)하면서도 괴(怪)하지는 아니해야 한다. 비록 척백(戚伯), 양두(羊竇)의 험조(險阻)함에도 기(奇)하거나 괴(怪)하지 아니해야 하니, 기(奇)와 괴(怪) 두 가지 의미는 유독 서법에만 아니라, 일체에서 경계하는 것이 좋다.[4]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추사는 이론상 기(奇)와 괴(怪)를 수용하지 않았다. 회화의 이론 발전사상에서 사혁(謝赫)의 '육법(六法)', 형호(荊浩)의 '육요(六要)', 황휴복(黃休復)의 '사격(四格)', 한졸(韓拙)의 '팔격(八格)' 에도 '추괴(醜怪)' 는 없었다. 그러나 유도순(劉道醇)의 '육장(六長)' 중에서 '광괴구리(狂怪求理)' 가 나온 후로부터 '괴(怪)' 의 심미법주가 처음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문인화가 소식(蘇軾)은 마음이 우울할 때〈고목괴석도(古木怪石圖)〉를 그렸다. '기(奇)' 에 관한 추구는 일찍부터 있었다. 장자굴자(莊子屈子)의 문장은 기(奇)하다는 평가와 함께 화가들의 그림이 '기작(奇作)이다', '기필(奇筆)이다' 라는 등의 말은 예술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을 때의 기교의 고졸(古拙)함을 묘사한 것으로서, 예술이 고도의 자각적 발전을 이루었을 때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깊은 정감의 표현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각적으로 기괴(奇怪)의 미학적 규율을 추구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부패와 압박의 산물이며, 예술의 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추사는 저도 모르게 '기괴(奇怪)' 의 단계에로 들어간 것이다.

추사는 '기괴함' 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하고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글씨 역시 "기괴함'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 일부러 괴이함을 꾸미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은 곧 '기괴함' 이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중요한 표현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글씨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그림 1)의 경우 다 떨어진 책과 무뚝뚝한 돌이 있는

3) 석고문(石鼓文) : 석고문(石鼓文)은 최초의 석각(石刻) 문자이며, 그 형태가 북처럼 생겼다 해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 석고문이 발견된 때 당대(唐代)의 학자, 문인들은 주선왕(周宣王) 시대의 산물(産物)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석고문은 진각석(秦刻石)이라는 정초(鄭樵)의 논점을 긍정하였다. 석고문(石鼓文)의 서체는 고문(古文)과 진전(秦篆)사이의 것으로써 대전(大篆)에 속하며 대전에서 소전(小篆)에로 연변(演變)하는 시기의 전서이다. 대전' 이란, 협의(狹義)의 해석으로 한다면 주선왕(周宣王) 태사(太史)가 정리 심사한 문자로써 주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태사가 만든 대전은 모두 15편(篇) 밖에 안 되며 그 진적(眞蹟)도 보기 드물다. 그러므로 석고문을 대전의 대표작으로 친다. 석고문 중에서 적지 않은 글자가 설문 중의 기록한 주문하고 합치 되여 그것을 주문이라고 부른다.吳明南, 「圓嶠와 秋史의 書藝 比較 硏究」,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4, 135쪽 재인용

4) 金正喜, 『阮堂全集』, 卷四, 한글 44쪽, 漢文, 16쪽. " 大隸法. 寧拙無奇, 古而不怪雖怪伯羊竇之險. 亦不奇不怪. 奇怪二意 . 不特書法. 一截戒之爲佳"



그림 1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서재라는 뜻으로 제주도 유배 후 강상(한강 용산변의 강마을)시절의 대표작이다. 글자의 윗선을 맞추고 내리긋는 획은 마치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듯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글씨는 추사 김정희밖에 없었다. 서예(書藝)에 있어서 기맥이 흐르는 글씨가 살아있는 글씨이며, 기맥연관이 된 글씨는 곧 붓에 먹을 찍어 단숨에 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일필화(一筆畵)[5]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자 간에 일기(一氣)가 관통하고 농담(濃淡)과 고윤(枯潤)이 생겨 음양(陰陽)을 갖추어 기백(氣魄)있는 훌륭한 글씨가 표현되는 것이다. 기백은 한국미학의 대부인 고유섭(고유섭, 1905-44)이 '힘있는 조선'의 미감을 '기박(氣迫)'으로 표현했는데 요즘말로 하면 기백 또는 박력과 통한다.[6] 기박은 기박은 거칠면서도 박력있고, 분위기 있으면서도 활달한 것을 말한다. 추사는 서예에서 기의 역사와 함께하여 서예에서 실현했다.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그림 1)글씨의 조형은 오체가 하나의 글씨 속에 동시에 표현되었다. 잔(殘)과 서(書)는 전서(篆書)의 자형을 쓰고 있으며 운필방법도 소전(小篆)의 필을 살리고 있다. 루(樓)의 계집녀(女) 변은 행서의 운필법이 보인다. 특정한 획을 도출시켜 힘과 세를 취하였으며, 변의 축소에 따른 상양 결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잔은 우측변을 적고 복잡하게 쓰고 좌측 변은 강하고 크게 썼다. 이는 주객을 전도시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의 자형은 전서의 자형을 사용하여 기필 부분은 예서의 운필과 해서의 운필을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위의 변을 크게 하고 아래쪽의 변을 작게 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자형이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대신에 석(石)자는 세로획의 기필부분을 안진경체[7]의 운필법으로 사용하고 입구(口)변을 아주 작게 배치함으로써 복잡한 다른 글자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처음과 끝은 강하고 안정감이 있게 쓰고, 그 사이 서(書)자와 석(石)자는 흐트려서 감상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 윗부분을 가지런하게 하고, 아래 부분은 들쭉날쭉하게 한 것은 예서의 결구법을 적용한 구도이니 이는 팔분 예서의 특징을 잘 살린 작품이라고 하겠다. 획의 배출에 있어, 글자에 따라 자유스럽게 아랫부분만 도출시켜 마치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8] 추사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평가인 '여러

5) 일(逸)은 심미적 통찰이자 예술적 경지로 초일(超逸)을 가리킨다. 일은 보통 수준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화 규칙과 법칙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킨다. 일에는 두 가지의 함의를 갖는다. ① 연한 먹으로 가볍게 그리는 것과 평원하고 간결하며 맑고 투명한 의취를 가리킨다. ② 도달하고 싶지만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본보기를 가리킨다. 즉, 일(逸)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초탈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법규에 거리끼지 않는 자유자재의 성격을 갖는다. 심미형태로서의 일(逸)은 생활태도이자 가슴 속의 지향인 정신적 이상으로서의 일(逸)[인생과 세계에 대해 지혜로 충만한 탈속]로부터 비롯된 예술적 반영이다. 은일(隱逸), 고일(高逸)은 세상이 내 뜻과 맞지 않아 들어앉은 은거이다. 일의 철학은 장자의 철학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일은 애초에 사람에 대한 품평의 용어로 사용되다가 예술범주로 변용되고, 宋代 이후엔 서화의 품격 중 최상의 품등이 된다. 임태승,『상징과 인상』, 학고재, 2007, 96-107 참조.

6) 조동일 외 지음,『기학의 모험 2』, 도서출판 들녘, 2004, 79-82쪽 참조.

7) 안진경 글씨는 남조(南朝) 이래 유행한 왕희지(王羲之)의 전아(典雅)한 서체에 대한 반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남성적인 박력과 균제미(均齊美)가 있어 당대(唐代) 이후의 중국 서도(書道)를 지배하였다.

8) 황지원/사공홍주 저,『金正喜의 哲學과 藝術』, 계명대학출판부, 2010, 152-153쪽.

서체의 장점을 취합한 종합적인 서체' 라는 평가는 김정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송절충론[9]적 사유에 의해 오체를 종합하고자 한 것이지, 자유분방한 개성의 발현으로서 기괴함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서의 바탕에서 그 속에 오체가 모두 구현되는 '서체절충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 결과가 '기괴함' 으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서예의 일반적 특징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록성(記錄性)이고 하나는 예술성(藝術性)이다.[10] 기록성을 기록성을 초월하여 예술적 가치로 발전하려면 먼저 서예의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서체를 변형하여 서로 절충하거나, 크기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결구를 한다거나, 장법[11]을 다양하게 하여 조형성을 새롭게 한다거나, 용지의 선택이나 먹물의 농도와 표현 방법이나 재료를 다양하게 이용한다면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창작을 모색할 수 있다. 추사체도 이러한 측면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획이 극도로 가늘다 던지 굵기의 차이는 자간(字間)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운필에서 있어 붓을 빠르게 움직여 획이 경쾌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끊임없이 역동하는 생명력의 표현은 예서와 행서의 결합의 결과다. 세 번째로 표현기법에서 글자마다 중심선 이동을 심하게 하여 획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획 사이의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은 왕희지체[12]와 안진경체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배세(背勢)와 향세(向勢)를 활용한 결과다. 이와 같이 추사는 행서와 초서의 장점을 수용한 빠른 운필법과 극단적인 획의 변화를 추구한 결구법,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획을 배치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자형의 중심선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킨 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창성은 감상자로 하여금 '기괴함' 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괴' 는 처음부터 기괴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의 예서 작품 〈구오복일수(九五福一壽)〉(그림2)를 살펴보면, 좌우의 위치를 바꿔어 써진 '복(福)' 자, 머리가 무겁고 발이 가벼운 '수(壽)' 자, 썩고 끊어진 가지 같은 횡(橫), 고법(古法)이 조금도 없는 파(波)들은 "거칠고 난잡하여 어찌 보면 차마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수어(程邃語), " 순용황졸(純用荒拙), 이추태고(以追太古), 조란착종(粗亂錯綜), 약유부가능자(若有不可能者)")는 말까지 듣게 된다.

추사의 '기괴' 는 저절로 발전된 단계라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비학가들은 기괴를 어떻게 대하였을까? 정판교(鄭板橋)는 '육분반서(六分半書)' 를 창조하였는데 '난석(亂石)' 이 길가에 깔려 있는 것처럼 난(亂)으로 '괴(怪)' 한 절정에 이루었다. 김동심(金冬心)은 죽(竹)을 그릴 때면 '난죽(亂竹)' 을 그린다. 오창석(吳昌碩)은 금석비학(金石碑學)에 대한 이해의 뿌리가 깊고, 고도(古陶), 고부(古缶)를 좋아하였으므로 '부려(缶廬)' , '창석(蒼石)' , '창석(倉石)' 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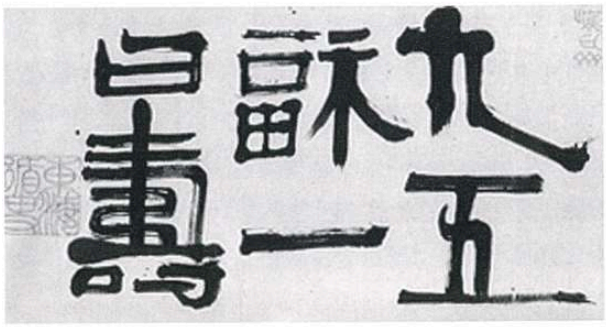


그림 2 김정희, 구오복일수(九五福一壽)

9) 실학은 중기이후로 접어들면서 반주자학 · 탈주자학적 특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며, 추사도 후기 실학자에 속하면서도 '한송불분론' 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학과 송학은 본래부터 하나의 이치이므로 쓸데없이 나눠보아서는 안된다는 '한송불이' 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훈고를 중시한 한학과 의리를 중시한 송대의 주자학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눠지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그의 실학이 반주자학적 · 탈주자학적 색채가 약하며, 주자학의 학문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실학의 탈주자학적 입장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 김정희 철학사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황지원/사공홍주 저, 앞의 책, 43쪽 참조.

10) 『金正喜의 哲學과 藝術』, 153-156쪽 참조.

11) 장법(章法)은 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자를 조화롭게 배열 또는 배자를 하여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꾸며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하며 여기에는 낙관까지도 포함된다.

12) 동진(東晉) 사람인 왕희지체는 한나라 때 생겨난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의 실용서체를 예술적인 서체로 승화시킨 전아(典雅)하고 힘차며 기품이 높은 귀족적인 특징을 지님.

자호(自號)하면서 삼대의 정(鼎), 진한와(秦漢瓦) 중의 원시적 의미의 특징으로 심미취향에 영향 주었다. 추사는 '이기(離奇)한 그림은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데 전(篆)은 단청(丹靑)이 아니라고 말하네(이기작편애아(離奇作偏愛我), 위시전비단청(謂是篆非丹靑))' 라는 말에서와 같이 바로 금석학에 대한 깊은 공력이 전통예술 중의 '괴' 하고 '졸' 한 요소를 발굴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판교, 김동심, 오창석은 모두 중국 비학의 개척자이며, 자각적으로 '괴(怪)', '기(奇)' 의 필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추사의 '기괴' 한 묵적(墨蹟) 또한 이들의 예술 실천과 때를 같이 하여 비학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겼다.

김응현(金膺顯)은 추사의 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쓰고 있다.

> 추사서법 중 예서는 그 대종을 이룬다. 특히 예서에도 서경례(西京隸)(전한례(前漢隸))와 동한례(東漢隸)(후한례(後漢隸))로 구분하여 서경례(西京隸)는 파세(波勢)가 없고 동경례(東京隸)는 파(波)가 있어 일반으로 팔분(八分)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한경명(漢鏡銘)[秋史 隸書 臨漢鏡銘(일부)〈그림 10〉] 등 김문(金文)과 한와(漢瓦)를 비롯하여 한비(漢碑) 중에도 촉도제각(蜀道諸刻)에 특히 주목하였음은 추사예(秋史隸)의 기본(基本)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13]

추사의 예서가 그의 서체 중에서 가장 출중함을 피력하고 추사가 "예서(隸書)는 서법(書法)의 조가(祖家)" 라고 하였으며 "예법(隸法)은 방경(方勁)과 고졸(古拙)을 상(上)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졸한 곳은 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예(漢隸)의 묘는 오로지 졸한 곳에 있다" 고 적고 있다. 또한 추사는 예서를 씀에서 고졸미의 표출을 위해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청고고아(淸高古雅)한 내면의 온축(蘊蓄)이 무르녹아 손끝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지고(至高)한 이념미의 구현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림 3 호고연경(好古研經)
〈129.7×29.5cm〉

추사가 39세에 쓴 예서 〈호고유시수단갈(好古有詩搜斷碣), 연경루일파음시(研經婁日罷吟詩)〉(그림3)대련은 등석여(鄧石如, 1743-1805)의 아들 등전밀(鄧傳密)에게 써 보낸 것이었다. 그는 작품의 변관(邊款)에 등석여의 예서와 전서등을 평가했는데, 예서는 이묵경(伊墨卿)의 것이 기고(奇古)하여 오봉각석(五鳳刻石)과 황용자(黃龍字)에다 촉도(蜀道)의 제비(諸碑)를 더하면 그 문경(門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한편 호암미술관 소장 작품 〈산숭해심(山崇海深), 유천희해(遊天戲海)〉(그림 4)에서는 위의 작품과 또 다른 자연을 만나게 해준다. 〈산숭해심〉의 뜻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이고 〈유천희애〉는 '하늘에서 놀고 바다에서 노닌다' 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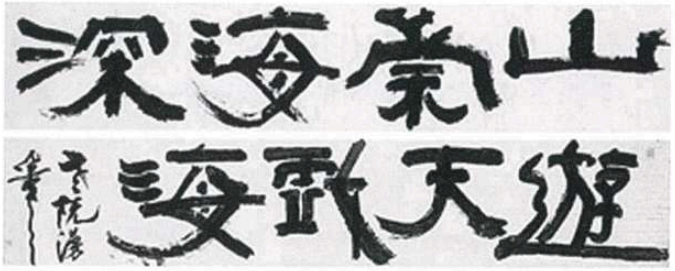


그림 4 산숭해심 유천희해(山崇海深 . 遊天戲海)/조선 19세기 19C중반,
42×207×2cm, 호암미술관

13) 金膺顯, 『秋史 書體의 形成과 發展』, (韓國의 美⑥, 秋史 金正喜 1988.10.) 185쪽.

이 작품의 필획들은 마치 폭풍우 바람에 날아갈 것 같고 풍랑(風浪)에 휩쓸려 갈 것만 같은 충격적 기운을 주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적인 정신적 정화(淨化)를 얻게 한다. 지필묵은 자연스런 운동에서 거스르는 힘, 저항력인 마찰력을 최소화하려는 측면에서 발달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빠르고 거친 필획은 강제적 힘이 아닌, 강한 감흥(感興)이 일어나 이 동력에너지가 허한 통로를 통하여 화면에 쏟아져 나오는 창작과정에서 가속도가 붙어 모필에 강력한 운동 마찰력이 생긴 자연스런 결과이다. 추사의 독특한 서체는 그 조형미가 회화적 요소들과도 잘 융합한 화의적(畵意的) 서풍(書風)임을 볼 수 있다. 유홍준은 『완당평전』에서 이 작품에 대해 현존하는 작품 중 최대이며 전예행서가 함께 어우러진 괴가 가장 강한 작품이라 한다.


그림6 신안구가(新安舊家)


그림7 죽로지실 / 조선 19세기 / 30.0×13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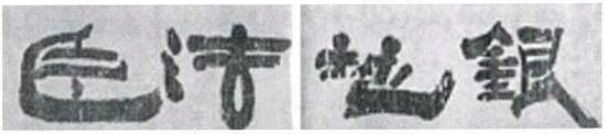

그림8 김정희, 은지법신121.1×28.8cm, 개인소장


그림 5 김정희, '사서루'(賜書樓), 종이에 먹, 27.0×73.5cm, 개인 소장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예서에서의 섭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의 예서 작품으로는 장법이 특이하고 필법이 고졸한 〈사서루(賜書樓)〉 (그림 5), 두려울 정도로 흉험(凶險)한 〈죽로지실(竹爐之室)〉(그림 7)과 〈산숭해심(山崇海深)〉(그림 4) 및 〈유천희해(遊天戱海)〉 (그림 4), 청아(淸雅)하고 고의가 있는 〈신안구가(新安舊家)〉(그림 6), 〈은지법신(銀地法臣)〉 (그림 8), 추기(醜奇)하고 괴란(怪亂)한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그림 1), 〈구오복일일수(九五福一日壽)〉 (그림2) 등이 있다. 그의 예서는 개별적인 것들을 극히 제외하고 대부분 작품들이 음양의 배비(配備)가 훌륭하다. 그의 이런 예서 작품 가운데는 기괴한 풍격(風格)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예(漢隸)의 흉험(凶險), 고졸(古拙)한 풍격(風格)을 풍긴다. 그가 강조하는 음양설은 예서에서 극히 일부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예서의 서풍은 고졸하고 흉험하다.[14]

김기승은 "'기괴한 추사체' 로 명필이 된 그의 서체" 라고 하면서 『초산저(樵山著)』의 평을 인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 추사의 예해자(隸楷字)에 대하여 모르는 자(者)는 괴(怪)라 말하고 약간 아는 자는 어리둥절 만해서 진가를 모른다. 대체로 글씨의 묘오(妙悟)를 얻으려면 법을 떠나서도 안 되는 동시에 법에만 구애되어서도 안 된다. 추사가 쓴 〈유숙사산방(遊肅寺山房)〉의 편제(扁題)를 보면, 어떤 자(字)는 굉장히 크고 어떤 자는 아주 작으며, 한 자에서도 위가 넓고 밑이 좁으며, 자에 있어서도 머리칼 같이 가는가 하면 석가래 같이 굵기도 하다. 그래서 보는 자(者)로 하여금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한다. 마치 조발란복(粗髮亂服)의 무례자(無禮者)의 모습과 같다. 이런 필치(筆致)는 무슨 자득(自得)의 공(功)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경지(境地)로서, 선불(仙佛)의 힘으로 진(塵)을 떨치고 천외(天外)에 초연(超然)한 자세(姿勢)와 같다. 동속(東俗)의 서자(書字)는 대개 부란(腐爛)하지 않으면 노망(鹵莽)하거니와 이 사자(四字)도 역시 전공(全功)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때에 전공(全功)을 자임(自任)하는 자(者)가 있을지 라도

14) 오명남, 앞의 논문, 135-140쪽.

그 길이 추사에서 출발(出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사의 서예에 대한 평가는 대략 이러하다. 이 단락의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법을 떠나서도 안 되고 법에 구애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과, '선불(仙佛)의 힘' 과 '천외(天外)에 초연(超然)한' ' 전공(全功)' 이라는 것과 다른 때에 전공(全功)을 자임(自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길의 출발점은 추사라는 것이다.

추사의 글씨를 『초산잡서』에서 유최진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괴기한 글씨라 할 것이요, 알긴 알아도 대충 아는 자들은 황홀하여 그 실마리를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원래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글자의 획이 혹은 살찌고 혹은 가늘며, 혹은 메마르고 혹은 기름지면서 험악하고 괴이하여, 얼핏 보면 옆으로 삐쳐나가고 종횡으로 비비고 바른 것 같지만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서 추사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추사체의 운필에 있어 방원(方圓) 혼융, 용묵에 있어 윤갈혼융(潤渴混融), 점획에 있어 태세(太細) · 장단(長短) 측도의 대비, 결구(結構)에 있어 비정형(非定形)구조, 장법(章法)에 있어 자간 · 행간의 운필(運筆)의 지속(遲速)이나 글자자체의 대소(大小)대비, 서체에 있어 비학과 첩학의 성과를 해 · 행 · 예서 등의 각체에 혼융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 추사체의 또 다른 특징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정반대의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조형요소를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추사 隸書의 虛和的 古拙美

추사는 과천으로 돌아와 졸(拙)함을 말하고 있다. 기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교를 감추고 졸함을 존중하는 것이다. 추사가 강상시절 새롭게 발견한 경지인 괴의 가치와 졸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노자(老子)는 "교묘의 극치는 가장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大巧若拙《老子》 45章]고 하였다. 이는 눈에 아름답게 띄거나 교묘한 그림은 아직도 미숙한 것이다. 고졸(古拙), 즉 일견 졸필처럼 보여도 실은 자연스러움과 소박하고 청아한 맛이 풍기는 데에 지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유안(劉安)이 말하는 "교는 졸만 못하다"[巧不若拙, 《회남자 淮南子》 人間訓]라는 것 또한 실로 기교는 서투른 것만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사는 괴가 결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개성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추사는 이를 허화(虛和)라고 했다.[15] 추사체의 괴는 '기(氣)' 의 글씨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경지가 곧 '허화' 이다. 추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요즘사람들이 써낸 글씨를 보니 다 능히 허화하지 못하고 사뭇 악착한 뜻만 많아서 별로 나아간 경지가 없으니 한탄스러운 일일세. 이 글씨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허화한 곳에 있으니 이는 인력으로 이르러 갈 바가 아니요, 반드시 일종의 천품(天品)을 갖추어야만 능한 것이며, 심지어 법을 갖추고 기(氣)가 이르러 가면 한 경지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 점차로 정진되어, 스스로 가고자 아니해도 곧장 뼈를 뚫고 밑바닥을 통하는 수가 있게 마련이라네.[16]

위의 내용으로 보아 추사는 '허화' 의 경지를 동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장자(莊子)가 추구했던 허(虛)[17], 즉 무위(無爲)[18]의 세계와 일맥상통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 유홍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712-714쪽 참고.
16) 金正喜, 『阮堂全集』권4, 김석준에게, 제4신. 『완당평전』, 713-714쪽 재인용.
17) 동양회화는 허(虛)를 중시한다. 허에 대한 강조는 노장사상이 끼친 영향이다. 노장 철학은 '허무를 근본으로 삼는다.' 고 할 수 있다. 즉, 감각기관으로 얻은 형색과 명성의 틀을 탈피해야 비로소 '大美(진정한 아름다움)' 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는 필획 사이와 작품 주변의 여백 부분을 가리킨다. 실(實)은 점과 선이 작품에 머문 부분을 일컫는다. 동양예술은 허를 더 중시하기에 허로써 실을 생기게 하고 실(實)에 노력을 두어 허와 실이 상생(相生)하고 허 가운데 실이 있도록 해야 했다. 임태승,『소나무와 나비』, 심산문화, 2004, 213-217 참조.
18) 무위(無爲;노자)-무작위, 자연주의.

> 올바르면 편안해지고, 편안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분명해지면 스스로를 허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를 허하게 하면 새삼 무슨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연의 대도(大道)와 하나가 되어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正則靜, 靜則明, 明則虛, 虛則無, 無則無爲而無不爲也). 『莊子』, 「庚桑楚」[19]

동양의 자연철학자 장자의 형이상학적인 '허'의 의미는, '허무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감각기관으로 얻은 형색과 명성의 틀을 탈피해야 비로소 '대미(大美;진정한 아름다움)'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는 필획 사이와 작품 주변의 여백 부분을 가리킨다. 실(實)은 점과 선이 작품에 머문 부분을 일컫는다. 허를 더 중시하기에 허로써 실을 생기게 하고 실에 노력을 두어 허와 실이 상생(相生)하고 허 가운데 실이 있도록 해야 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 '지락(至樂)의 경지'와 장자가 주장한 '허(虛)로 인한 무위(無爲)' – 허하면 무슨 일도 하지 않게 되나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는 특히 '어떠한 사적인 이득과 상관없이 지혜로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극한 즐거움(至樂)' 근거가 되어주는 셈이다. 이렇게 '허(虛)라는 기준'으로 아집(我執)을 버린 마음은 도가사상과 동양미학을 통해 손가락의 힘이 '허'할 때 우주의 '기(氣)'가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무위(無爲), 허(虛)의 상태라 할 수 있다.

1841년 추사가 56세 때(헌종7년) 초의 스님을 위해 대흥사 노전(爐殿) 현판으로 써준〈일로향실(一爐香室)〉(그림 9) 현판글씨는 초의(草衣)의 선실(禪室) 이름인데, 완당이 예서로 써 준 액자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20] 〈일로향실〉은 "화로 하나 있는 다실"이라는 뜻이다. 뜻도 좋고 글씨도 아름다워 완당 현판 중 명품으로 손꼽힌다. 노전이란 법당에 아침저녁으로 향과 부처님 공양을 일과로 받드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 글은 허소치가 제주도로 추사를 찾아갔다. 오는 편에 초의 스님에게 보내졌는데, 예전의 추사의 예서보다 필획이 가늘어지고 우아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추사의 새로운 조형적 감각이 느껴진다. 〈일로향실〉(그림 9)은 예산 화암사에 써준 〈무량수각〉(그림10), 〈시경루〉(그림 11)와 마찬가지로 예서체 중에서도 전한 시대의 고졸하면서도 힘 있는 글씨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글자의 구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해 추사체의 참 멋을 느끼게 한다.


그림 9 일로향실(一爐香室) 〈32×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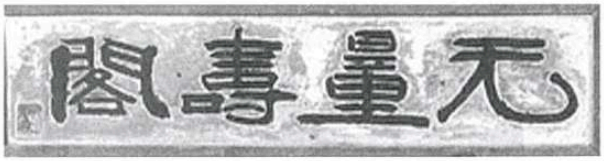

그림 10 무량수각(无量壽閣) 〈67×186cm〉


그림 11 시경루(詩境樓) 〈30×100cm〉


그림 12 일로향각(一爐香閣) 〈68×170cm〉

20) 추사와 초의의 평생에 걸친 교분을 보여주는 편지 글로 다음과 같다.
중이 와서 초의의 서한을 전하고 또 다포(茶包)도 전해 주었네. /이곳의 샘 맛은 바로 관악산(冠岳山) 한 맥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두륜산(頭輪山)에 비하면 갑을(甲乙)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공덕(功德)의 삼사(三四)는 있겠기에 빨리 보내 온 차를 시험해 보니 샘 맛도 좋고 차 맛도 좋아서 바로 한 조각 희환의 인연이었네. /이는 차가 그렇게 만든 것이요, 편지로 그런 것은 아니니, 그렇다면 차가 편지보다 낫단 말인가? /더구나 근일에는 일로향실(一爐香室)에 죽 머물러 있다니,/ 무슨 좋은 인연이 있는 거요? 왜 갈등을 부숴 버리고 한 막대를 멀리 날려 나와 이 차의 인연을 같이 아니하는 거요? /또한 근자에 자못 선열(禪悅)에 대하여 자경(蔗境)의 묘가 있는데,/ 더불어 이 묘체(妙諦)를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몹시도 선사와 한 번 눈썹을 펴고 토론하고 싶은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소./ 약간의 졸서가 있어서 부쳐 보내니 거두어들이기 바라오./ 비 오기 전의 잎[雨前]은 얼마나 가려 놓았는지. /어느 때나 (내게로) 부쳐 보내 이 차에 대한 굶주림을 진정시켜 주려는가!/ 날로 바라며 불선. 향훈에게 가는 한 장의 편지는 행여 전달해 주기 바라네.

〈일로향각(一爐香閣)〉(그림 12) 글씨는 통도사에 걸려 있는 현판 글씨이다. 1847년 팔공산 은해사(銀海寺)에 큰 불이 나서 절의 거의 모든 전각이 타버려 3년 이상의 중창 끝에 추사에게 여러 전각의 현판을 부탁했다. 당시 영천 군수였던 이학래(李鶴來)가 쓴 「은해사연혁변(銀海寺沿革辨)」을 보면 '은해사의 불당(佛堂)인 대웅전, 종각인 〈보화루(寶華樓)〉(그림13)가 모두 추사의 글씨이며, 노전(爐殿)을 일로향각이라고 했는데, 이도 역시 추사의 예서다' 라고 했다. 아마도 이 글씨는 은해사의 것을 모각한 것인 듯하다. 추사 예서 중의 백미로, 제주 시절 이후의 작품이다.

제주 시절 이후의 글씨로 보이는 〈동국선원(東國禪院)〉(그림 14)글씨는 해남 대흥사 선원의 편액이다. 이 작품도 매우 고졸한 글씨이다.



그림 13 보화루(寶華樓) 〈97×2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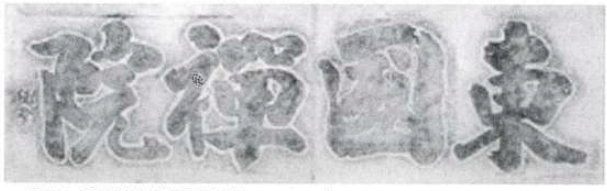


그림 14 동국선원(東國禪院) 〈35×113cm〉

과천 시절 작품으로 작품 〈공산무인(空山無人)〉(그림 15)은 "공산무인(空山無人), 수류화개(水流花開) 빈산에 사람은 없으나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이는 소동파의 나한송(羅漢頌) 가운데 한 구절로,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이다. 공(空)자나 유(流)자의 구성은 추사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산무인(空山無人)〉(그림 15)은 문자와 회화적 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삶에서 체득된 본성이 우러나 온 결과이다. 즉, 그는 서화불분론(書畵不分論)의 입장에서 시·서·화 일치사상으로 "글씨는 그림처럼, 그림은 글씨처럼" 이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그는 글씨나 그림이 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 이르면 자연히 우러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림 15 공산무인(空山無人) 〈47×151cm〉

필법에서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너무나 빨라진 필획은 자칫 가벼워 보여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금기시 되어왔다. 어설프게 다루다가는 낭패 보기 쉬워 금기시 되는 법칙조차도, 자연에서 느낀 특별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감히 시도해 훌륭하게 소화시킨 경지를 뛰어넘은 추사의 기예에 이 극과 극의 서로 다른 작품을 추사 한 사람이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하고 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추사는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천변만화한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심수상응(心手相應)에 의해 숙련의 여유를 가진 허한 손으로, 또한 부드럽고 허하도록 역사 속에서 개선되어온 모필을 매개로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화면에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21]

21) 최현우,「추사 김정희의 서화작품에 나타난 바른 집필법 고찰– 자연과학적 측면에서」『추사연구』제 5호, 추사연구회 2007. 8쪽.

추사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쓰셨다는 서울 강남 봉은사(奉恩寺)의 현판인〈판전(板殿)〉(그림 16)은 어린 아이 글씨와 많이 닮아 있다고 평가된다.[22] 보통 불경 등의 경판을 보관하는 전각을 대장각, 장경각이라 부르는데, 유독 이곳만은 '판전'이라 부른다. 봉은사 판전은 1856년(철종7년) 남호(南湖) 영기 (永奇) 스님이 조성한 80권 본 화엄경소(華嚴經疏)를 봉안하기 위해 지었다. 이때 남호 스님의 부탁으로 쓴 것이〈판전〉이란 편액이다. 판전의 '선게비불'은 획의 굵기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울림이 강하고 추사체의 파격적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판전〉은 고졸한 가운데 무심의 경지를 보여주는 명작이다. 유년과 노년의 시절은 자연의 선천적인 힘이 육체의 인위적인 힘보다 강하여 손가락의 힘이 자연스럽게 허(虛)함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추사의 노년의 손모양이 어린 시절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글씨 또한 유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아무런 의지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 '추사체의 당당한 멋스러움' 조차 사라진 이〈판전〉이라는 순수한 두 글자는 바른 집필법의 기본 바탕이 되는 기준 '허(虛)의 완벽한 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점의 속된 기운이나 일호(一毫)의 기교도 없어 항상 대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 작품이다. '고졸(古拙)'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글씨로서, 추사가 이 세상에 유언 같이 써 놓고 간 글씨다. 추사도 이〈판전〉과〈압구정(狎鷗亭)〉이 자신이 쓴 편액 중에 스스로 잘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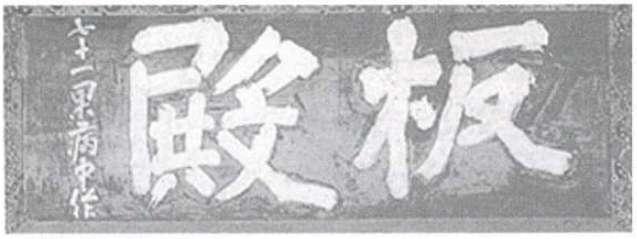


그림 16 판전, 〈73×213cm〉

말년 71세인 과천시절 완당이 남긴〈대팽두부(大烹豆腐)〉(그림 17)는 1856년 당시 71세 추사의 마지막 예서체 작품이라고 전하며 그의 서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명작이다. "최고의 반찬이란 두부나 오이와 생강과 나물(대팽두부과강채大烹豆腐瓜薑菜), 최고의 모임이란 부부와 아들 · 딸과 손자(고회부처아녀손高會夫妻兒女孫)[23]"라고 대련(對聯)으로 쓰여 있고, 조그만 글씨로 "이것은 시골늙은이의 제일가는 즐거움이다"라고 덧붙여 써 놓았다. "비록 허리춤에 말(斗)만큼 큰 황금인(黃金印)을 차고, 먹는 것이 사방 한길이나 차려지고 시첩(侍妾)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행농(杏農)을 위해 쓴다." 글의 내용만큼이나 글씨 또한 소박하고 욕심없고 꾸밈없는 순후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글씨의 골격에는 역사적 연륜조차 느끼게 하는 옛 비문의 졸(拙)함니 뼛속까지 배어 있다. 그러니 엄청난 기교이면서도 그 기교가 드러나지 않고 그저 천연스럽고 순박하게만 보이는 '무기교의 기교'라는 한국의 미를 보이는 작품이다. 진정한 행복은 부귀영화가 아닌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과 단란한 가정'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깊은 이타심을 느낄 수 있다. 유홍준은〈대팽두부(大烹豆腐)〉글씨를 결국 완당이 살아온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였는가를 말해주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 칭송한다. 글 내용과 글씨 모두가 완당의 예술이 평범성에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갖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로 드러난 불계공졸의 경지로 본다.

그는 예서를 쓰는데 있어 아들 상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 한 바 있다.

> 예법(隸法)은 가슴 속에 청고고아(淸高古雅)한 뜻이 들어있지 않으면 손에서 나올 수 없고, 가슴 속의 청고고아한 뜻은 또 흉중의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들어있지 않으면 능히 어깨 아래 손가락 끝에서 발현되지 않으며 또 심상한 해서(楷書)같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모름지기 가슴 속에 먼저 문자향과 서권기를 갖추는 것이 예법의 장본(張本)이며 예를 쓰는 신결(神訣)이다.

22) 유홍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761쪽 참고.
23) 此爲村夫子第一樂上樂, 雖腰間斗大黃金印, 食前方丈侍妾數百, 能享有此味者幾人, 爲杏農書, 七十一果

요컨대 추사가 만년에 와서 강조하는 기(氣)와 흥(興)이 넉넉하고 고르게 가라앉은 비움[허(虛)]의 허화로움과 고졸함의 가치는 그의 글씨에 반영되었다. 추사가 추구했던 괴가 괴한 것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는 천연스러운 경지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경지는 중국처럼 위압적이고, 이지적이지도 않으며, 일본처럼 기교를 부리거나 결벽성을 강조하지도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가식 없이 필세(筆勢)에서 호방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심미의식을 반영한 조형이라 하겠다.



그림 17 대팽두부(大烹豆腐)

마치며

한예의 고졸한 기백을 가진 추사의 예서는 그의 서체 가운데서 가장 출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추사는 연행 이후부터 30대에 옹방강을 통해 정법을 익혔다면 40대에는 바로 옹방강의 토대가 된 구양순법을 체득하면서 정법의 극점에 도달했다. 과천시절(1952-56)에 무르녹아난 추사체의 기괴(奇怪)와 고졸(古拙)함의 미학은 정법의 자기해체나 파괴의 결과물인 것이다. 추사체는 운필과 용묵에 있어 방원(方圓:둥글고 모가 남)과 윤갈(潤渴:기름지고 마름)의 혼융, 점획에 있어 태세(太細:굵고 가늘기) 정단(長短) 측도(測度:기울기)의 대비, 결구에 있어 비정형(非正形) 구조, 장법에 있어 글자 대소대비, 서체에 있어 비학과 첩학의 각체가 혼융되어 있다. 서로 다른 정반대의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조형 요소를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만들어낸다. 즉 글자의 점획이나 짜임새, 글자간의 배치를 문제 삼는 장법 등에서 서로 다른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추사 공간경영의 특징이다.

그의 예술론은 법고를 통한 독자적인 창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 존고(存古)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존고는 전통주의라 할 수 있다. 전통론에서는 고전적인 고졸미를 추구하지만 창작론에서는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괴(怪)를 추구한다. 이것이 김정희의 예술론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이며 겸(兼)의 미학이다. 고졸미에서는 온축된 내면의 미의식을 강조하지만 파격미에서는 미의식의 파격적인 표현을 강조한다. 고졸미가 내용적인 것이라면 파격미는 형식적이다. 김정희는 이처럼 대립적인 미 개념을 자신의 예술세계에 융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추사는 조선 서단에서 유행하던 '동국진체'를 극복하고 서고의 원래적인 미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를 창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서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서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격과 인품이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어야함을 강조한 것이 유학의 근본정신인 '문자향 · 서권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학적으로 순수하고 고박한 원초적인 미에 바탕을 둔 것은 한국민족의 핏속에 흐르는 무속적인 요소가 추사의 필묵으로 모질고 굳세게 삶을 헤쳐 가는 샤먼적 민족혼의 전달이 예서에서 괴와 고졸미로 한국예술의 정신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이는 일부러 가식적으로 하고자 한 괴(怪)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된 괴의 미학이 추사체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原典類
金正喜 著, 최완수 譯, 「秋史集」, 현암사. 1976.
金正喜, 「阮堂全集」, 卷四.

■ 單行本類
金膺顯, 「秋史 書體의 形成과 發展」, (韓國의 美⑥, 秋史 金正喜 1988.10.)
딩시위안 지음, 이화진 옮김, 「예술풍수」, 도서출판 일빛, 2010.
徐復觀, 「중국예술정신」, 권덕주 外譯, 동문선, 1997.
정후수, 「秋史 金正喜 論考」,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8.
조동일 외 지음, 「기학의 모험 2」, 도서출판 들녘, 2004.
유홍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임태승, 「소나무와 나비」, 심산문화, 2004. / 「상징과 인상」, 학고재, 2007.
황지원/사공홍주 저, 「金正喜의 哲學과 藝術」, 계명대학출판부, 2010.

■ 論文類
吳明南, 「圓嶠와 秋史의 書藝 比較 研究」,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4.
최현우, 「추사 김정희의 서화작품에 나타난 바른 집필법 고찰-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추사연구」 제 5호, 추사연구회 2007.
黃秀煥, 「추사의 사상과 추사체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박수근의 그림에서 박수근을 읽는다.



김영숙 (예원예술대학교)

박수근의 그림에서 박수근을 읽는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화가마다 다르게 화폭에 그려낸 독특한 형태, 즉 조형미에서 기쁨을 느끼거나, 또는 서로 다르게 조합된 색채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또는 그 그림이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정신적 교감을 느끼거나, 혹은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을 음미하면서 인지적 기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칸트를 대표로 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전자의 경우를 강조한다면, 헤겔과 같은 내용 우선론자들이 후자의 경우를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쁨 중의 하나가 바로 그림 속에 서 그 화가의 캐릭터를 발견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그림 속에서 그 독특한 형태와 색채와 더불어 그 화가가 그린 시대에 대한 이해, 그 화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등을 읽어내면서 그 화가의 고유한 내면을 만나게 된다. 즉 형태와 색체를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이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배경과 주제를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든, 화가의 내면을 읽게 되는데,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그 사람의 그림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기쁨은 결코 작지 않은 기쁨이다. 나는 유독 박수근의 그림에서 그러한 기쁨의 극대치를 맛보았다.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왜 그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이나 동생을 업고 있는 소녀나 노상에서 물건 파는 아낙네들을 주로 그렸을까, 그리고 왜 인물들의 형태를 그토록 단순하게 그렸을까, 또는 왜 색채를 주로 흙갈색이나 무채색 톤으로 그렸을까, 더 나아가 인물들의 색채와 배경의 색이 별로 구별되지 않게 그렸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면을 화강암 표면처럼 보이게 하는 독특한 마티에르

기법을 창안해냈을까 등등의 의문을 하다보면, 그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읽어 내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박수근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을 오롯이 발견하게 된다.

박수근은 주로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들, 장사를 끝내고 머리에 무언가 저녁거리를 이고 바삐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 아기를 업고 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소녀 등을 그렸다. 이 때 배경으로 줄곧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겨울나무이다. 그리고 이때 겨울나무는 비록 화려한 이파리들은 매달려 있지 않지만, 그 튼튼한 줄기며, 사방으로 막힘없이 뻗어나간 가지들로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어 우리에게 결핍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정감과 견실함을 느끼게 해준다. 지독히 가난했던 시절, 엄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점에 나가 앉아 있지만, 저녁시간이 되면 종종 걸음으로 식구들에게로 돌아오고, 엄마가 없는 집에 대신 동생을 업어 키우는 소녀의 시선은 반은 등에 업힌 동생에게, 나머지 반은 머지않아 돌아올 엄마를 향해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끈질기게 생명을 길러내는 일은 마치 겨울나무가 비록 아직 잎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줄기와 가지를 꼿꼿이 키워내는 모습을 닮아 있다. 아마도 박수근은 이와 같이 겨울나무와 한국 여성들이 보여주는, 자기 본업에의 충실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형태를 단순하게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른 다양한 삶의 양태들, 그리고 서로 다른 특별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이리라. 다른 가족이나 이웃과 유리된 채 고립된 자아의 모습도, 타인을 짓밟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탐욕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삶의 진정한 본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듯 자기 일에 열심이면서 동시에 이웃에게도 따스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그리고 길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들은 늘 반은 고개를 이웃에게로 돌리고 있다. 박수근의 그림에서 군상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이웃과 정을 주고받는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인간 개개인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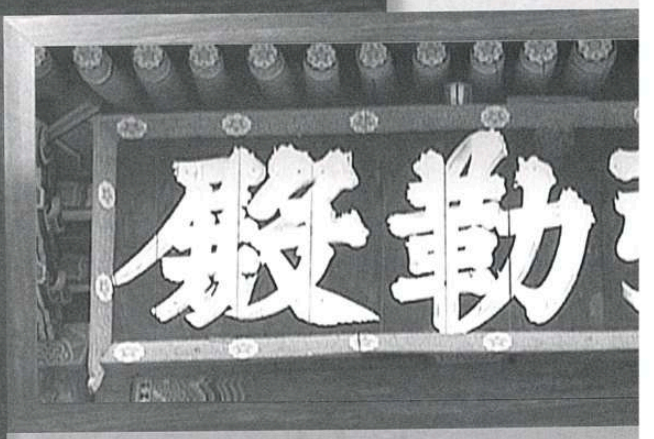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박수근이 그린 인간은 배경과도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단지 인물의 윤곽을 검은 선으로 구별해 놓고, 인물의 옷 색깔이 조금 다를 뿐 그들은 배경과 한 데 어우러져 있다. 박수근의 그림에서 배경이 인물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거나, 배경이 인물을 압도하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둘은 함께 있다. 심지어 박수근 의 인물들의 얼굴은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흙을 닮아 흙빛이다. 박수근의 인물들은 그들이 태어난 배경을 혐오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고 묵묵히 순응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겨울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듯이.

박수근은 다른 화가들처럼 인생의 시기에 따라 소재와 화풍이 바뀐 화가가 아니었다. 박수근은 자기가 발견한, 혹은 추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더욱 더 천착해 나갈 뿐이었다. 요사스럽고 번잡한 말을 잃어버린, 형태의 단순함을 보여주는 돌부처의 모습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낀 박수근은 이제 마티에르 기법, 즉 붓 칠을 하고 말리고 다시 붓 칠을 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함으로써 화면을 (우리 땅에 흔한 화강암의 표면과 같은) 울퉁불퉁하게 하는 기법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제 그는 선한 심성을 갖고 열심히, 그리고 한결 같이 자기 본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에 더 깊은 중후함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불멸에 가까운 변치 않음을 형상화시켜냈다.

이와 같이 박수근이 형상화시켜낸 인간상은 결국 박수근 바로 그 자신이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그의 인간성을 재발견함으로써 필자는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탐욕과 허영,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우리 동시대인들에게서도 겉모습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밑바닥에는 박수근이 그려낸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대적광전



전북 미술 문화의 이해와 새로운 창조

이흥재 (전북도립미술관장)

세상이 점점 빨라져가고 있다. 그만큼 생각도 피상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잃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예술에는 창의성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연암 박지원의 유명한 법고창신론 즉 "옛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고(古)란 단지 지나간 죽은 옛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고(古)란 단지 복원이나 찬탄의 대상이 아니고, '오래된 미래'를 찾기위한 필수과정인 것이다.

사상과 철학이 뿌리라면, 문화는 줄기이고, 꽃이나 열매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창이 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좌표가 되기도 한다.

1400여살이나 되는 금산사는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역사를 겪어 온 살아있는 미술관이다. 금산사에 내재된 백제의 미감을 통해 전북 미술 문화의 폭과 깊이를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현재적 조형의 방향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 금산사의 시각적 조형성에 대한 이해



수직적 이미지 – 미륵전

1) 수직적 이미지 – 미륵전

금산사는 백제가 망한지 100여년 뒤인 762년, 진표율사가 백제유민의 구원을 위한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중창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지이다. 금산사는 백제사람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미륵불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처다.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현실의 변혁을 원하는 민중들에게 미륵은 구원의 메시아이다. 미륵의 범어 표기인 마이트레야(Maitreya)는 메시아(Messiah)와 어근(語根)이 같다고 한다. 즉, 불교의 미륵은 기독교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륵은 인도의 바라나국 겁바리촌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때 석가 입멸, 56억 7천만년 후에 용화수(龍華樹)아래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통해 이 땅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라는 수기를 받았다. 그는 죽은 뒤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이 되었고, 잠시도 쉬지 않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다. 이 과정을 미륵상생(彌勒上生)이라 하고, 도솔천 미륵의 시각적 조형이 미륵반가 사유상이다.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지상의 미륵불로 내려오는 과정을 미륵하생(彌勒下生)이라 하고, 미륵이 용화수아래에서 행하는 3번의 설법을 '용화삼회(龍華三會)'라 부른다.

미륵신앙 사찰은 용화삼회의 "3"이 상징수가 된다. 그래서 탑이 3개 이거나 3층의 건물을 짓는다. 금산사 미륵전이 3층인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조형이다. 미륵전에는 현판도 3개나 걸려있다. 즉 '미륵전', '용화지회', '대자보전' 이다.

석가모니는 40여년동안 중생을 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단 3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제한다는 미륵불의 시각적 조형은 어떠해야할까?

모든 중생이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는 수직적 이미지여야 할 것이다.

금산사 미륵전 미륵불상이 동양최대로 키가 큰 조각이라는 말은 당연한 얘기이다. 또 미륵전은 건물이 3층이면서 기단이 매우 낮다. 그래서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수직으로 우뚝 서있다. 보통 미륵상은 키가 아주 커서, 법당 안에 모시기보다는 야외에 입상으로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산의 관촉사 '은진미륵'은 야외 입상 조각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2) 수평적 이미지 – 대적광전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는 말이 있다. 바로 모든 예술이 음악의 harmony 즉 조화를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시각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조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주변과의 조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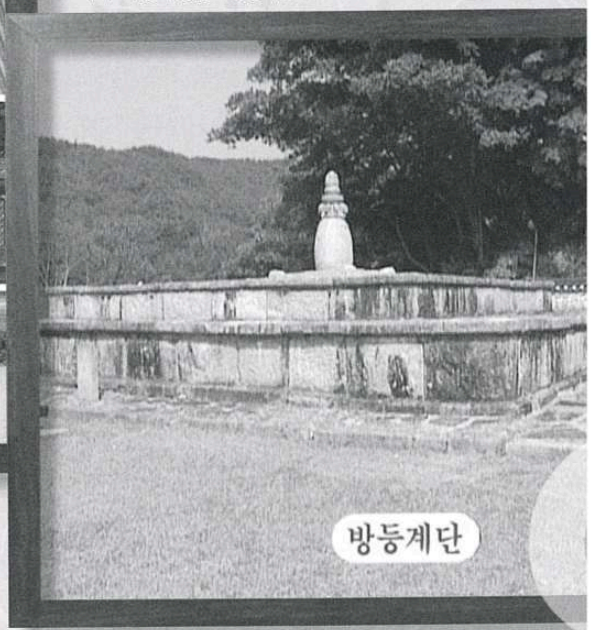
옛날 백제땅이었던 호남지방은 평야가 많다. 상대적으로 옛 신라였던 영남지역은 높고 험한 산들이 많다. 산이 많은 영남에는 수직적인 조형이, 평야가 많은 호남은 수평적 구조가 잘 어울린다. 영남지역의 옛 건물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칸살이 좁고 기둥이 높아 수직적이고, 호남지역은 칸살이 넓고 기둥이 짧고 굵어 옆으로 기다란 수평적인 조형이 특징이다.

금산사 대적광전은 다섯부처와 여섯보살을 모셔 건물이 7칸이나 된다. 이렇게 긴 건물이, 기단은 높고 기둥이 짧고 굵어, 더욱더 옆으로 기다란 수평적인 이미지로 느껴진다. 김제 금산사, 익산의 미륵사, 그리고 고창 선운사의 창건설화에 의하면 연못을 메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넓은 평지를 확보해서 수평적 구조의 가람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수평적 이미지 – 대적광전

수직 · 수평의 통합 – 방등계단



우리지역의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나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개암사 대웅보전은 공예적이고 정교한 옛 백제문화인 수평적 조형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미술문화이다.

3) 수직 · 수평의 통합 – 방등계단

금산사는 미륵전과 대적광전이 가람의 중심이다. 미륵전은 모악산 정상과 어울리는 수직적 조형이고, 대적광전은 건물 뒤 평평한 능선과 일치되는 수평적 구조이다. 그래서 금산사는 수직적 미륵전과 수평적 대적광전이 직교한다.

미륵전은 15m에 달하는 3층의 높은 건물이다. 넓은 평지의 수평속에서 우뚝 서있는 미륵전은 미륵신앙의 대상으로 최상의 이미지이다. 반면 대적광전은 길이가 26.6m나되고 7칸의 기다란 건물이다. 수직의 미륵전은 동쪽에서, 수평의 대적광전은 서쪽에서 중심을 이루며 직교하고 있다.

이 두개의 중심을 통합하고 수직-수평이 직접 부딪히는 갈등을 완충해주는 것이 5층석탑이 있는 방등계단이다. 대적광전과 미륵전 사이 송대라고 하는 방등계단이 있다. 모악산 정상에서 길게 뻗어나온 능선의 끝에 있는 이 방등계단은 두 건물에서 뻗어나오는 힘을 중화시키면서 하늘로 상승케 하는 절묘한 조형을 이룬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 중심은 미륵전과 대적광전 두건물이지만, 감추어진 실질적인 중심은 바로 5층석탑이 있는 송대의 방등계단이다. 방등계단 앞의 5층석탑은 멀리서 눈에 잘 띄게 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이다. 방등계단이 수평적 조형이어서 입구나 위치가 낮은 절 마당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넓은 방등계단은 수평적 조형이고, 그 앞의 5층석탑은 수직적 이미지이다. 방등계단 역시 수직 – 수평의 대조적 조형이다.

2. 법고창신의 정신



우리조상들은 사상적 교리를 시각적 조형으로 구현해 내면서, 주변의 산능선이나 봉우리 그리고 들판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도 수직과 수평의 극단적 조형을 이처럼 절묘하게 대비시켜 내었다. 그 시대 문화를 종합적으로 디자인해내는 품격높은 감각에 숙연할 뿐이다.

우리 전통 미술문화의 현대화 작업은 무엇보다도 정신성의 현대화이다. 역사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불교문화, 유교문화 그리고 고유한 우리 전통미술문화에 대한 깊고 애정어린 이해없이 전통의 현대화 작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겉모습이나 단순한 문양의 변형이나 응용이 전통의 현대화는 아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이나 들의 형상을 씨줄로, 우리 지역의 미술문화를 날줄로 엮어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해내야 한다.

전라남도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이광원 (전북회화회 회원)

가볼만한 미술관

오늘날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다. 번거롭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지 않아도 신문, 각종잡지, 화보, 광고, 인쇄물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술 작품이나 시각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박물관 미술관은 진품의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진품을 통해 감상의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공간이다. 아울러 오늘날에는 문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볼만한 미술관을 소개한다.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 122-1번지

국도(광주~고흥군)상 대원사 입구 안내판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길을 가다보면 2km 지점 우측산 허리에 자리잡고 있다. 연건평 1.190, 총 소장품 490점이다. 보성군 출신 서양화가로 국전 심사위원을 지낸 백민(白民) 조규일(曺圭逸)이 자신의 작품과 소장하고 있던 국내외 유명화가의 회화작품 350여점을 보성군에 기증하고 보성군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미술관으로 신축하여 문을 열었다. 전시실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다. 1층에는 조규일 화백실과 동양화실, 국제관이 있는데 이중 동양화실에는 지역출신 서예가들의 작품과 조선후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국제관에는 북한

공훈미술가들의 작품과 제정러시아 시대의 목판성화를 비롯한 러시아의 보물급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국내외 유명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자연채광방식을 채택한 2층 전시실은 자연광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국내 유일의 군립 미술관으로 향토작가인 백민 조규일 화백의 작품과 소장품(국내외작품), 사재를 기증받고 국비, 도비, 군비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으며 1993년 12월 29일 개관하였다. 국내에서는 보기드물게 완전자연채광 시설이 되어있어 가볼만한 미술관이라 소개하고 싶다. 현재 백민화백의 작품등 국내외 작품 1000여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 건립을 위해 서울과 지역작가들에게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일본의 미술관을 오가며 미술관 건축에 참고하였다. 현재 국내에 국·공립 미술관은 8개소이며 그 중 본미술관은 군내 유일의 군립 미술관이다.

달.뫼.미.술.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용운마을의 작은 하천가에 있는 미술관으로, 2006년 5월 18일 개관하였다. 창평면을 감싸는 산울타리의 주봉인 월봉산(月峰山)을 한글로 옮겨 달뫼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술관은 마을의 낡은 마을창고를 개조하여 만들어졌다.

달뫼 미술관은 '한국 사실주의의 산실'을 지향하는 곳으로, 주로 사실주의 작품의 기획·초대전을 연다. 1980년대에 한국 리얼리즘 미술을 주도한 '현실과 발언' 그룹 회원으로 활동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의 신경호 교수가 설립하여 관장을 맡고 있다.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마을의 문화센터의 역할도 하는 곳이다. 관람시간은 11:00~19:00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명.지.미.술.관

전라남도 담양군 고읍리에 위치한 명지 미술관은 자연과 더불어 예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공간입니다. 1700여 평의 부지에 미술관과 1500여 평의 야외 조각 공원과 무대 공간이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좋아 관람객을 유도하는 문턱이 낮아 언제든지 관람객들이 찾아와 쉽게 관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지 미술관은 사진작가 강봉규가 소장 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 하고자 하는 뜻으로 1997년에 갤러리 명지원을 처음 개관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 2월, 1종 미술관으로 등록 명지미술관으로 재 개관 하면서 지역의 문화 예술 및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문화와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전시, 공연,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의 예술활동을 발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어 이를 위하여 명지 미술관이 지향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주목 받는 작가를 소개하며 기획전시, 초대전, 소장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는 미술관의 공간이 되고 전시 이외에도 각종 공연과 이벤트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찾아와 미술관을 어렵게느끼지 않고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인식 할 수 있는 친근한 미술관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명지 미술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그 밖의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에 힘쓰고 있으며 예술로써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고, 또한 사진의 "바른 시각을" 위한 무료 사진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산.미.술.관

전라남도 화순군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자연으로 예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의 꽃을 피웠던 예향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남종화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학포 양팽손, 한국 서양화화단의 개척자이자 국내 인상파 회화의 거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오지호 화백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다산미술관은 2001년 4월 8일, 전남 화순군 남면 다산리 455번지 일원, 이천여 평의 대지에 연건평 백 오십평의 건물로서 사십여 년 간 교육계에 몸 담아오신 '다산' 이판석 선생님께서 1997년 괄 추락사고시 유명을 달리하신 가족들의 뜻을 기리고, 평소 본인 및 자제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과 그 동안 오랜 숙원 사업이셨던 미술관을 본인의 고향이고 생가인 부지에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한 달간 다산미술관 개관 기념 초대전을 통해 광주 전남의 중견작가 36명을 초대하여(한국화: 김대원, 김재일, 김재민, 김정숙, 노경상, 박광식, 백현호, 조광섭, 이만식, 이정래, 김인화, 하완식, 하철경, 허임식, 서양화: 김대성, 김진열, 노의웅, 류영도, 손영선, 이강일, 이영식, 장지환, 정영순, 최성훈, 김준호, 조각: 김행신, 박영선, 박성호, 전병근, 최규철, 최만길, 시각디자인: 강인호, 손영환, 선용수, 이창호)전시하엿으며, 2005년 5월 17일부터는 제1회 주암호 살리기 포스터전 및 공모전을 통해 순천시, 화순군, 승주군, 보성군의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심사, 대상, 은상을 전시함으로써 환경청, 전라남도 교육청, 순천시 교육청, 화순교육청, 보성교육청 등의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암호를 배경으로 건립하게 된 다산미술관은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술을 사랑하는 동호인과 도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공간, 자연 속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고 미술관을 개관하여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계시며 한쪽 터전에는 조롱박을 직접 심어 박공예를 하시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작품들에 몸을 기대어 살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산 이판석 선생님은 우리를 환영했고 다시 만남을 약속하며 조롱박 몇 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노을속에 점점 멀어진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조각의 신 오귀스트 로댕을 만나고

오귀스트 로댕 (1840~1917) **전시회를 보고**
+
이승훈 (전북회화회 회원, 군산대성중학교)

파리 로댕 미술관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로댕이 작품 113점의 조각과 42점의 드로잉 수채화 그림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되었다. 파리까지 가지 않고서도 가까이서 만난다는 것에 기다림이 싹트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고온에 여름은 더한층 뜨거웠다. 그래도 '로댕'을 생각하면서 보낸다는 것이 즐거웠다. 10시 10분쯤 도착 했는데 입장하는 줄이 만들어 지고 있었다. 10시 20분 즈음 입장하자 곧 도슨트의 설명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초등생 위주로 설명이 있었다. 청동시대, 지옥문, 칼레의 시민, 사랑으로 빚은 조각, 로댕 작업실 엿보기, 춤-생동하는 인체, 카미유 클로델, 알마관 개인전, 공공기념물(발자크와 빅토르 위고) 순으로 전시되었다.

처음 들어서 가장 눈에 강하게 온 것은 청동시대 작품이다. 청년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청년답다는 것이다. 그 전처럼 매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힘과 움직이는 근육질을 잘



다듬어서 만든 것이다. 화보집에서 보는 거랑 다른 점이 이 느낌이다. 거의 같은 크기로 서있는 미남자, 요즘 말로 아이돌이다. 시골뜨기 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신의 손'은 이번 전시의 가장 걸작이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험가로 가장 비싼 조각품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외부로 처음 반출된 작품이기도 했다. 그 외출, 처음 간 곳이 서울이다. 이번 전시 제목도 '신의 손-로댕' 전임을 알 수 있다. 중의적인 발상으로 보면 재미있다. 로댕이 신의 손이라는 것이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나니(성경 이사야66:2) 이 글귀와 함께 다가온 한 손의 투명함, 그 속에 아담과 이브가 엉키어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 로댕의 '성당'이라는 작품은 볼 수 없다. 기도하는 인간의 손이 모아 성당을 세운 것 같은 모습의 작품도 이번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해본다. 명성을 얻기 전 로댕은 고독했다. 명성을 얻은 후 그는 더욱 고독해졌다. 릴케가 한 말이다.

그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 만큼이나 고독하다. 이번 한국에 온 작품은 점토를 석고로 뜬 유일한 원작이다. 이 기본 틀로 주조공들이 12개까지 에디션을 하여 진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정설이다. 그래서 한국의 로댕 미술관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소장 하고 있다. 지옥문, 칼레의 시민 등도 여러 곳에서 소장한다.

복제 할 땐 기준 점과 숫자를 기록한다. '입맞춤'에는 수없이 많은 십자문의 점이 찍혀있다. 숫자는 로댕 박물관에서 매긴 작품 고유의 번호이다. 숫자 앞에 s는 조각, d는 데생, ph는 사진을 의미한다고 한다.

로댕은 1840년 파리 경시청 하급관리였던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로댕은 소설가 에밀 졸라,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소설가 토마스 하디, 미술가 끌로드 모네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그리고 로댕은 77번째 생일을 지낸 1917년 11월 17일 고통 없이 영원히 잠들었다.

카미유 클로델과 로댕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방도 준비 되었다. 직접 클로델이 조각한 로댕의 초상은 인상 깊었다. 클로델이 자기의 작품을 부숴버릴 때도 살아
남은 작품이다. 그리고 그 앞으로 클로델의 초상화가 보인다.

그들은 다시 현세에 태어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애원하는 여인' 조각상은 영원성을 상징해 주는 걸까?



청동시대



신의 손

로댕은 인생의 반려자 로즈 뵈레와 24살에 만나지만 로댕의 곁에서 모델 혹은 조력자로, 연인으로 자신의 열정을 바쳤던 여류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과 함께 지냈다. 카미유가 19살, 로댕이 43살이었던 1883년 그 둘은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 당시의 로댕은 유명한 조각가였고, 그 즈음 '지옥의 문'을 창작하고 있었다. 처음 만나자 마자 카미유의 내면에 숨겨진 열정을 한 눈에 알아 봤고 로댕은 그녀에게 몇몇 지옥의 여인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도 하고, 몇몇 사람들의 손과 발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한때는 클로델이 로댕을 잊으려고 작곡가인 드뷔시를 만났었는데 곧 헤어졌다. 드뷔시는 인상파음악을 열었다. 드뷔시는 섬세한 음악을 작곡하지만 여성을 멍들게 한 사람이기도 했다. 로댕도 여인에게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지만 드뷔시도 애인을 두고도 다른 여자와 약혼하고, 아내를 두고 애인과 여행가는 등 무책임하여 두 명이나 여인이 자살하기도



하는 '나쁜 남자' 들이었다.

우리 미술교과서에서 자주 보는 작품 '꽃 장식 모자를 쓴 소녀'(로댕미술관, 1865)는 오지 안했다. 그 작품은 화려한 꽃 장식에 비하여 얼굴은 수척하고 슬퍼 보이는 소녀얼굴이 안보였다. 사실 그 작품이 로댕의 부인인 '마리 로즈 뵈레'를 모델로 한 작품이라고 한다. 그 소녀가 첫사랑인 것이다. 카미유 클로델을 만나기전 소녀, 그가 로댕의 아이를 낳아주었고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로댕 주변에서 로댕을 지켰으며 56년 만에 혼인을 하고 유일한 법적 여자가 된 셈이다.

로댕이 클로델에게 보낸 편지는 무어란 말인가? "내 사랑하는 카미유, 미의 여신이여, 속삭이는 꽃보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매일 그대를 볼 수 없다면 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야"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하면 곤란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돌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입맞춤, 영원한 우상, 탐욕과 욕정 등...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세기적인 작품을 잉태했고, 그들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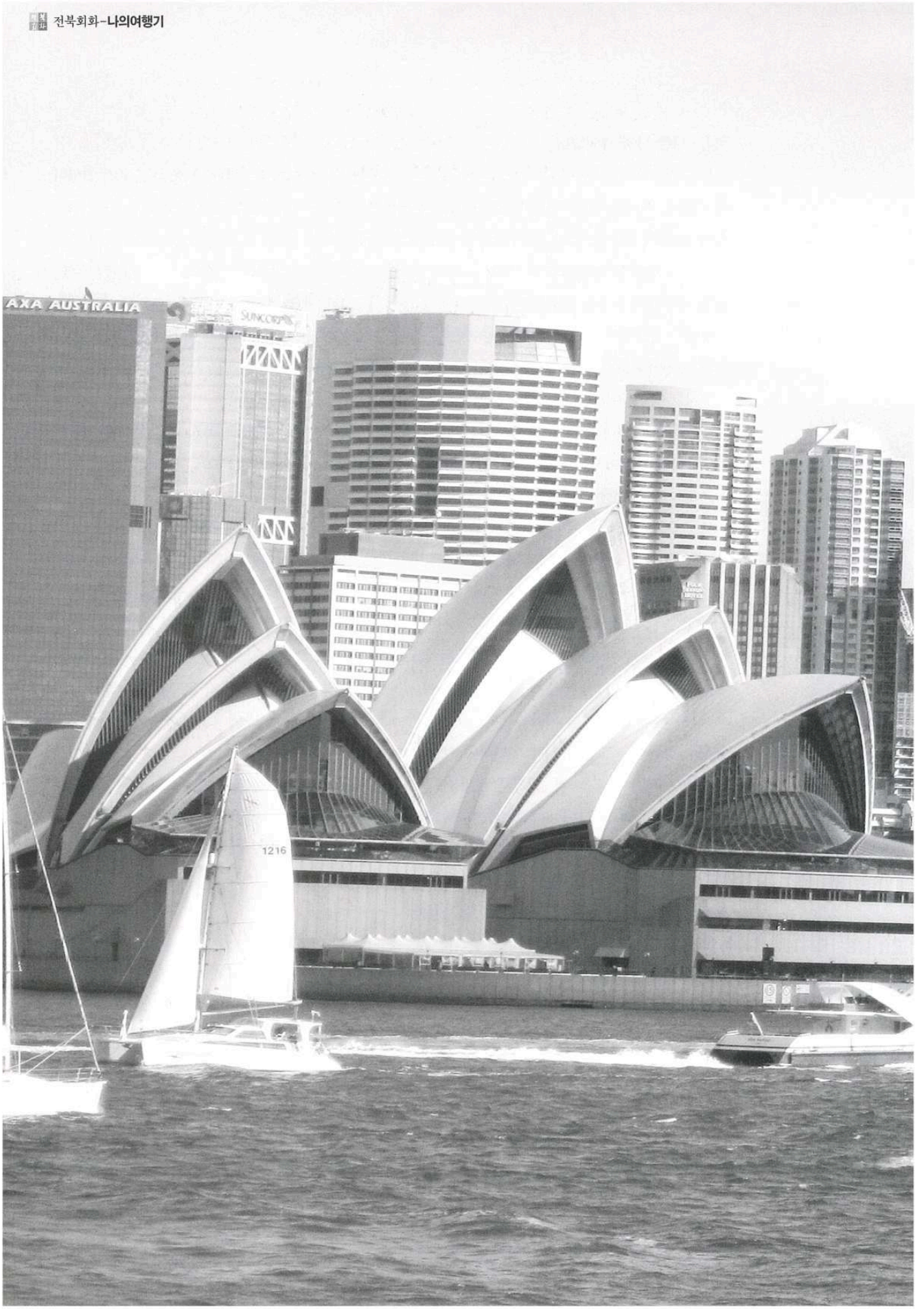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고전을 찾는 것이리라.



드로잉 수채그림은 1만여 점이나 된다고 한다. 그는 "생명이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고 신성함이며 꼭 붙잡아야 할 순간"이라고 할 만큼 역동적인 인체모습에 공을 들였다. 애로틱 하면서 역동성은 조각에 잘 나타나 있다. '니진스키'와 '이사도라 던컨' 등의 무용수 춤동작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 '신들의 전령, 아이리스'나 '춤동작'의 청동 조각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전통 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능미와 역동성에 심취한 결과인 듯하다. 1906년 캄보디아 무용단의 이국적인 손놀림과 율동미는 그를 매혹해 했다. 캄보디아 무용수를 따라 마르세유까지 가서 그림을 그렸고 그 작품 등은 팔지 않고 간직 했다고 한다. 입맞춤의 모티브는 단테의 신곡에서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불륜이었다나. 그런데 시대의 역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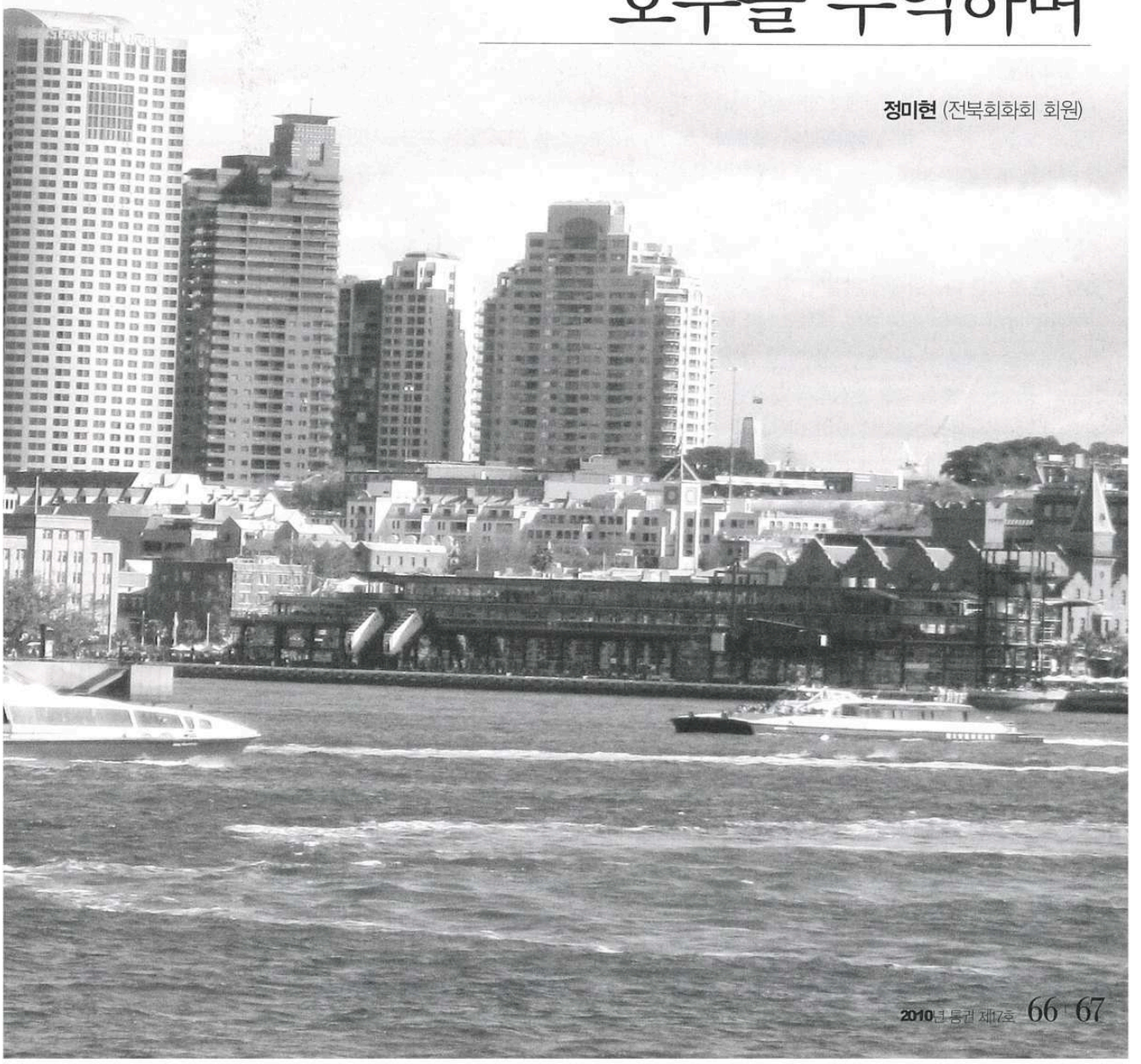
이번 전시된 '지옥문'과 '칼레의 시민'은 완성품을 만들기 전의 축소 작품이다. 로댕의 작업과정이 석고로 뜨고 주조공들이 작업을 하는 것인데, 지옥문은 원형은 완성하고 주조로 만드는 것만을 다 못보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6m가 넘는 작품이라 전시가 되기도 어렵다. 대형 작품은 15점인데, 아담, 이브, 웅크린 여인, 생각하는 사람, 기둥
위의 걷는 사람, 청동시대, 세례자 요한, 영원한 우상 등이다.

1900년 파리에서 국제 박람회가 열리자 인근에 있는 알마 광장에 별도의 전시장을 짓고 168점의 조각, 데생, 사진을 공개했다. 건축 구조, 구성, 배치, 조명, 작품 진열까지 연출했다. 그 곳에 있던 작품인 '기둥위의 걷는 사람'을 이번 전시에서 만난 것이다. 3m에 이르는 지둥위에 올려 진 작품이다. 그 당시 1900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시립미술관 정원에 피어 있는 라벤더 향기를 즐기면서 광화문으로 향했다.


AXA AUSTRALIA
SUNCORP
1216

신이 내려주신 축복의 땅! 거대한 섬 호주를 추억하며

정미현 (전북회화회 회원)



6박8일의 짧고도 긴 시간들~
내 삶의 멋진 추억을 되새겨본다

하나의 거대한 섬이면서 우리나라 영토의 78배가 되는 거대한 자연의 보고를 품고 있는 나라 '호주' 모처럼의 여행에 한껏 기대를 품고 저녁 8시경에 호주 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비행기의 날개처럼 내 마음도 새로운 이국의 땅을 행해 날아가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여행을 위해 준비한 안내책자와 몇 칠전 서점에 들려 구입한 호주 여행의 길잡이 책을 뒤적이며 6박8일간의 일정과 그곳의 명소들을 훑어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 덜컹이며 착륙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8시간이 넘게 날아와 호주하늘아래 도착하여 있었다. 비행기문이 열리고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마친 뒤 가이드 안내에 따라 투어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제야 이국땅에 와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여행에서의 이순간이 삶의 시간 속에 신선한 반전을 갖는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다.

도착한 곳은 무척이나 맑고 청명한 하늘을 지닌 브리스번이었다.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남태평양에 접해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연중 기후가 따뜻하여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선한 공기 때문인지 숨을 들여 마시자 목이 상쾌하였다. 브리스번 씨티를 거쳐 시민공원에서 그들의 여유로운 삶의 복지문화를 느끼며 일행들과 첫 번째 티타임을 가졌다. 커피의 향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하다. 사우스뱅크에 자리한 퀸즈랜드 박물관에서 현지에서 발굴된 공룡 유골들과 지역의 민속품들을 관람하고 예술갤러리에 들려 호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붉은 빛이 도는 평평한 산들과 허허로운 들판의 풍경화가 눈에 많이 들어왔다.

호주의 현재 계절이 겨울임에도 한 낮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남태평양의 '골드코스트' 비취관광코스를 끼고 있는 휴양도시인 만큼 바다를 즐기는 부유층의 저택과 개인 요트선착장의 풍경이 이색적이면서 브리스번의 도시풍경을 말해주는 듯하였다. 요트 선착장을 끼고 있는 어느 조그만 식당에서 호주의 대표적 먹거리인 스테이크와 포도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틀 만에 등을 펴고 침대에 누울 수 있는 호텔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었다. 긴 일정의 피곤함속에 내일이 기대되는 새벽을 기다리며 새로운 이국땅에서의 잠을 청하였다.

이튿날 다시 투어버스를 타고 골드코스트 남쪽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하였다. 호주 인구의 70%가 1차 산업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소와 양을 키우고 살아가는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의 중요한 문화의 축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오후에 방문한 시로멧 와이러니에서의 반딧불 동굴체험은 호주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이 내려주신 풍요로운 땅의 삶을 감사하며 자연과 환경에 대해 소중


블루마운틴


시드니해안


12사도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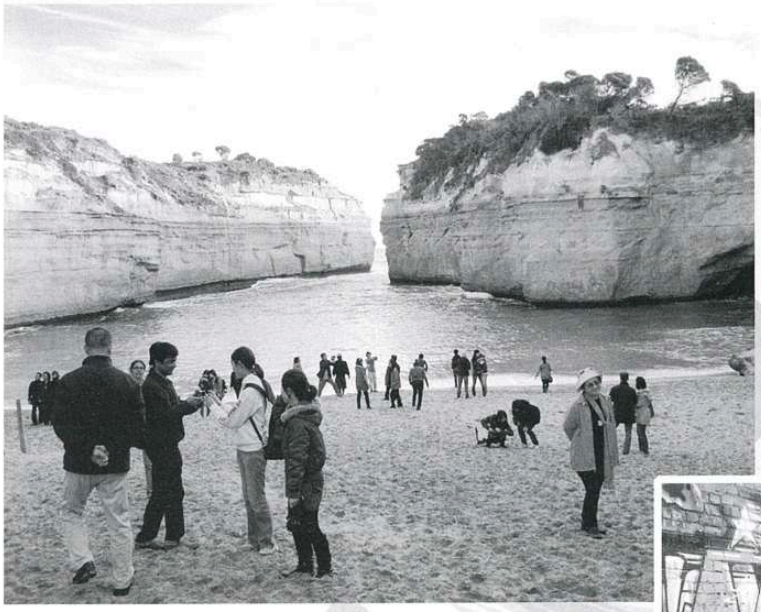
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코스였다. 따사롭고 여유로운 자연을 지닌 브리스번 일정을 마치고 7시 45분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여정을 꿈꾸며 날아간다. 가이드 안내를 받아 시드니 중심에 위치한 베이뷰 호텔에 도착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이 다녀가셨다는 역사가 깊은 호텔이었다.

새벽 6시에 전화벨소리에 잠을 깨었다. 아침 산책을 가자며 단잠을 깨운다. '시드니의 아침공기'를 떠올리니 잠이 확~ 달아났다. 서둘러 겉옷을 걸쳐 입고 룸메이트 후배와 함께 호텔을 나와 한적한 주택가가 있는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우리나라 도시의 아침이 생각난다. 새벽부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과 시민들, 북적거리는 출근길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와 버스들의 긴 행렬들, 바쁜 일상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나라 도시의 단면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시드니 중심가에 아침 7시경 풍경은 조깅하는 몇몇 사람들과 한적하게 달려가는 차량들의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참으로 한가로운 도시의 풍경이다. 우리나라의 78배의 거대한 땅에 인구가 2,200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호주는 고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겠다 공감해본다.

시드니에서의 첫 번째 방문지는 숙소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한 블루마운틴이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평평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다. 코발트 물이 뚝! 떨어질듯 한 맑은 하늘아래 거대하게 펼쳐져있는 블루마운틴은 유칼립투스 나뭇잎에서 나오는 유액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증발하여 푸른 안개가 생긴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산은 5억년전에 형성된 노년기 산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곡선의 산봉우리가 아닌 평평하게 펼쳐진 산모양이 인상적이었다.

브리스번 미술관에서 보았던 풍경화의 그림들과 내 앞에 펼쳐진 평평한 붉은 산의 모습이 크로즈업 되면서 다시한번 그림의 향기를 떠올려보았다.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세자매봉의 얽힌 전설을 들으며 우리 일행들은 블루마운틴 열대우림을 채운 식물군중 우리나라 고사리와 비슷한 독특한 나무들을 관찰하며 산책하였다. 참으로 시원하게 코가 뚫리는 숲속향기가 느껴지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아바타'라는 영화의 숲속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시닉 케이블카를 타고 545m의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 깊고 넓게 펼쳐진 산의 절경에 감탄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절벽의 모퉁이에 서서 250m의 수직절벽을 오르는 스릴만점의 관광열차를 타고 올라왔다. 열차에 오르기 전 동료 음악교사가 블루마운틴의 숲속을 행해 열창했던 '막걸리 부르스'가 떠올려진다. 기차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박수 치던 모습이 여행의 쉼표가 아닌가 싶다. 언제 모악산에 올라가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정말 막걸리 한잔 마시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기분이 즐거워진다.







360° 회전하는 스카이 레볼링 레스토랑에서 블루마운틴의 전경을 바라보며 뷔페점심을 마친 뒤 해양박물관에 들려 호주의 해양역사를 돌아보고 1981년에 세워진 높이 350m의 시드니 타워에서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에 오페라를 관람하기로 되어있는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 하우스도 보였다. 스타시티카지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고 설레이는 오페라 감상을 위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하였다. 이곳의 관람을 위해 동료교사들은 기품 있는 관객의 매너를 보이려고 아침부터 한껏 옷차림에 멋을 내었던 들뜬 하루였다. 시드니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이 건축물은 1959년에 착공하여 1973년에 완공하기까지 15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원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축예술이다. 완공당시까지 엄청난 공사비와 어려운 건축시공으로 해체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 우뚝 세워진 '오페라하우스'는 비현실을 현실로 이루어낸 파격적인 건축물로 건축사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호주 시드니를 문화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킨 효자 명소가 된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 입장 티켓 팅을 한 후 2층의 중심에 위치한 2등석에 자리 잡고 앉았다. '푸치니' 곡 '서부의 아가씨' 오페라를 이곳에서 관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의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다. 11시가 다 되어서 숙소에 돌아왔지만 꽉 차게 보낸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 하였다. 어제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반대편 성당 쪽으로 걸으며 새벽녘 성당풍경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았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 아침이다. 시내중심가에 사람들이 조금 많아져 보였다. 시드니 동부 해안에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시드니 부촌이 모여 타운을 이루고 있었다. 남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파고가 거친 본다이 비치를 거쳐 '빠삐용' 영화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을 찍었다는 가파른 절벽과 파도를 즐겨보는 시간을 보냈다.

세계3대 미항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시드니항에서 배를 타고 점식을 즐기며 시드니의 아름다움을 둘러보는 호사스런 일정을 마치고 어제 시간이 부족하여 방문하지 못했던 NEW주립미술관에 들러 르네상스미술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1821년에 시작하여 1928년까지 100년에 걸쳐 완공되었으며 파리의 노틀담 성당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세인트메리대성당에 들렸다. 고딕양식의 화려한 수직의 첨탑양식과 내부의 스테인글라스 장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다. 시드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다음 목적지인 멜버른행 비행기에 올랐다. 만트라 툴라마린이라는 호텔에서 마지막 여정을 풀고 호주의 최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 멜버른의 아침을 기대하며 잠을 청하였다.

멜버른의 아침은 호주 남동부 아래에 위치한 탓인지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정도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기후였다. 1901년까지 27년간 시드니와 함께 격년제로 호주의 연방수도이기 했던 도시의 역사를 지닌 탓인지 도시풍경이 고전적 이미지와 함께 시드니와는 사뭇 다른 세련미와 안정감을 지니고 있는 도시였다. 첫 번째 방문지는 멜버른의 가장 유명한 관광코스이기도한 그레이트 오션 로드이다. 투어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눈에 펼쳐지는 에메랄드빛의 남서부의 해안은 브리스번이나 시드니의 바다가 남성적이었다면 남대양과 맞닿아 있는 멜버른의 바다는 매우 여성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였다. 해안선을 타고 도착한 이곳은 근사한 절경들로 이어진 멋진 드라이브 코스이다. 조그만 해변마을에 위치한 아폴로베이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가장 장엄하고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12사도 바위로 이동했다. 12사도상은 남해의 우뚝솟은 석회기둥들로 1~2천년전에 본토의 절벽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파도와 바람에 의해 절벽이 뚫려 둥굴이 형성되고 깍여 나간 기둥들이다. 바다에 솟구쳐 있는 석회 기둥들의 모습은 장엄하고 신성함을 주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멋진 풍경이었다. 지금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8개 정도만 남아있고 언젠가는 모두 무너져 모래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자연의 윤회를 새삼 떠올리며 '신'이 빚어낸 자연의 일부임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12사도바위에서 5분정도 차를 타고 아드고지 해안에 이르렀다. 암초가 많아 유난히 난파된 배가 많았다는 기암절벽을 타고 내려오면 두 개의 기암절벽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벌어진 사이로 펼쳐지는 코발트빛 바다의 모습이 절경을 이룬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종착지는 아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절벽으로 런던브릿지라 불린다.

여행의 마지막 날 8월 2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왔다.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도시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길거리의 모습이다. 산책을 하고 난 후의 산책 일행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여유 있는 아침 식사시간을 보냈던 것도 여행 중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투어를 위해 단데농으로 출발하였다. 자연의 나라인 만큼 도시 곳곳에 아름드리나무와 온갖 식물들로 가꾸어진 공원들과 거리의 풍경은 '정원의 도시'라 불리울만 하였다. Grant Reserve 국립공원을 산책한 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100년된 퍼필빌리 증기기관차에 몸을 걸치고 다리를 흔들며 단데농의 아름다운 숲과 마을을 달리는 동안 동화속의 낭만과 흥에 겨운 교사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어릴 적에 배웠던 동요를 매들리로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다시금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듯하다. 아름다운 자연은 누구나 선하고 어린 맑은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는 위대한 존재이다.

단네농 근처에 있는 호주 스테이크 전문 식당가에서 호주인들이 먹는 양의 엄청난 칼로리를 지닌 스테이크와 빵, 감자튀김으로 푸짐한 점심식사를 즐기면서 호주인들의 체형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다. 다음 일정으로 미술관을 방문하였다. 시드니미술관보다 규모가 컸으며 다양한 고미술품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장하고 있는 멋진 미술관이었다. 우리지역의 도립미술관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 경제 문화의 힘을 느끼는 위축감과 부러움이 함께 밀려와 잠시 우울 했었다. 미술관에서 나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리인 일명 '낙서의 거리'에 들어섰다. 낙서를 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욕구를 인정하고 양성화시키려는 교육정책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거리의 낙서현장이 이제 관광의 명소가 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자연스런 거리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이다. 낙서의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티써클 트램을 탑승하고 시내를 거쳐 주 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내려 호주에서 가장 큰 고딕양식 성당인 성 패트릭 성당의 아름다우면서 엄숙한 내부의 장식들을 둘러보았다. 자연속의 나라 호주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도시속의 정원 중 '피츠로이 가든 산책을 마지막으로 우리 일행의 호주 일정을 마쳤다. 절묘하게 정원을 시작으로 정원에서 여행의 이야기를 끝내는 6박7일간의 호주여행의 주제를 저절로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내일 새벽 5시30분 출발일정을 위해 일찍 숙소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였다. 싸늘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인천공항을 향한 비행기를 탔다. 선잠으로 피곤한 탓인지 나른하게 잠이 온다. 한숨 자고나니 호주를 떠나 4시간정도 날아온 듯하다. 창밖의 풍경을 보기위해 가리개를 위로 밀어본다. 창공에 떠있는 비행기의 날개 한축 사이로 펼쳐지는 구름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몇 칠 간의 시간들이 너무도 짧게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뉴스의 현장처럼.. 11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더운 공기에 땀이 확 배어난다. 대기하고 있는 전주행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비가 내린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 여름밤의 꿈'을 꾸다가 일어난 오후의 나른함과 아쉬움이 밀려온다. 6박8일의 짧고도 긴 시간들~ 내 삶의 멋진 추억을 여기에 되새겨본다.



똘이야, 복순아 집 잘 봐!

하남성 낙양, 정주여행을 다녀와서.....

이진숙 (전북회화회 회원)

'이곳 정주는 주방이 없는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높답니다' 가이드의 이 한마디에 버스속에 타고 있던 우리 일행은 '와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우리의 3박4일 여행이 시작 되었다.

새벽 1시부터 준비를 하고 복순이와 똘이에게 집 잘 보라는 부탁을 하고 집을 나섰다.

공항에 오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된다. 이런 설레임과 기대를 뒤로 한 채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새 정주 공항이란다. 중국의 중심이라는 하남성 정주, 이곳 하남성 박물원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많은 유적에게 눈 도장만 찍고 '성주풀이' 의 가사에 나오는 낙양으로 향했다.



'성주풀이' 의 가사에 나오는 낙양으로 향했다.

중국의 3대 석굴 대동윈깡석굴, 돈황의 막고굴석굴, 낙양의 용문석굴이 있다는데 그중 하나인 용문석굴을 본다는 일정표를 받았을 때부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과연 대단했다.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땅 덩어리도 작고 사람 수도 적고 어느 것 하나 중국에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에 그래도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가이드가 한국관광을 다녀왔는데 전남 함양에서 먹은 음식 밖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말에 화가 났었다. 용문 석굴 앞에서 왜 자꾸만 석굴암이 눈앞에 아른 거릴까.

석굴에 있는 부처님상만 15만 종류가 있고, 크기는 17.14m에서2㎝까지 그리고 그중 장관인 '노사나대불' 앞에서는 감동 그 자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크기도 물론이려니와 섬세한 솜씨 또한 대단했다. 우리의 석굴암에서 신비감을 느꼈다면, 이곳 용문 석굴에서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마력을 느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불상들, 손가락하나보다 작은 수많은 부조 앞에 옛사람들의 불심과 권력자의 권세를 보는 듯했다.

또한 한 위정자의 잘못된 생각이 후대인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지도 느꼈다. 중국 문화 혁명 때 대부분의 문화유적들이 파괴된 흔적을 이곳 용문석굴에서도 목격 할 수가 있었다. 손가락 크기의 불상 마져도 파괴한 그들의 심리는 어떤 상태였을까. 하긴 우리네 현실도 그에 못지않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마구 파헤쳐지고 파괴되고 있으니.....

그런 분노의 마음을 뒤로하고 그 앞에 흐르는 황하의 줄기라는 이하강 다리를 건너서 중국이 유명한 시인 백거이의 묘가 있는 향산사로 향했다. 다리를 건너서 다시 한번 용문석굴의 웅장함에 머리를 숙이고 향상사의 높은 계단을 올랐다. 중국의 절 어디를 가든 향불의 매캐한 냄새와 연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들의 숙연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백거이와 아홉 사람의 부조가 새겨진 사당을 뒤로하고 편백나무가 좌우로 늘어선 길을 따라 여유있게 산책을 하는 사이사이에 그의 시와 제자들의 시가 새겨진 돌들이 일렬로 서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싱가포르 백씨와 한국의 백씨들이 만든 기념비도 있다.

영화로도 유명한 '용문객잔' 에서 정신없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다. 아직도 여행문화가 선진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 여행의 전형인 버스오래타기를 하고 소림사로 향했다. 그래도 영화로만 보아 온 소림사가 사뭇 궁금했었는데 기대가 되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버스는 좀처럼 속도를 내질 않는다. 가이드 왈 이곳은 500m마다 무인속도계가 달려 있단다. 그러니 어느 간 큰 기사가 과속을 하겠는가.

소림사에 도착하여 그 유명한 소림무술 쇼를 관람하기위한 줄서기와 입장하기는 가히 지옥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도 중국인들의 상업적인 기질은 여지없이 발휘된다. 공연 시작전과 끝난 후의 사진촬영으로 또 다시 짭잘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영화 속 소림무술을 직접 보니 또 다른 재미도 있었다. 불에 탄 소림사를 영화를 찍기 위한 셋트 장으로 만든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뒤로 한 채 순산케이블카를 타러 가는데 탑림이라는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탑이 보인다. 우리네 사리탑과는 또 다른 양식인 모전탑이 대부분이다. 참으로 특이 했다.



숭산 케이블카를 타고 그 높디높은 숭산의 기암절벽을 산책(?)하러 올라갔다. 몇 해 전 구경 갔던 장가계가 생각난다. 중국에는 문화유산도 물론 많지만 천혜의 자연자원도 많아서 무궁무진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없이 부러웠다. 오는 길에 비구니스님들이 운영한다는 음식점에 들려 모처럼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실컷 먹고 평소 갖고 싶었던 염주를 사서 남편의 손목과 내 손목에 하나씩 나누어 걸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행의 백미는 역시 발 맛사지, 우리 일행도 어김없이 발 맛사지shop에 들려 꽃같이 예쁜 처녀 총각들의 서비스를 받고 숙소에 왔다.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또 길을 나선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랜드캐년'의 동생 격이라고 자랑하는 초락시에 있는 운대산을 보기위해서....가는 도중 황하다리를 건넌다는 말에 잔뜩 기대를 했다. 세계에서 네 번째 긴강이라는데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카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에게게 이것이 황하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실인 즉 몇 년 전에 황하에 댐을 건설했단다. 그래서 강뚝이 줄어 그들 말로는 실개천이 되어버렸단다. 물은 여전히 황톳물이다. 물론 필요에 의한 개발이었겠지만 참으로 섭섭했다.

여행 내내 그곳 운전자들의 운전 솜씨에 경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앙선 침범도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한번도 접촉사고를 보지 못했다는 것과 교통경찰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친다는 것이다. 구경을 잘 하고싶다는 욕심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것을 후회하곤 했었다.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드디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주차장에 버스가 도착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곳 사람들은 모두 겨울 외투를 입었다. 미쳐 겨울 옷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일행은 가지고 온 옷들을 모두 껴입고 입장권을 받아 입장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오른손 인지의 지문을 찍는다. 셔틀버스를 타고 '홍석협'이라는 바위가 붉은 색으로 되어있는 협곡에 입장하는데 또 다시 지문을 찍는다. 깎아 지른 듯한 계단을 내려서 떠밀리다시피 내려간 곳에는 가는곳마다 붉은 바위사이에 쪽빛 물이 흐르고 또 다시 폭포가 되고 여기저기 안개사이사이에 바위산이 보인다. 좁은 길 군데군데 휴지통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맑고 깨끗한 비경을 즐겁게 감상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담배를 피우는 중국인 덕(?)에 이맛살이 구겨지기도 했다.

족히 6km는 됨직한 그곳을 둘러보고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와 점심을 먹은 후 그곳 식당에서 후식으로 주는 홍시 맛에 잠시 집에 있는 감나무에 잘 익어가고 있을 감 생각이 났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셔틀버스에 올라타서 '담폭협' 이라는 곳에 내렸다. 이곳에서도 입장하는데 예외없이 지문을 찍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왜 지문을 찍는지.....

이곳은 세 번 걸음에 천(泉)이 하나, 다섯 번 걸음에 瀑布(폭포)가 하나, 열 번 걸음에 담(潭)이 하나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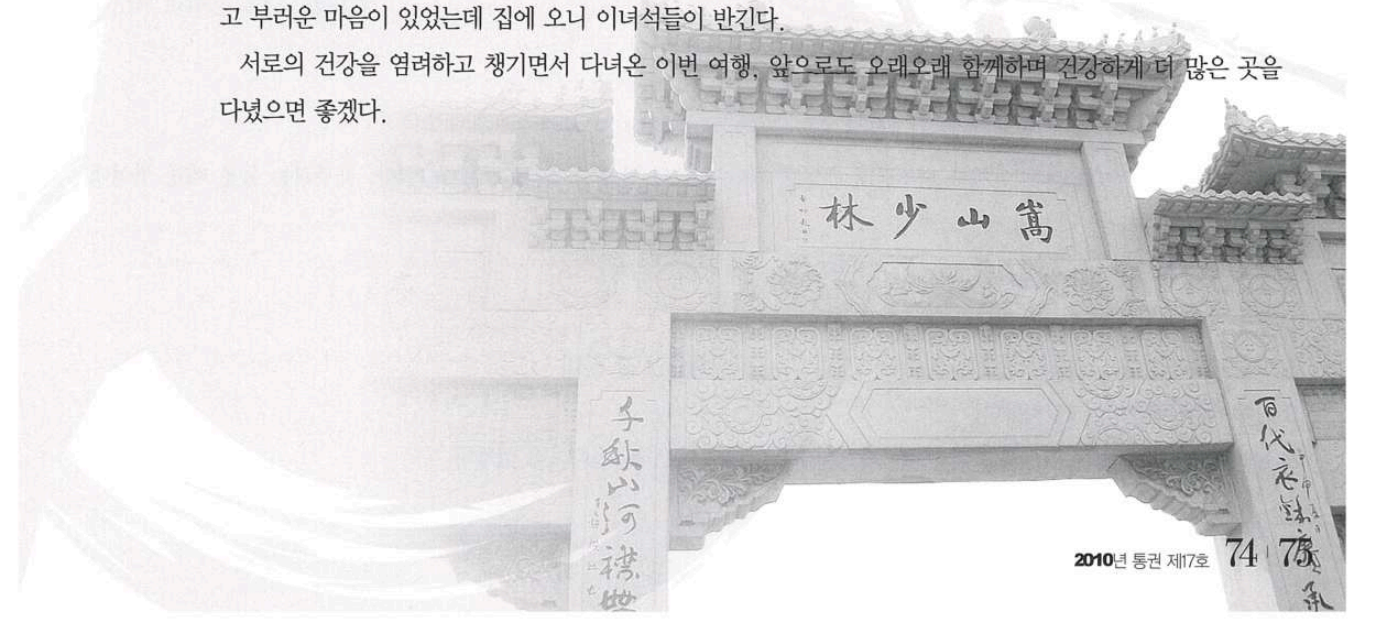
중국인들의 높은 자존심은 간판과 안내 책자에도 나타나 있다.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안내책에 오로지 그들의 글만 써 있고 어디에도 영문 소개 조차 없었다. 몇 년 전에 다녀온 루브르 박물관에 한글 안내 책자가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반가웠었는데..... 그러나 만폭협에 와보니 한글 안내문이 있는 것이다. 놀라서 보니 出口(출구) 入口(입구) 이렇게 써 있었다. 실망스러웠다. 경치를 감상하는 내내 부러움과 시샘을 가지면서도 아기자기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했을까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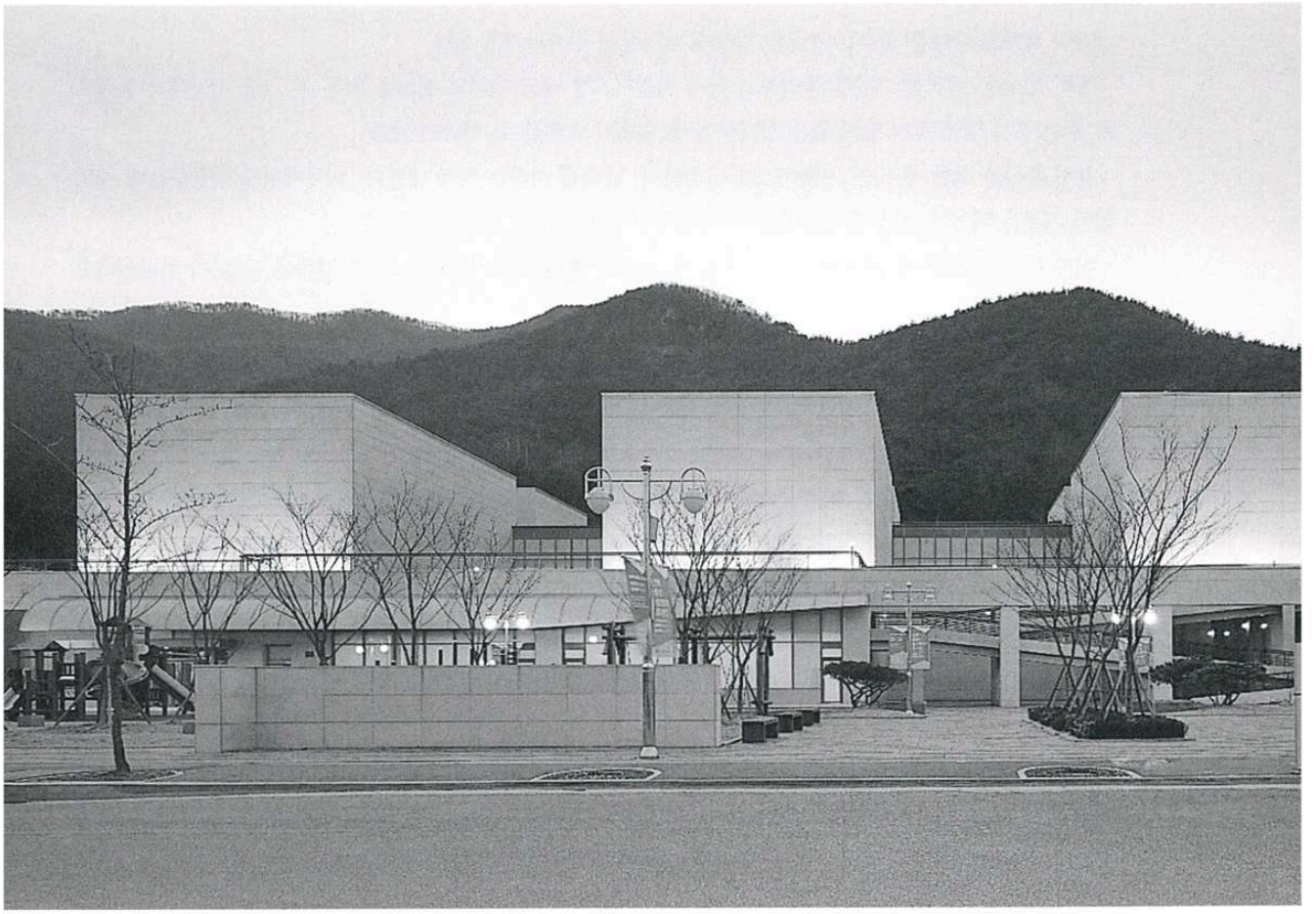
관광을 마치고 저녁에 들른 쇼핑센터에서 그가 나를 부르더니 지갑과 작은핸드백을 보이며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다. 당황스런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 해보니 어제가 우리가 결혼 한지 만 35년이 되는 날이었다. 일행들의 부러움 속에 그에게 빨강색 장지갑을 선물로 받았다. 여행 중에 선물을 받으니 그 기쁨이 배가 된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1923년 2월7일에 일어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리기 위해 새워 놓은 2.7기념탑을 보았다. 중국 전통양식으로 새운 쌍둥이 탑이다. 그곳에서 5만여 노동자들이 죽어다니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드디어 정주공항에 도착했다. 가지온 짐들을 부치고 면세구역에 들어왔다. 여행지마다 찻잔을 모으는 나는 여기에서도 예쁜 찻주전자와 찻잔을 골라 값을 흥정(?)하였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흥정이 통하는 것이 놀랍다. 마음에 드는 값에 또 하나의 찻잔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비행기에 올라 지나온 여정을 잠시 생각하는 사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 버스를 타고 전주에 내려와 오랜만에 뚝배기에 먹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일행들과 짧은 작별인사를 하고 집에 오니 똘이와 복순이가 납작 업드려 우리를 반갑게 맞이 한다. 전주에 오는 버스 속에서 다른 일행들은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중 나오라는 전화에 서운하고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 이녀석들이 반긴다.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챙기면서 다녀온 이번 여행,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며 건강하게 더 많은 곳을 다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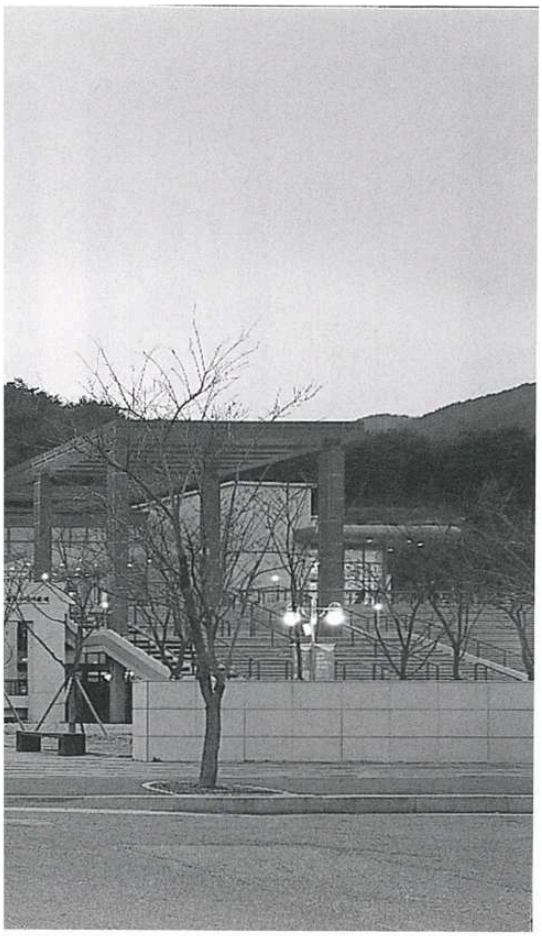




환상의 세계를 다녀와서

김도언 (전라고등학교 1학년)

2010년 늦봄 화창한 날 친구들을 꼬드겨서 도립미술관으로 향했다.
가까운 시내에도 문화공간이 있지만 모처럼의 휴일을 자연 속에서 길게 심호흡을 하고 싶었다. 공부라는 묵은 때를 씻어내고픈 감성으로 970번 버스에 몸을 실었다.
모악산 자락에 있는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 햇볕은 왜 이리 아름다운지...
봄볕이 아름답다고 느낀 것이 참 오랫만인 것 같다.
전라북도의 자랑인 도립미술관 전시장에 들어서니 의외로 사람들이 참 많다.
오늘이 석가탄일이서 그런가보다.
전시장에서는 '호모루덴스, 유희하는 인간'과 '신기한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고 있었다.



먼저 '호모루덴스, 유희하는 인간' 전시장에 들어섰다. 이 전시는 매스미디어 사회의 특징인 시각 위주의 환경을 넘어, 청각 및 촉감을 자극하는 작품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한다. 정말로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넘쳐났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성동훈 작가의 '자연의 신'이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캔타로스를 묘사한 작품인데 파란색으로 아주 감각적인 표현을 한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본 작품은 이초롱의 '한마음'이다. 금붕어가 한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헤엄치는 모습인데 보기에 정말 아름다웠다.

다른 전시장의 '신기한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와 예술을 융합한 작품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무한 상상력과 발상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이 전시의 대표작으로 가변 설치된 '3d 공'을 말하고 싶다. 이 작품은 영상물인데 보면 볼수록 신기한 작품이었다.

이 전시는 미디어 아트에 대해 새롭게 알고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감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소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였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 않나 싶다.

따라서 어렵겠지만 좋은 작품을 자주 접하고 작품의 핵심을 찾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보다 더 좋은 감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나머지 작품들을 더 관람하고 밖으로 나왔다.

갑갑한 현실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문화공간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도 나 개인적으론 미술 전시장에서 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공기가 탁하면 환기를 시키듯이,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서를 안정시키고 삶의 여유를 되찾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자주 찾아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 에너지로 일상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내려오는 길,

길가의 가로수들이 신록의 자태를 더욱 뽐내고 있었다.



먹의미학 서화의 세계...

전북도립미술관 2010.10.15~11.21

+

노희선 (호남제일고등학교 2학년)

한국화라고 하면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실적인 묘사와 화려한 색채, 그리고 원근법, 투시법 등을 써서 정말로 화폭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서양화만 주로 접한 우리들이라면 단순한 선과 흑백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한국화는 지루하고, 시시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나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은 사실이었다. 나에게 한국화란, 우리나라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고 어색한 것 이었다. 나는 미술관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심란해했다. 한국화에 대한 내 지식이란 학교에서 얼마 없는 수업시간, 미술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였다. 아주아주아주 유명한 작품 두어개.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인데, 내가 한국화를?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을까?



한국화라고 하면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실적인 묘사와 화려한 색채,
그리고 원근법, 투시법 등을 써서 정말로 화폭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서양화만 주로 접한 우리들이라면
단순한 선과 흑백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한국화는
지루하고, 시시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강렬한 점은 없지만
수수하고 담백함으로써
멋을 자랑하기에 오히려 단순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는 법이다.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지금 역시 고민하고 있다. 내 짧은 지식으로는 내가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감동과 감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감상한 한국화는 따분하기는 커녕 흥미진진하고 우아하기까지 한, 멋진 작품들이었다.

첫 번째 전시실은 남정 최정균 선생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온통 잘 알아보지 못하는 한문으로 빼곡한 전시실이었지만 나는 그 작품들을 흰건 종이요, 검은건 글씨로다 하는 감상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한지 위에서 고고하게 씌여진 한문의 글씨체가 너무 우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과서나 한자쓰기 책에서 보는 활자로 찍힌 한문과는 다르다. 자를 대고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나 도장으로 찍어낸것도 아닐텐데, 가지런히 씌인 글자들은 비록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커다랗게 울린 종의 반향처럼 잔잔하게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이 전시실에는 시 뿐만 아니라 그림도 있었다. 시만 가지런히 씌인 것도 멋있지만 그림과 한문이 함께 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이 글씨를 설명하고 글씨가 그림을 설명한다. 수많은 먹의 향연 중에서 곱게 핀 수려한 연꽃이나 하얗고 검은 세상 사이에서 붉게 피었기에 더욱 아름다운

벚꽃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종이에서 선 몇 개로 떠올라서 날 바라보는 달마도도 있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유려하게 그어진 선들이 모여서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되고 의미가 담겼다. 난 하나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라고 느꼈다. 한 획, 점 하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종이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흰 종이를 모두 덮어버려서 종이 그 본래의 빛깔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서양화와는 달리 또 다른 맛이 있었다. 문득 나는 내가 처음으로 한국화 작품들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 전에는 교과서에서나 슬쩍 보고 지나갔을 뿐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종이 위를 지나간 먹의 흔적을 보지는 못했었다. 붓에 있는 먹의 양, 붓을 놀리는 빠르기 등에 의해 일어나는 다양한 작품의 면모를 보면서 나는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다음 전시실은 정말로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첫 번째 전시실 역시 멋진 작품들이 가득했지만, 나는 내심 한문이나 한시, 한문 서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감상문을 써야 할 지 막막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두 번재 전시실에 가득 걸린 벽천 나상목 선생님의 그림들은 주로 맑은 산수화들이었다. 정말로 청명하고 깨끗한 그 그림들을 보면서 한시름 덜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한국화를 접한다는 생각에 한껏 들떴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그림들은 고요하고, 조용했으며, 고아했다. 남정 최정균 선생님의 작품들이 양반들이 썼을 법 한 시서화가 한데 어우러진 옛날 선비들의 재현작이었다면 나상목 선생님의 작품들은 옛 조선시대의 화가들이 그렸었던 아름다운 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담고 있었다. 어떻게 먹의 농담만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신비로운 안개에 한번 감싸인 그림들 안의 산에는 터럭이 흰 신선이 하나씩은 꼭 살고 있을 법 했다.

서양화처럼 복잡한 색채를 쓴 것이 아니다. 화면을 답답할 정도로 꽉 채우지도 않았다. 공백이 있기에 그 곳에 공간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화폭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화가들이 유일하지 않을까. 흔히들 여백의 미, 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냥 하얗게 비워둔 종이를 보고 여백의 미라고 하진 않는다.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으로 펼쳐진 흰 공백은 그림에 순수함과 담백함을 더해주며 동시에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는 나상목 선생님의 그림에서 보일 듯 말듯한 바위와 산들을 보고, 느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는 것 처럼, 그리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니, 그리지 않아야만 전해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전시실. 석전 황욱 선생님의 글씨. 처음 전시실에 들어와서 첫 작품을 마주했을 때는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어이없어 했다. 나는 한자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만큼 몇몇 자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씨에서는 내가 아는 한자를 하나도 찾을 수 가 없었다. 아니, 알아볼 수 가 없었다. 악필법이라고 소개된 이 서체는 단구법, 쌍구법처럼 우아하게 붓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붓을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글을 쓰는 독특한 서체다. 그래서일까, 앞서 본 작품들과는 달리 황욱 선생님의 작품들은 투박하고 두꺼우면서 거칠었다. 예쁘고 유려하고, 갈대처럼 낭창낭창 유연한 글씨들만 보아 온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치 바위산을 보는 느낌을 받은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서체들이 보면 볼수록 정겨워지고 인물도 없는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다. 마치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다른 어느 전시관들보다도 더 열심히 이곳의 작품 제목들과 설명들을 읽었다. 90살이 넘은 선생님이 깡마른 손으로 어쩌면 손가락보다 더 두꺼울지 모르는 붓을 꽉 움켜잡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갔을 이 작품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마치 돌을 깎아 그 안에서 형태를 꺼내는 오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단단한 인내심과 끈기로 써 내려갔을 글들은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실로 노익장이었다. 곧지 않은 획, 그리고 떼지 않고 한 번에 써 내려간 글자 하나하나가 눈길을 잡아 끌었다. 나는 어쩌면 이 글씨들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마지막의 커다란 전시실에는 강암 송성용 선생님의 작품들이 있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본 짤막한 영상에서, 강암 송성용 선생님은 완전히 진하지 않은 농담으로 곧은 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처럼 전시실의 한쪽 벽에는 온통 대나무들이 가득했다. 사군자중에서 절개와 강직함을 상징하는 대나무는, 그렇기에 수많은 선비들의 벗이 되었고 스승이 되었다. 그 대나무들이 그림 속에서 더욱 단단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송성용 선생님의 글씨는 깔끔하고 또박또박 씌인 서체가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의 유연함으로 신비로울 정도였다. 여기에도 한국화가 있었는데, 벽천 나상목 선생님의 그림과는 조금 달리 부드럽다고 할까, 포근한 느낌의 그림들이었다. 특히 병풍에 그려진 사계절이 인상 깊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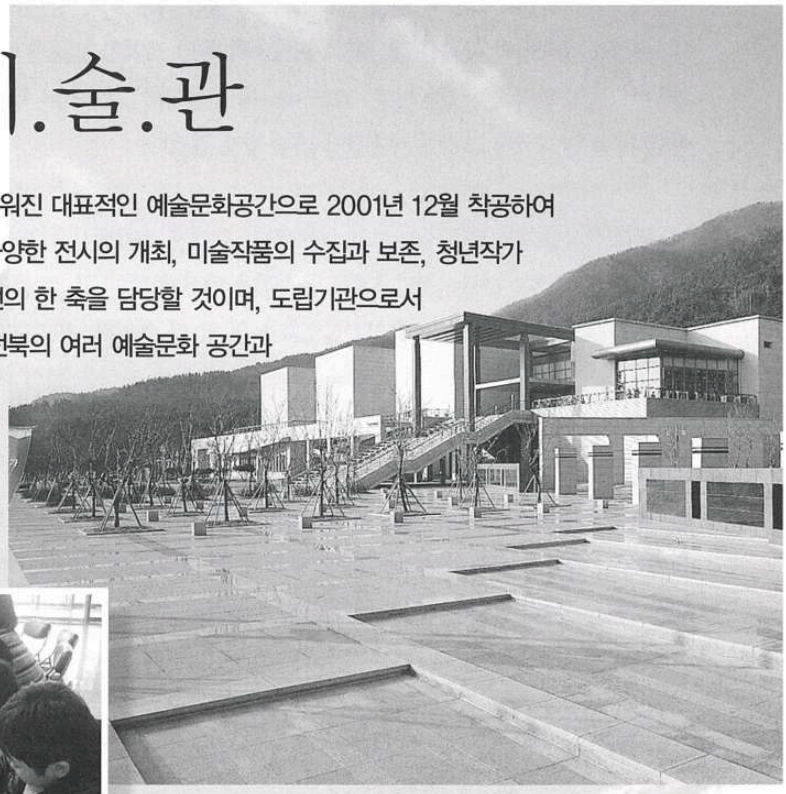
마지막 전시실까지 모두 돌아보고, 사진작가 분에게 부탁해서 특히 인상에 깊게 남은 사진을 몇 장 찍었다. 해독할 수는 없지만 서화는 보는 것만으로도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은, 준엄한 기운이 있었다. 특히 석전 황욱 선생님의 서체와 벽천 나상목 선생님의 산수화를 몇 장 더 찍었다. 우연히 기회가 닿아 감상하게 된 한국의 우아한 그림들. 문을 나서면서 나는 조금 후회했다. 진작에 한국화에 관심을 둬서 이곳에 오기 전에 조금 더 많이, 깊이 알고 와서 봤으면 조금 더 나은 감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잘 느끼고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평소 같았으면 나른하고 졸려했을 일요일에 만난 한국화는 나에게 호수에 작은 조약돌이 만든 잔잔한 파동처럼, 혹은 화선지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마음에 퍼졌다. 다음에 또 서화를 감상할 기회가 찾아온다면, 지금 가슴속에 퍼진 파동을 간직해뒀다가 그 때 다시 한 번 꺼내보려고 한다. 어떤 강렬한 점은 없지만 수수하고 담백함으로써 멋을 자랑하기에, 오히려 단순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는 법이다.



미술관소개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은 전통문화의 고장 전라북도에 세워진 대표적인 예술문화공간으로 2001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은 다양한 전시의 개최,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 청년작가 발굴과 국제 교류 등을 통하여 전북 미술문화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도립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견지하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의 여러 예술문화 공간과 연계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해 나아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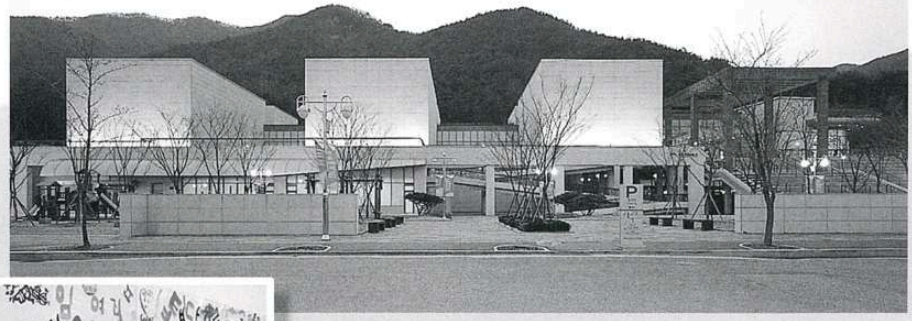
전시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소장품 전시, 다양한 주제와 맥락 속에서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 주요 미술관 간의 순회전,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제전 등을 통해 미술문화의 본격적인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개관전 '엄뫼 · 모악' 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66회의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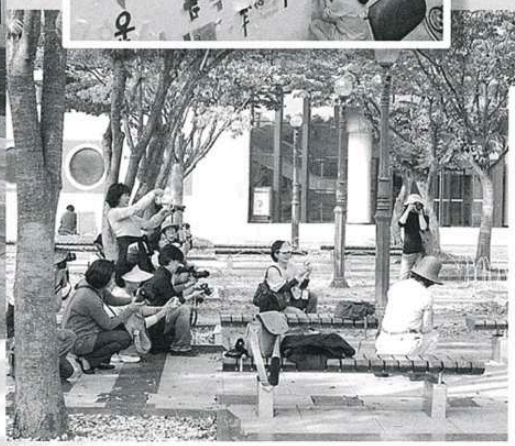
작품 수집과 보존

국내외 우수 작품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구입과 기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보존 · 관리합니다. 2004년 작품 수집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화, 회화, 서예, 조각, 판화,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술사적 흐름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소장 작품과 작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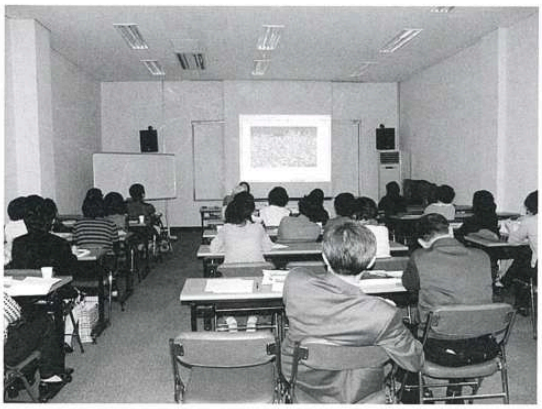


■■■■ 교육 프로그램

단순한 작품감상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술문화를 생활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양화·한국화 등의 실기교육, 미술사 등의 이론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복합문화 프로그램

전시 외에도 음악회, 국악공연, 무용공연, 연극공연, 마임공연, 인형극 공연, 퍼포먼스 등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주말 체험 프로그램과 영화·애니메이션 상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미술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인 교육

■■■■ 도청사 기획전시실 운영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전시 관람을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 문화화에 기여하고자 기획전과 소장품전을 개최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전시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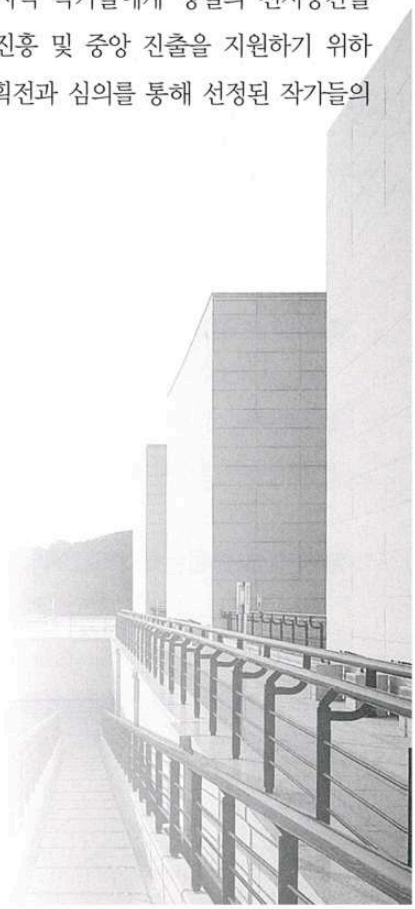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

전북 미술계의 숙원이었던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이 서울 인사동에 둥지를 틀고 2010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서울관 대관은 전북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에 물꼬를 트는 시발점으로 전북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북지역 작가들에게 양질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활동 진흥 및 중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과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의 대관전을 개최합니다.



도청사 기획전시실



읽을 만한 책



한국 시각예술의 과제와 전망

〈 저자 최태만 / 출판사 다할미디어 / 2009년 11월 〉

『한국 시각예술의 과제와 전망』.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원회가 기획하고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한 '시각예술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주제의 글 중에서 한국 시각예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만한 서른 편의 글을 골라 엮은 것이다. 예술가의 창작환경 조성, 미술시장, 지원제도 및 세제 개선방안, 세계화, 시각예술 교육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과 방계예술과의 연계 및 협업 가능성 모색, 시각예술의 사회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 저자 석길암 / 출판사 불광출판사 / 2010년 6월 〉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불교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는 인문교양서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불교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동아시아 사회와 사상,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북방으로 전파된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하여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에 도착하였을 때를 시작으로, 불교에 의한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동아시아 불전의 형성을 시작으로, 사경 신앙과 문화의 역사, 아미타불, 불보살상, 동아시아 차문화, 한국불교의 근대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
불교와 동아시아와의 만남은 동아시아 문화권만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현상들을 창출하였다. 보살신앙, 성리학과 인쇄술까지 다양한 문화들이 불교를 계기로 발달하였다. 이 책은 『불교저널』에 연재되었던 글의 일부인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하나로 엮었다.



미술사논단 제30호

〈 저자 한국미술연구소 / 출판사 시공사 / 2010년 10월 〉

세계 각 지역 미술문화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통 미술과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 온 『미술사논단 제30호』. 본 호의 특집으로 기획된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구축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그간의 연구를 돌이켜 보며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간송 전형필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

〈 저자 이충렬 / 출판사 김영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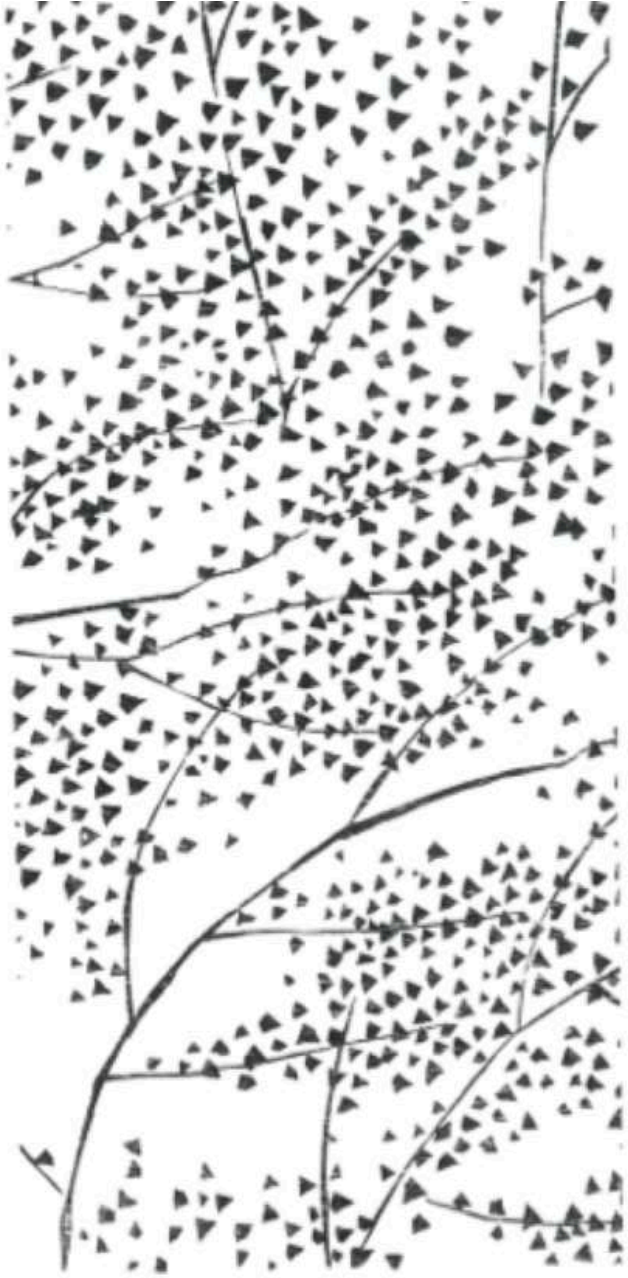
조선의 국보와 혼을 지킨 수문장, 간송을 만나다!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간송 전형필』. 일제강점기 시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억만금의 재산과 젊음을 바쳐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수집한 간송 전형필의 삶을 다룬 평전이다. 서화, 도자기, 불상, 석조물, 서적 등 그가 수집한 문화유산은 국보와 보물 등의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학계의 평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왜 간송이 문화재 수집에 모든 것을 바쳤는지, 그런 그에게 어떤 번민과 고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사로잡은 한국의 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간송 전형필의 수집품들은 성북동에 있는 국내 최초 사립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간송미술관을 운영하는 후손들은 그가 문화재를 수집한 이유가 개인의 명예나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얼과 혼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음을 잊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유럽의 로맨틱 명소 101

〈 저자 사라 우즈 / 역자 조진경 / 출판사 시그마북스 / 2010년 10월 〉

유럽으로 떠나는 로맨틱 여행!
로맨틱한 유럽여행을 도와주는 가이드북『유럽의 로맨틱 명소 101』. 20년 동안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며 60여 개국을 여행한 모험가 사라 우즈가 유럽에서 로맨틱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101곳을 소개한다.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유럽의 명소들을 엄선했다. 스위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룩셈부르크에서 라트비아까지,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를 소개하고 유럽의 로맨틱 명소들을 안내한다. 파리, 베니스, 로마 같이 전형적으로 로맨틱한 여행지는 물론, 로테르담의 선상주택, 부다페스트의 골동품 상점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로맨틱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도 알려준다.
이 책은 로맨틱한 여행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가면 좋을지 등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제공한다. 오리엔트 특급열차에서 하룻밤 보내기, 벨기에에서 초콜릿 맛보기, 마드리드에서의 살사 댄스, 라플란드에서의 이글루 체험 등 로맨틱한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함께 실려 있는 명소들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생생함을 더해준다.



안순금
엄기석
이광원
이윤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철방
이희창
이경배
윤 호
정미현

【 편집후기 】

어느덧 2010년도 11월의 끝자락을 잡고있네요.
세월의 빠름을 다시한번 실감해봅니다.
회화회가 스무해가되어 지와 인연을 맺은지도 몇년, 같이어울어져
아름답게 물들어가고있지요. 우리 회원님들 마음에 담긴 작품을 대하면서
설렘을 안겨주고 기쁨으로 감상했습니다.
시간 아끼기에 우리가 해야할일이다. 생각하고
다음계 작업을 하신 회원님들의 모습이 스칠때
후진들에게 꿈과희망을주는 회원님들이구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회화를 사랑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회원들과
회화회를 위하여 옥고를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회와 회화지가 나오기까지 모든 부문을 총괄하신
안순금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즐겁고 의미있는 날들되시길 기원합니다.

— 이 광 원

전북회화

2010년 통권 제17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안순금
편집위원 이광원, 이승훈, 고형숙
전북회화 2010년 통권 17호
발행일 2010. 11. 8
대표연락처 010-2635-6314
기획,제작 프린팅헤븐 T. 287-9796, 010-5255-1236

2010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습니다.